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7 1997

제167차 연차대회 특집호

십이사도 정원회

앞줄 왼쪽부터: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엘 톰 페리 장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뒷줄 왼쪽부터: 러셀 엠 넬슨 장로, 댈린 에이치 오크스 장로, 엘 러셀 브랜드 장로, 조셉 비 와이리 장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로버트 디 헤이즈 장로,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7차 연차 대회 보고

1997년 4월 5~6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진행 절차

교회 회원들이 태버내클 안에 들어가기 위해 입장권을 받을 희망을 갖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줄을 서 있음.

이번 4월 연차 대회의 훌륭한 주제는 개척자였다. "저는 선조들이 이룬 일의 중요성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에 관해 계속 말씀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말씀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그분의 예언자들의 듣는 귀와 이 대업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철저한 헌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엄한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수십 만 명, 아니 수백 만 명의 회원들이 오는 7월에 개척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룬 기이한 업적을 경축하고 그들이 놓은 기초에서 성장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함께 기뻐하기로 한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1997년이며, 미래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울 수 있는 훌륭한 학원이 있으며, 귀중한 가족 역사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천 명이 예배볼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대중 매체도 우리를 좋게 다룹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개척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씀했다.

"경전 역사의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 궁극적인 개척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인간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과 성역,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비를 베푸신 행위, 주님의 변함 없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궁극적인 개척자이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1846년 2월 3일은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참 추운 날이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날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의식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 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은 하루종일 붐볐다.'

"그래서 성전 사업은 새벽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감 영 대관장과 개척자들이 나부를 떠날 때 그토록 간절히 성전 축복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브리감 영은 위대한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을 때, 성전을 짓고 운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이 영원한 축복을 다시 확고히 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의식은 개척자들이 기꺼이 그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고 황량하고 황폐한 서부의 사막으로의 여행길을 견디게 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독자들은 본 대회 특집호에 실려 있는 대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힝클리 대관장의 개회 말씀(4쪽)과 교회 역원 지지(7쪽)와 교회 소식(98쪽)에 나와 있는 교회 행정 조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연차 대회의 비디오테이프는 대회의 실황이 중계 방송되지 않는 지역의 교회 단위 조직에 배부되었다.— **편집인.** □

성도의벗 1997년 7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리드, 조셉 비 윅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스펜서 제이 콘디, 엘 라이오넬 캔드릭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첼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스탭:
관리 편집인 :데비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부장 :매리앤 마틴데일
제작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디자이너 :셰리 룩
제작 부장 :제임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즈 커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담당스탭: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핸슨

등 권: 제37권, 제3호, 제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7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한상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July,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07987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5,400원, 4지역(중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탤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7차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우리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7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9 깨끗하게 씻겼노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11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
13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살핌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
15 "진리에 참됨" *조셉 비 윅스린 장로*
18 우리 앞에 영원이 있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21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테드 이 데이비스* / 1996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22 "감독님, 도와 주세요!"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24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27 거룩한 부름 *몬트 재이 브러프 장로*
29 보증 수표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
31 주님의 평안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
33 감사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
35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신권 모임

37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39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41 신권의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44 그들은 찾아올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47 개종자와 청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50 그들은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53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55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엠 러셀 밸리드 장로*
58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장엄한 개척자 여행
65 "참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68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엘 톰 페리 장로*
70 참고 견디며 들어 올려 짐 *러셀 엠 넬슨 장로*
73 "하나의 작은 돌" *엘레인 엘 잭 자매*
75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78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80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디 해일즈 장로*
83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청녀 대회

84 모든 발자취에서 신앙을 발견함 *보니 디 파킨 자매*
86 인내로 버티며 계속 걸어 가십시오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88 함께 있는 친구 *크리스틴 배너 자매*
89 의로운 선택 포노 *라바타이 자매*
90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 *알렉산드라 해르난데스 자매*
91 현대의 개척자들 *제닛 해일즈 베컴 회장*
93 모두가 개척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97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98 *교회 소식*

색인

1997년 4월 연차 대회 및 청녀 대회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가정 복음 교육 윅스린: 옥스
가족 파우스트: 홀런드
간증 브러프: 헤일즈: 몬슨
감독 옥스: 파우스트: 버튼
감사 테일러: 밸라드: 힝클리: 파킨: 피어스: 몬슨
개심 힝클리: 헤일즈
개척자 힝클리: 윅스린: 파우스트: 홀런드: 헤이트
건물 힝클리
경전 패커: 헤일즈
교회 힝클리: 쿼리: 힝클리
교회 성장 힝클리: 헤이트: 고슬린드
계명 피네가: 쿼리: 헤일즈
교리 패커
금식 헌물 버튼
기도 맥스웰: 홀런드: 브라운
기쁨 피네가: 밸라드: 버튼: 피어스: 몬슨: 밸라드: 쿼리: 힝클리: 파킨: 베컴
대회 윅스린: 아이어링: 밸라드: 힝클리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33쪽
모범 헤일즈
몰몬경 몬슨
미래 힝클리
방문 교육 옥스: 잭
배도 몬슨: 쿼리
복음 윅스린: 몬슨: 힝클리
복지 버튼
봉사 테일러: 파우스트: 버튼
부름 브레트: 파우스트: 잭
부활 브러프: 쿼리: 힝클리
브리감 영 파우스트: 힝클리
비디오 발표 자료
사랑 피네가: 윅스린: 아이어링: 밸라드: 넬슨: 힝클리: 헤일즈
사마리아인 버튼
상호부조회 힝클리: 잭
선교사 브러프: 몬슨
선택 힝클리
성경 몬슨
성신 맥스웰: 시먼즈: 밸라드: 아이어링: 넬슨: 홀런드: 고슬린드: 쿼리: 브라운
성약 피네가: 차일드: 스코트: 윅스린: 파우스트: 넬슨
성전 힝클리: 윅스린: 파우스트: 차일드: 홀런드: 스코트: 힝클리: 베컴: 몬슨
성찬 패커: 윅스린
세계 시먼즈: 몬슨: 스코트: 헤일즈
속죄 패커: 맥스웰: 윅스린: 테일러: 스코트: 홀런드: 몬슨: 힝클리
승영 베컴
시간 스코트
신권 윅스린: 아이어링: 고슬린드: 파우스트: 몬슨: 힝클리: 쿼리: 잭: 헤일즈
시련 맥스웰: 시먼즈: 밸라드: 헤일즈: 넬슨
신앙 힝클리: 맥스웰: 윅스린: 아이어링: 몬슨: 밸라드: 헤일즈: 베컴
십자가에 못 박히심 몬슨
아론 신권 고슬린드: 힝클리
아버지 홀런드
안전 아이어링
어린이 피네가: 홀런드: 브라운
어머니 홀런드
여생 파우스트: 넬슨: 밸라드: 아이어링
영향 고슬린드
예수 그리스도 힝클리: 패커: 맥스웰: 밸라드: 파우스트: 옥스: 아이어링: 브러프: 쿼리: 시먼즈: 헤일즈: 홀런드: 고슬린드: 넬슨: 베컴: 버튼: 헤일즈
예언자 아이어링: 테일러: 고슬린드: 베컴
요셉 스미스 파우스트: 밸라드: 쿼리: 몬슨: 힝클리
우선 순위 밸라드: 넬슨
우정 증진 몬슨: 헤일즈: 힝클리
원리 헤이트: 베컴
유죄 패커
유쾌함 힝클리
유혹 쿼리: 넬슨
의로움 베컴
의사 소통 브라운
이웃 힝클리
잎 넬슨
자립 옥스
자유의지 옥스
전세 스코트
죄 패커: 힝클리: 몬슨: 밸라드
죽음 맥스웰: 파우스트
지지 힝클리: 역원 지지
진로 윅스린
진리 윅스린
청녀 베컴
청지기 직분 윅스린
축복 맥스웰
침례 패커: 몬슨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힝클리
칠십인, 칠십인 정원회 힝클리: 역원 지지
필멸 맥스웰: 아이어링: 스코트
하나님 패커: 맥스웰: 피네가: 윅스린: 아이어링: 파우스트: 차일드: 테일러: 홀런드: 헤이드: 파우스트: 몬슨: 스코트: 잭: 힝클리: 피어스
행복 패커: 파우스트: 힝클리: 스코트
행복의 계획 패커: 맥스웰: 스코트
협의 아이어링
회개 패커: 윅스린: 테일러: 헤일즈

4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가나다 순)

고슬린드, 잭 에이치 39
넬슨, 러셀 엠 70
라바타이, 포노 89
맥스웰, 닐 에이 11
몬슨, 토마스 에스 7, 44, 50, 93
베너, 크리스틴 88
밸라드, 엠 러셀 55
버튼, 에이치 데이비드 75
베컴, 재닛 헤일즈 91
브라운, 엘 에드워드 78
브러프, 몬트 제이 27
스코트, 리차드 지 53
시먼즈, 데니스 이 31
아이어링, 헨리 비 24
옥스, 댈린 에이치 22
윅스린, 조셉 비 15
잭, 엘레인 엘 73
차일드, 셸던 에프 29
파우스트, 제임즈 이 18, 41
파킨, 보니 디 84
패커, 보이드 케이 9
페리, 엘 톰 68
피네가, 페트리샤 피 13
피어스, 버지니아 에이치 86
테일러, 제럴드 엘 33
헤르난데스, 알렉산드라 90
헤이트, 데이비드 비 37
헤일즈, 로버트 디 80
홀런드, 제프리 알 35
힝클리, 고든 비 4, 47, 65, 83

방문 교육

성도의 벗, 1월호와 7월호 대회 특집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없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 후에,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줄 대회 말씀을 그 달의 메시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회 특집호에 실린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어먼드, 존 루크, 마렌 미첨, 그레그 프라이, 타므라 햄블린, 매튜 라이어, 돈 도프, 브라이언트 리빙스톤, 제드 콜

토요일 오전 모임
1997년 4월 5일

우리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원들을 돌보도록
그분의 왕국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는 연차 대회이며 세계 대회입니다. 교회가 조직된지도 167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로부터 1996년 말까지 교회는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회원수는 9백 7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회원이 1천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이 흥미 있어 할 서너 가지 사항을 간략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유서 깊은 태버내클에 모여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올 7월 24일에 새 모임 장소 건축을 위한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수십년 간,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축 장소는 템플 스퀘어 북쪽 맞은 편 구역입니다. 인원 수용 규모는 태버내클의 4배 정도 될 것입니다.

그곳은 연차 대회 장소로 쓰일 것이며, 건축하고 있는 취지에 잘 어울리는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대규모의 연극도 공연할 수 있을만큼 넓은 무대가 갖춰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훌륭한 태버내클을 잘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태버내클 합창단 방송은 계속 여기에서 나가게 되며, 많은 모임들을 여기에서 가질 것입니다. 이 건물은 여타 건물과는 다른, 매우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은 독특하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예닐곱 스테이크가 참여하는 지역 대회 정도 밖에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수도 태버내클의 수용 한계를 넘습니다.

기왕 건축 계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성전이 헌납되며, 올 가을에는 유타 주 버널 성전이 헌납됩니다.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영국의 프레스톤, 콜롬비아의 보고타, 에콰도르의 과야킬,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 브라질의 레시페, 스페인의 마드리드입니다.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에서는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체되긴 했지만, 테네시 주 내쉬빌 성전 계획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비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몬타나의 빌링스와 뉴욕 주의 화이트 플레인즈이며, 멕시코의 몬테레이도 진행 중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장소 물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 멕시코 주의 앨버커키와 브라질의 캄피나스에서는 성전 건축 부지가 구입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성전이 꼭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다른 부지 구입도 고려 중입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성전에 다닐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태버내클의 내부

제 자신이 항상 성전 가까이에 있지만, 이 성전 건축 문제는 여전히 경외스럽고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집이 복천년 내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러한 장소에 성전을 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본 대회에서 해임됩니다. 이 자매님들께서는 위대하고 중요한 업적을 이

루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풍성한 재능을 사심 없이 바쳐서 8년이 넘게 봉사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교회의 여성들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으며, 기타 소속 임원회 및 위원회에도 참여해 오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는 제 말이 끝난 직후에 몬슨 부대관장님께서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들을 발표하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칠십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교회 전체적으로 관할권을 갖고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칠십인 정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제일 정원회는 70세까지 봉사하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정원회에 네 분의 형제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오랫 동안 경륜을 쌓아온 현명하고 원숙한 형제님들로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칠십인 제이 정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봉사합니다. 당연히 그 분들도 총관리 역원입니다.

또 교회에는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충실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교회가 조직된 곳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세계 각지를 다닐 때 바로 그 분들의 도움을 받는데, 뛰어난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및 관리 감독단을 본부 차원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이 일하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부와 지역의 권능 사이에 오랫 동안 지역 대표를 두고 있었으며, 최근부터는 지역 관리 역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 대회에서 칠십인으로 성임되는 이 지역 관리 역원들의 이름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들은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감독을 받는 정원회 회원이 됩니다. 명칭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라고 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부름은 대관장단이 주게 되며, 전체적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및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 회장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봉사합니다.

그 분들은 현재의 직업에서 계속 종사하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교회 봉사 차원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

4월에 눈이 내리는 템플 스퀘어에 있는 손수레 개척자들 기념비, 토레이프 에스 크나투스 작

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및 태평양 제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칠십인 제삼 정원회 회원이 되며, 멕시코, 중미, 남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사 정원회 회원이 되고,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오 정원회 회원이 됩니다.

그 분들은 (가)스테이크 대회 감리, (나)스테이크 부장단 훈련, (다)스테이크 창설이나 재조직, (라)스테이크 부장단 성별 등의 임무를 받을 수 있고, (마)지역 회장단 보좌, (바)지역 대회 준비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거나 지역 회장단이 감리하는 지역 평의회에서 봉사하거나, (사)선교부 순회 방문 및 선교부장 훈련 등의 임무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지명 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칠십인으로 성임됨에 따라, 정원회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관련을 갖는 교회 역원이 됩니다. 이 분들이 함께 모여 정원회 모임을 가질 기회는 한정되겠지만,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이 그 분들과 연락하고 지시하며 보고 같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은 칠십인으로서, 계시를 통해 이야기된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습니다. 경전상 모든 칠십인이 동일한 권능을 갖지만, 제일 정원회와 제이 정원회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으로 불리며, 제삼, 제사, 제오 정원회 회원들은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불립니다.

칠십인 직분에 성임되는 데 조건은 없지만, 칠십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한 정원회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 봉사가 끝나면 그는 소속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활동하게 되며, 대제사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원회 회원이 되어 활동하게 된 이 형제님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분들에게서 긍지를 느낍니다.

이 각 정원회가 발족됨으로써, 우리는 지역 회장단과, 필요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택함 받고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조직을 갖추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원들을 돌보도록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는 즉시, 몬슨 부대관장님이 여러분의 지지를 묻기 위해 총관리 역원과 지역 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굳이 이 절차가 매우 성스럽고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이 훌륭하게 번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더욱 굳건히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위대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60개 이상의 나라의 성도들이 그 수많은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분들의 위대한 사업이며, 이 대업과 왕국도 그분들의 것입니다.

끝으로, 몰몬경에 나오는 야곱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 야곱은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이르노라.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두터운 신앙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며 너희의 사연을 변호하시고 너희를 멸하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야곱서 3:1)

우리가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주님의 영원한 사업을 추진시켜야 할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겸손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여러분께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 제임즈 이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윅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리 제이 코울먼, 존 엠 매드슨, 윌리암 롤프 카, 칼 비 프랫 형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디 올레드, 에란 에이 콜, 리차드 이 쿡, 두앤 비 제라드, 웨인 엠 핸콕, 제이 켄트 졸리,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데일 이 밀러, 린 지 로빈스, 도널드 엘 스타헬리, 리차드 이 털리 1세 형제를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134명의 지역 관리 역원들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형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카 에이치 아구아요, 카를로스 이 아가에로, 홀리오 이 알바라도, 파울로 시 에프 아모림, 아돌포 아발로스, 칼 더블류 베이컨, 로웰 시 바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블레어 에스 베넷, 로버트 케이 빌스, 브루스 비 빙험, 오 브렌트 블랙, 노먼 시 보엠, 해롤드 시 브라운, 도널드 제이 버틀러,

레나 제이 카브레라,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안토니오 카피, 라이몬도 카스텔라니, 휴고 에이 카트란, 빅터 디 케이브, 추젠 치아, 브이 프란시스코 친차이, 제스 엘 크리스턴슨, 케이 에이치 크리스턴슨, 크리스토퍼 엔 추쿠라, 엘 휘트니 클레이튼, 암브로시오 시 콜라도, 고든 지 콩게르, 맥스 더블류 크레이너, 클라우디오 쿠엘라, 카사르 에이 바빌라, 클레토 피 데 올리베이라, 호르게 엘 델 카스틸로, 파울 엘 디엘, 린시 티 딜, 도널드 비 도티, 데일 엘 드랜스필드,

앨비 알 에반스 1세, 엔리끄 알 팔라벨라, 데이비드 더블류 페렐, 롤렌스 알 풀러, 아만도 가오나, 루벤 지 가피즈, 하비 엘 가드너, 대릴 에이치 간, 에두아르도 가바렛, 실비오 게솬트너, 래리 더블류 기본스, 프란시스코 지 기마네스, 크리스토펠 골든 2세, 왈테르 에프 곤잘레스, 파울로 알 그랄, 제임스 이 그리핀, 시 스코트 그로우,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역원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윗줄); 칠십인 회장단 (다음 줄);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 (그다음 셋째줄);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 관리 감독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본부 청녀 회장단,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아래줄)

교회의 대관장단(왼쪽부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제2보좌)

에스테반 구에바라, 마리오 이 구즈만.

도날드 엘 할스트롬, 로날드 티 할베르손, 로널드 제이 해몬드, 존 에이 해리스, 키스 케이 힐빅, 토마스 에이 홀트, 피타 에프 호포아테, 클레이튼 에스 후버, 존 엠 헌츠먼 1세, 에른스트 후쓰, 살로만 자르, 홀리오 에이치 하라밀로, 로이드 더블류 존스.

히토시 카쉬쿠라, 세이찌 가다누마, 김종열, 리차드 케이 클레인, 고원용, 브렌트 에이치 코일, 에두아르도 에이 라마르티네, 제임스 지 라킨, 시안 리앙, 데이비드 라페즈, 제이 윌라드 매리옷 2세, 게리 마쓰다, 존 맥스웰, 더블류 이 배리 메이요, 하이드 엠 메릴, 카사르 에이 에스 밀더, 피 브루스 미첼, 제이 마이클 몰러, 제이 키르크 모이에스, 미첼 브이 마이어스, 칼 이 넬슨.

로드리고 오베소, 제임스 에스 올슨, 홀리오 이 오타이, 글렌 에이 오베르톤, 윌리엄 더블류 팜리, 아델손 데 파울라 페렐라, 볼프강 에이치 파울, 스테인 페데르센, 호르게 에이 페드레로, 이 이스라엘 파레즈, 웨인 에스 피터슨, 알라인 에이 페티온, 스티븐 에이치 폰드, 알 고든 포터.

홀게르 디 라코우, 구스타포 라모스, 유진 에프 이 더블류 레이드, 마이클 티 로빈슨, 알레한드로 엠 로블레스, 세르반도 로하스, 린 에이 로센발, 클라우디오 디 시그노렐리, 호아오 알 시 마르틴스 빌바, 키스 엘 스미스, 알 로이드 스미스, 엘 더블러스 스무트, 이라하 비 소아레스.

수 키옹 탄, 호사 에이 테이제이라 다 실바, 에르나니 텔이제이라,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디 리 토블레르, 후안 우세다, 토마스 발다스, 카를로스 디 바르가스, 호르게 더블류 벤투라, 헥토르 엠 베르두고, 레무스 지 빌라레테, 크레이그 티 빈센트, 브라이언 에이 워틀링, 로버트 에스 우드, 호르게 에프 제발로스, 클라우디오 디 지빅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신 엘레인 엘 잭, 지에꼬 엔 오까자끼,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님을 해임하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회 임원 전원도 해임합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인 보니 디 파킨 자매님에 대한 해임을 제의합니다. 파킨 자매님은 남편과 함께 영국 런던 남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 받으셨습니다.

이 자매님들의 훌륭한 봉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른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에 매리 엘런 우드 스무트 자매님을, 제1보좌에 버지니아 우리 젠슨 자매님을, 제2보좌에 셰리 엘 듀 자매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에 캐롤 앤 버딧 토마스 자매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보조 조직의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하셨습니다. □

깨끗하게 씻겼노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속죄의 실체와 개개인에게 유용한 생활의 가치관을 알게 되었을 때 갖는 위안과 관용심과 고양된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동의 기본이 되는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복음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면, 말로 행동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할 때 표준, 즉 가치관과 연결시켜 보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가치관은 경전과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신앙개조 제3조)

여러분은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만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히 개인적이면서도 유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조차도 속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면서 일상 생활에 매우 실질적인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오십 몇 년 전,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저는 한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폭격기 승무원들은 버지니아 주 랭글리 야전 기지에서 최신예 발명품인 레이더의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해안으로 배치받았다가 태평양 제도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화물 열차로 수송되었습니다. 이 열차에는 밤이면 벽에서 끌어 내릴 수 있는 좁은 침대가 달린 유개 화차도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차는 없었습니다. 대신 임시 취사장이 유개 화차의 더러운 바닥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옅은 색의 하복을 입었습니다. 이 화물 열차가 대피선을 탔기 때문에, 6일 동안 옷을 갈아 입을 수 없었습니다. 텍사스와 아리조나를 지나는데,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연기와 재가 더욱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목욕하거나 군복을 세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저분한 모습을 한 우리 부대원들은 로스앤젤레스로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열차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맨먼저 먹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승무원 가운데 우리 열 명은 돈을 걷어서 최고급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맨처음 어떤 말쑥한 차림의 여성들 뒤에 섰습니다. 제 앞에 있던 기품있는 여성은 뒤돌아 보지 않고도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길 곧 알게 되었씁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저는 땀에 절고 더럽고 재가 뒤범벅이고 쭈글쭈글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겹다는 듯한 목소리로 "오, 정말 지저분한 분들이셔!" 하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봤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우리가 떠났으면 하고 원했던 건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더러워서 불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후에 저는 신중하게 경전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으로 청결하게 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느끼는 마음으로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함이, 정죄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지옥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욱 비참할지니"(몰몬서 9:4)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기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불결하면 그때보다 더욱 창피하고 비참한 기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결한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참조 성구 여덟 개를 찾았습니다.(니파이일서 10:21, 15:34; 앨마서 7:21, 11:37, 40:26; 니파이삼서 27:19; 교리와 성약 94:9; 모세서 6:57 참조) 이 성구들이 더러운 복장이나 지저분한 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항상 청결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우연히 그리피스 공원에 카누를 타러 갔습니다. 이러 저리 카누를 타고 다녔으며, 물론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해안에 안전히 당도해서 햇볕에 옷과 몸을 말렸습니다. 열차로 돌아올 시간쯤, 우리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온전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 샤워를 하거나 깨끗한 옷을 입거나 카누에서 물에 빠지는 것같이 쉬운게 아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온 것은 시험 받기 위해서라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행히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8~9) 저는 깨끗케라는 말에 눈이 갔습니다.

저는 회개란 비누 같이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하면 일이 더 좋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

니다. 그러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잘못은 많지 않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이 거침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혼자 책임도 지지 못할 일을 범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베드로후서 2:7) 분들이 계십니다. 표준을 하찮게 여기고 행동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들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다고 자위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관대하거나 용감한 행동을 한 뒤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난 뒤에 참 기분이 좋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반응은 자연스런 느낌이나 감정처럼 여러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행복은 점잖고 청결한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 앨마는 그의 방종한 아들에게, 그가 범법했으므로 행복의 성질과 반대되는 상태에 있으며,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마서 41:10~11)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상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절망이나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합당치 않은 생활에 빠져 버립니다. 범법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식당에서 당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잘못은 참된 회개를 통해 혼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깨끗하게 씻거나 목욕하지 않은 사람, 또는 깨끗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인간의 타락과, 인생의 목적과, 선악과, 유혹 및 회개와 영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앨마가 그의 회개에 대해 한 말을 읽어보십시오.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앨마서 36:19)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히브리서 8:12, 10:17 참조) 교리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속죄의 권세를 최소한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주께서 마련하신 제반 조건을 다 지킴으로써 더 이상 영적인 불결함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죄의 실체와 개개인에게 유용한 생활의 가치관을 알게 되었을 때 갖는 위안과 관용심과 고양된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속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작용되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도움을 청할 때마다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경전에는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라]"(신앙개조 1:3)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의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개의 조건이 되는 침례 의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빨리 침례 받는게 아닌가 의아해 합니다. 일단 침례를 받으면 깨끗하게 출발하는 것인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회개의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범법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음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여섯 살 때 아버지인 하이람 스미가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조셉은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평원을 횡단했습니다. 그는 열다섯 살 때 하와이 선교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느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거의 벌거벗고 있었고 가난하고 미개하고 비천한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나는 궁핍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어린이 상태로 떨어져서 감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생각하던 그 어린 장로는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바로 현실"과 같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있는 힘껏 빨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마침내 목적지인 훌륭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가가다가 "목욕탕"이라고 하는 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펴보니 깨끗하고 하얀 옷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옷을 입고 대저택의 문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나를 약간 책망하는 듯이 바라보면서 하시는 첫마디가 이러했습니다. '조셉, 너무 늦었구나.' 그러나 나는 자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합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497~498쪽)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복음의 원리와 교리에 대한 지식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행동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예 가운데 속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삶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으로는 저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때 글로 표현하려고 해보았는데, 이 구절들로 맺겠습니다.

옛날에는 "더럽다"고 소리지르면
문둥병자 가까이 있다는 경고였지
"더럽다! 더럽다!" 소리 지르면
모두 겁내고 물러섰지
문둥병자 손 닿으면

자기도 문둥병자 된다고
옛날에는 치료할 길 묘연하니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어
비누도 향료도 약도
병이나 고통 막을 수 없어
연고도 목욕 세정제도
그 병 고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방법 있다고 기록에 있지
이분이 만지면 모두 다 낫는다고
그 끔찍한 고통 없앨 수 있다고
썩은 살이 새롭게 된다고
오래전부터 그분 강림 예언되었네
그분의 탄생 표적 나타나리라 했네
필멸의 어머니 빌어 하나님 아들 태어났나니
세상을 깨끗케 할 권세 가지셨다 했네
그분 열 문둥병자 고치신 날은
그들을 깨끗케 하신 날은
그분의 성역, 그분의 삶의 의미를
잘 보여 주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해도
이 때문에 그분 오신 건 아니었지
죽음과 죄와 수치에서
모든 영혼을 치유하러 오신 거지
주님 말씀하길, 더 큰 기적들은
그의 종들이 하게 되리니
그것은 살아 있는 온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
그저 몇 명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육신의 사망에서 구속된다 해도
그저 들어갈 수는 없는거지
청결케 되지 않으면, 모든 이 생의 죄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려 해야 할 일
우리 혼자 할 수는 없지
율법에 따르면
순결한 분이 속죄해야 한다 하지
자비의 변호가 있기까지는 공의가 지배한다 가르쳐 주셨지
회개하고 침례 받으며
말씀 대로 살면
우리 보고 들은 모든 것
이해할 수만 있대도
"깨끗하게 씻겼노라!" 이 두 낱말보다 더 고귀한 선물 없음을 알게 되리라
(보이드 케이 패커, "깨끗하게 씻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주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구속해 주신다는 것은 이 생에 기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는 행복의 계획과 함께 다른 모든 사실을 능가하며 또한 지배하는 지고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관장단께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말씀드리는 동안 제 머리 덕분에 연단이 더 환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병에 대한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니파이이서 31:19) 오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미 평생을 통해 후히 베푸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늘 사랑으로 돌봐 주는 아내와 가족을 비롯해 총관리 역원들과 부인들, 제 비서, 수많은 교회 회원 및 친구들의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또 매우 사려 깊고 유능한 의사 및 간호사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 분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노력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물에 저는 이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제 자신, 합당하다고 생각진 않지만 감사할 줄은 압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와 영예를 바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을 비롯해 보다 자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밤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는 것이 삶의 본질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축복을 신앙으로 갈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해야"(앨마서 29:3)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는 형태는 가지 가지이며 그 시기 또한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명을 굳이 단축시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수명이 얼마가 되든 게으르거나 일을 덜해서는 안됩니다.(교리와 성약 122:9 참조)

우리보다 훨씬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가는 이, 빨리 가는 이도 있으며, 치유 받는 이도 있고 더 살게 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다양하지만, 면제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극렬히 타는 풀무라거나 불 시험이라는 말을 합니다.(다니엘 3:6~26; 베드로전서 4:12 참조) 그 다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

양하고 불같은 풀무에서 성공적으로 빠져 나오는 이들은 주님의 "흡족"한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이더서 12:27 참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빠져 나온 사람이 또 돌아나와 보겠다고 다른 풀무 앞으로 달려가 줄을 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짧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우리의 선생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련 과정을 단축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구속해 주신다는 것은 이 생에 기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는 행복의 계획과 함께 다른 모든 사실을 능가하며 또한 지배하는 지고의 진리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다른 진리들은 우리가 장엄한 진리들을 알지 못하고서도 "항상 배"울 수 있는 그저 흘러가는 사실에 불과합니다.(디모데후서 3:7 참조)

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심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배우고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의 속죄가 더욱 비이기적이고 더욱 놀랄만하여 더욱 포용력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빌립보서 3:10) 병들거나 외롭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척당할 때, 우리가 온유하기만 하면 작은 고통이라도 영혼 깊숙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과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성품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찬미하고 더욱 닮아가고자 합니다.

앨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슬픔과 병중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아신다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병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체험으로 그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연민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지셨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속죄로 우리가 구원 받고 위안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갖고 재림하실 때 그분을 찬미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그분의 "친절", 곧 "선하심"을 찬미하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결코 타의에 의해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슬프게도 미련한 자들이 육신의 팔에 의지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인간은 참으로 오만하기 그지 없어, 마치 자기가 힘이 매우 세기 때문에 폭포에다 대고 공을 던지면 전혀 젖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튀어 나올 것이라고 허세부리는 투수와도 같습니다! 어리석고 천박하다는 말은 바로 사실 그대로의 상황과 사실 그대로 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힘과 지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야곱서 4:13 참조)

마지막으로, 사랑에 찬 구원의 계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기이하고도 훌륭한 속죄를 하신 우주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잘 거론되지 않는 성신에 대해서도 오늘은 겸손하게 감사드립니다. 성신의 많은 역할에 대해 저는 오늘 그분이 여러 면에서 고귀한 보혜사가 되신 데 대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살핌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십시오.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초등협회 회장으로 봉사하면 할수록 어린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더 커갑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시편 127:3) 어린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부모들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들에게 책임을 주어, 그들의 자녀들을 잘 부양하고, 잘 가꾸며, 입히고, 잘 훈련하고, 잘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거처를 마련하여 자녀들을 보호하며, 질병으로부터 돌보며, 안전과 안락을 위해 옷을 제공하며, 건강과 성장을 위해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1982년], 332쪽)

나는 시편의 저자가 표현한 다음과 같은 감정을 언젠가 갖게 되는 자녀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내 우편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시편 142:4)

오늘 나는 교회의 모든 부모들과 모든 성인 회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두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몇 년 전 내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메추라기 가족을 보고 즐거웠습니다. 나는 아버지 새가 담위에 앉아 망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새는 10마리의 귀여운 아기새들을 함께 돌보느라 바빴는데 아마도 땅에서 먹이를 어떻게 쪼아먹는지 시범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망을 보던 아버지 새가 곧 나를 알아차리고는 경계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새는 아기 새들을 안전하게 담 주변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가까이 가자 그 새는 놀라고 당황하여 아버지 새가 있는 담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는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났습니다.

이 메추라기 가족과의 경험과는 달리, 우리 가족의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당황하고 좌절하는 것을 즐기며 그의 영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는데, 가족이 볼 만한 것입니까? 아이들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어 보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화를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수용할 만한 등급의 영화였습니까?

때때로 사탄의 영향력은 보다 교묘합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문해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내 자녀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자녀들이 영의 속삭임을 깨닫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이 깊게 느낄 만큼 사랑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통계 및 새로운 보고에 의하면, 비극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모든 아이들의 상황은 아닙니다. 나는 몇몇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자녀들의 영혼이 잘 보살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큰 신앙과 헌신을 하는 편부모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부모와 자녀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독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 지도자 및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성인들을 알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따른 축복은 많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 행복한 부모가 되는 기쁨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책임들 중 이처럼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도선 중에서 자녀를 사랑과, 안전과, 신앙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오는 좋은 결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보상이 됩니다."("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4쪽)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거룩한 책임이며,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위해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결혼했거나, 독신이거나, 부모나 자녀이든지 간에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영원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건은 다르고, 기회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는 마지막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즉 영원한 부모와 영생입니다. 어

린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돕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것과 그의 부모 역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복의 계획은 자녀들이 발전하고 그의 가장 큰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발전하도록 돕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위대한 천국 회의에 포함시키시고, 우리가 참여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 평의회를 갖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상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할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행동 규칙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하늘 집으로 인도하는 길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행동 규칙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가르치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 영혼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각 자녀를 더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는 가운데, 나는 남편인 에드와 성전에 참여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상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기회가 내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이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에 가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전이 자주 방문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전 추천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인해 여러분과 자녀에게 위대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성전 추천서를 갖고 있다면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자주 참석하여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더욱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부모들은 힝클리 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지혜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여러분이 받는 영감에 따라 행동하십시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9쪽)

우리가 성약을 지키고,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권고를 좀더 충실히 따름으로써 더 의로워질 때 우리가 자녀들을 의롭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의 인도하심을 매일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십시오. 성신을 통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과, "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공부할 때 영의 속삭임을 듣고 응답하십시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01쪽 참조) 항상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십시오. 사탄의 영향력을 인식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느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느낌이 어디서 옵니까? 신이 되는 준비 과정을 기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왕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 진리를 따름으로써 오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을 돌볼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교회의 청남, 청녀들에게 몇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장차 부모가 되는 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망하십시오. 미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지상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준비와 소망은 구세주께서 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준비를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보상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크 대회에서 우리 예언자는 부모들께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들을 돌봐주는 관계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모이기 전부터 부모였으며, 그분은 자신의 부모로서의 권리나 이들에 대한 관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자녀를 사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십시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그들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고든 비 힝클리, 솔트레이크 유니버시티 제3스테이크 대회, 1996년 11월 3일, *처치 뉴스*, 1997년 3월 1일, 2쪽)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어린이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진리에 참됨"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장 중요한 이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보살피도록 주신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우리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맥스웰 장로님도 머리가 빛나는 분들, 특히 옥스 장로님과 저와 같은 사람들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맥스웰 장로님 하면, 그 분의 지혜와 영감과 왕국에서의 위대한 지도력을 떠올립니다. 오늘 맥스웰 장로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분을 축복해 주셨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연차 대회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영적인 시간입니다. 대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준 율법과 계명의 요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서로 가르치며 선도"(교리와 성약 43:8)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오전부터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영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겸손하게 기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왕국에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세계에서 전례없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왕국이 태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교리와 성약 109:72; 또한 다니엘 2:3~45 참조) 한다는 예언이 그렇게 짜릿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는 많은 의롭고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선한 일들을 볼 때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 분과 맺은 성약에 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걸음"

최근의 한 말씀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초대와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같이 걷자고 권고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르고 진실되고 선한 것을 위해 싸우라고 권고드립니다."(*성도의 벗*, 1996년 9월호, 5쪽) 예언자께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신앙과 근면의 길을 걷는 모범을 몸소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 분의 영감에 찬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올바르고 진실되고 선한 것을 위해 싸우라"는 그 분의 권고에 따르고 있습니까? 힝클리 대관장님은 좋아하는 찬송가를 읊어 주신 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선조들이 품으신 참되신 신앙을 갖고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를 가슴에 품읍시다."(*성도의 벗*, 1996년 9월호, 10쪽)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참"됩니까?

신앙개조 제13조에는 "우리는… 진실… 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회복된 복음의 핵심은 "뭇보배 보다 더 귀[하고], 신이나 사람 원하는 상[이며],… 천지 다 무너지고 또한 멸해도 모든 것 이기고 영원히 영원히 빛나[는 진리]"(*찬송가*, 155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만한 복음은 어떤 노력이라도 해볼만큼 값진 보화입니다.

재능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직업 때문에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참"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니파이이서 31:18)에 머물러야 합니다. 앨마가 그의 아들 코리앤톤에게 "헛되고 어리석은 일로 유혹 당하지 말[라]"(앨마서 39:11)라고 한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안전과 평화[가] 있[습니다.]"(*찬송가*, 191장)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오는 기쁨보다 크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부나 재물도, 어떤 명예나 인정도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주님의 영에 대한 따뜻함과 평안함의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는 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지닌 평화는 참 아름답[습니다.]"(*찬송가*, 7장)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약에 참되지 못하게 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에 참됨"

저는 *참됨*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기본적인 복음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참되다*는 말은 "꾸준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바르다"(*웹스터 사전*, 10판, 참된 참조)라는 말로서, 살아가면서 꼭 키워야 할 모든 미덕입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기만하지 않음"

또한 진리는 어떤 문제의 참된 정도나 한 개인의 진짜 성격에서와 같이 확증하거나 추정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의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마음이나 남이 보지 않는 데서의 행위는 주님의 가르침에 참되지 않는데 남 보기에만 충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냥 의로운 체 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요셉 스미스 2:19)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순종하는 체 하는 겁니까?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 당하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으며, 우리에게 주님이나 다른 이들에게 거짓 행동하지 말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어두운 실제 면은 감춘 채 밝은 체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음을 보시고 외양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사무엘상 16:7 참조)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요한복음 7:24)고 가르치셨으며,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고 그 기만을 "열매[를 살핌으로써]만 알 수 있는 노략질하는 이리"(마태복음 7:15~16)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니파이는 "마음의 뜻을 다하며, 위선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니파이이서 31:13; 또한 야곱서 6:5; 모사이야서 7:33; 니파이삼서 10:6; 교리와 성약 18:27~28 참조)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야고보 1:8)이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마태복음 6:24; 또한 누가복음 16:13; 니파이삼서 13:24 참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현명하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수가 "사탄과 대적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려 한다"(매리온 지 롬니, "평화의 대가", *엔사인*, 1983년 10월호, 6쪽)는 것을 주시하셨습니다.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교리와 성약 64:34) 요구하십니다. 십계명의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애굽기 20:3)고 되어 있으며, 구세주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마태복음 22:37~38; 36~40절 참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의 교만을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만 우리는 정직하게 "주여, 우리 참된 헌신 받으소서"(영문 찬송가, 107장)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기"(교리와 성약 6:6)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용감한 개척자 성도들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큰 육체적 고난을 겪으며 신앙의 길을 길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대업에 진실로 전념하여, 억압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쇠막대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참되었으며", 회복된 복음을 강화시키고 그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성약에 참되라

회복된 복음이 주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성약을 맺는 특권, 곧 성신의 힘으로 성약을 맺는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고 확인 받을 때, 형제들이 신권에 성임될 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영원한 결혼을 통한 새롭고도 불변하는 성약을 맺을 때, 바로 이 모든 거룩한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봉사하고 부지런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 자신이 "착하고 충성된 종"(마태복음 25:21, 23)임을 증거해 보이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약에 참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교리와 성약 14:7)의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걷고 성약에 참된 이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교리와 성약 59:23)을 것입니다.

영원한 청지기 직분

여러분은 각자 어떤 교회 역원도 해임시키지 못하는 영원한 부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신 부름입니다. 이 영원한 부름에서, 여러분은 다른 모든 부름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으며, "주[로부터] 관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금이나 영원토록 요구"(교리와 성약 72:3)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보살피도록 주신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장차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지상에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관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업무 보고는 우리가 "큰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서"(니파이이서 9:22)도록 부름 받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하루는 영원에서는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부활과 최후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고결한 마음은 악을 택함으로써 내어 쫓기고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참되기로 한 사람들은 팔을 활짝 펴고 매우 기뻐하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에 힘입어 의롭게 생활하면 우리는 개끗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자 교회의 지도자인 저희도 여러분이 모두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 위대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

는 모습을 보게 되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여러분은 참됩니까?" 니파이와 똑같은 권고를 드립니다. "공의로운 뜻이 의인들에게 임할 영광의 날, 곧 심판의 날을 맞도록 너희 영육을 준비하여 무서운 공포에 위축되지 않게 하며, 너희의 가증한 죄를 낱낱이 온전하게 기억하지 않게 하라."(니파이이서 9:46)

어떻게 하면 의와 진리의 좁은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강화되고 결의를 다짐으로써 심판의 날을 기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교회에서 합당성에 관한 접견을 받으라고 지시한 근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맺는 성약을 지키도록 가르치시고자 함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자신을 완성시키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성약에 참되기 위해 이 육적인 수습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앨마서 34:33~37 참조) 합당성에 관한 접견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각 아들과 딸에 대한 진실한 염려의 영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러한 접견은 최후의 심판의 예행 연습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접견은 하나의 축복이자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합당하게 권능 받은 종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언동을 지"(모사이야서 4:30)키기 위해 갖고 있는 거룩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주님께 하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둘째, 주님의 교회에서 성찬을 취할 때마다 거룩한 성약을 상기합시다.

셋째, 성전에 갈 때마다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맺는 성약을 상기합시다.

넷째,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는 약속을 기억합시다.(모사이야서 18:8~10 참조)

다섯째, 구세주께서는 아버지께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아셨으며,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청지기 직분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요한복음 4:34)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중재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요한복음 17:4)

우리는 의롭게 생활하게 되면 신권을 받든지, 성전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든지, 청녀 개인 발전 달성에 대해 만족감을 얻든지, 어떤 부름에서건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든지, 어느 경우에나 우리가 합당하고 축복을 계속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낙관적으로 보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러한 세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일들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마지막 접견에 대비하여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고 성품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교리와 성약 38:30) 될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접견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교리와 성약 4:2)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스테이크 부장님과 다른 신권 지도자들을 불러 주신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합당성에 관한 접견, 성찬식, 성전 의식, 기타 교회 모임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길에 머무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건전한 습관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정규적으로 영적인 "점검"을 해보면 인생의 고속도로와 샛길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상하고 사색하는 조용한 시간에, 저는 "나는 참된가?"라고 겸손하게 간단히 자문해 봄으로써 도움을 얻었습니다.

예배나 기도하는 경건한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고 "나는 참된가?"라는 자문을 간단히 해봄으로써 똑같은 도움을 얻으시길 제언합니다.

완전히 정직하게 답해 보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 회개의 과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채찍질 해본다면 그 질문은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진리에 참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걷자는 예언자 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교리와 성약 59:23)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 앞에 영원이 있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도 매일 이겨내야 할 도전입니다. 영적인 힘의 가장 큰 원천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및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하는 책임을 받고 보니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제가 지상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에 관해 말씀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46년 2월 3일의 일리노이 주 나부는 매우 추웠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날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의식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은 하루종일 붐볐다. 나는 또한 형제들에게 마차를 준비하여 떠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군중이 흩어지길 기대하며 성전에서 멀리 걸어갔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주님의 집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군중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열의를 보면서, 그들이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려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계속했다."(*교회 정사* 7:579) 그래서 성전 사업은 새벽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846년 2월 3일 그 날에, 나부 성전 의식에 참여한 네 번째 무리에는 존과 제인 애컬리라는 이름이 첫번째로 올라있었는데 그들은 그날 저녁 나부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나 세상적인 지위를 버리고 겸손히 교회에 새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 사업은 그들이 나부에 있는 집을 떠나 서부로 이주할 때 마지막으로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영 대관장이 성전 축복을 받으려는 성도들의 소망을 들어준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애컬리는 네브라스카 윈터 쿼터스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4000명이 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록키 산 계곡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처치 뉴스*, 1996년 12월 7일자, 2쪽) 윌리암 클레이튼의 고전적인 몰몬 찬송가,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에는 그들의 신앙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 날이 오리니."(*찬송가*, 16장)

솔트레이크 계곡에 첫번째 개척자 부대가 도착한 바로 다음날인 1847년 7월 26일에 성전이 발표 되었습니다. 브리감 영은 성도들이 집도 짓지 못하고, 마차나 땅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이 위대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로 땅을 가르키며,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히버 제이 그랜트의 대회 보고 말씀 인용, 1921년 4월, 211쪽, 또한 윌포드 우드럽, *유타 개척자들*[1880년], 23쪽 참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엄한 건축물은 짓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계곡에 도착한 지 10년도 못되서, 성도들은 엔다우먼트 하우스를 지었는데 거기서 성도들은 성전 의식 몇 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브리감 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쫓겨나온 데다 우리의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엔다우먼트 하우스를 성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해 주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 편[1941년], 394쪽) 그 집은 1855년 5월 5일에 헌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존과 제인 애컬리의 딸인 엘지 앤은 1857년 4월 2일에 남편인 핸리 제이콥 파우스트에게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의식들이 있었고, 솔트레이크 성전은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게 서 있을 이 위대한 건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을 유일한 성전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전이 지어져 주님께 헌납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5쪽)

개척자들이 서부로 오게 된 동기는 박해를 피하는 것 이상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성도들 복된 곳"(*찬송가*, 16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오도록 영적으로 동기를 부여한 것 중의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방해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시현이었습니다.

많은 개척자들이 요셉 스미스 일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회 축복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 있는 동안 받았던 위안과 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은 그의 일상적인 기쁨이었으며, 그 곳에서 많은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 아버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간사에서 벗어나 고독하고도 거룩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하늘의 시현이 그의 마음에 열리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부로 가득 찼습니다. 그 곳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과부와 고아들이 그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교회 정사*, 4:194)

고대 예언자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영생에 대한 시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경배와 거룩한 의식을 위한 특별한 집을 짓

는 관행은 수세기를 걸쳐 인류 역사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성전 사업에 관해 예언적인 시현을 보았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요한계시록 7: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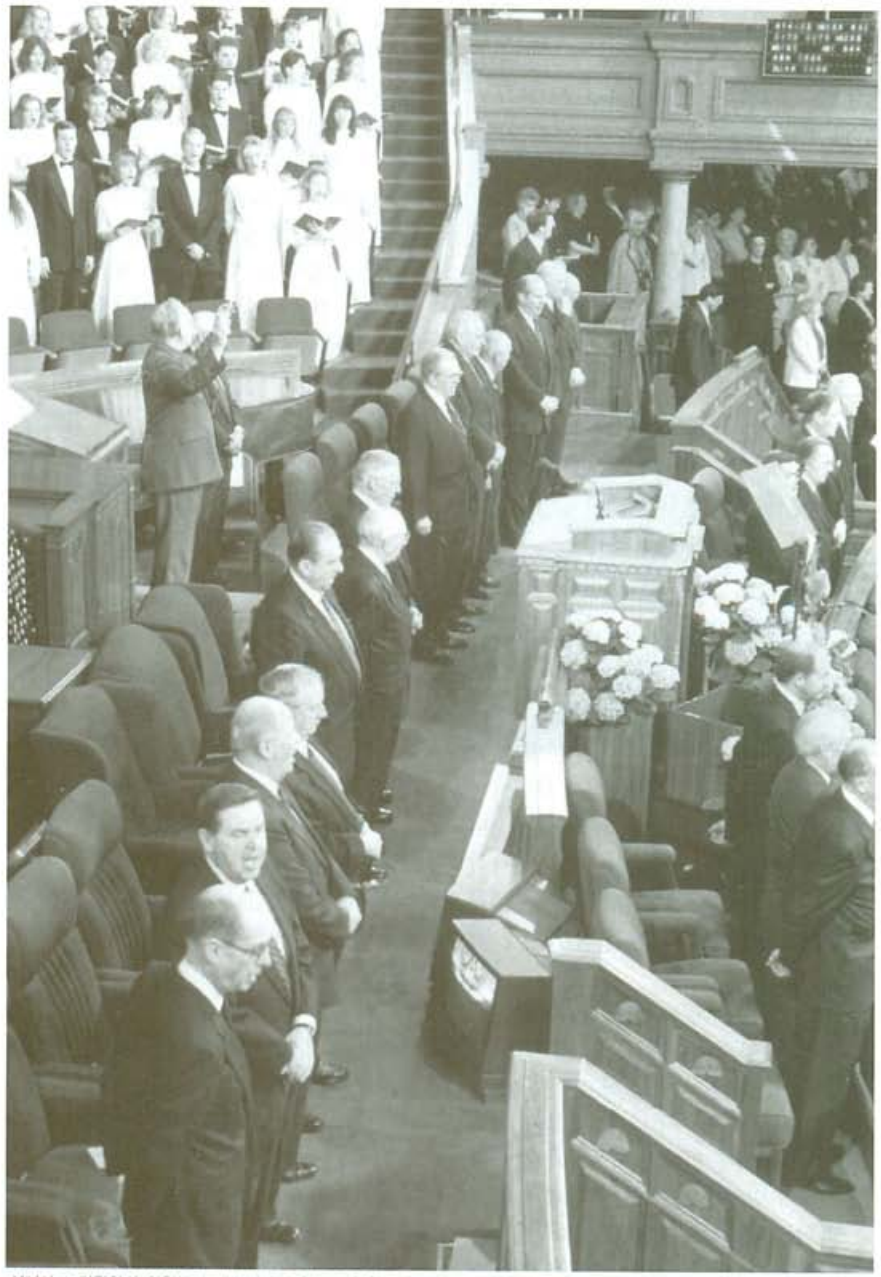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예언자 요셉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 이곳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많이 배우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 아는 것은 어머니의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몇 명의 신권 소유자들만 보시지만, 이 교회는 미국 북부와 남부를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교회는 로키 산맥을 채울 것이며 수많은 말일 성도들이 로키 산맥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로키 산맥에 가서 거기에 가장 높은 이에게 성전들을 지을 것입니다."(윌포드 우드럽, 대회 보고, 1898년 4월 6일, 57쪽)

이 예언적인 말씀은 모든 면에서 충만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브리검 영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위한 지점을 지팡이로 표시한 지 24년이 지나 그들은 유타의 세인트 조지에 독특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6년 만에 그들은 유타 맨타이와 로간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사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49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좀더 헌납될 것이며, 다른 곳이 발표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이 우리는 "가장 높은 이에게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비용과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런 성전을 짓습니까? 왜 계속 더 많은 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의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한 이 생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이 생과 영원에 대한 거룩한 축복은 거룩한 성전 내에서 받게 됩니다. 인류에 대한 구세주의 거룩한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영생은 슬플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대관장단이 회중과 합창단과 함께 일어나 찬송가를 부르고 있음

이 교회의 기본적인 영원한 진리는 그들이 합당하다면, 그 가족이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 부모, 조부모 및 영원한 동반자와 자녀, 그리고 후손이 없는 하늘은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유대는 승인된 신권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해 거룩한 성전 내에서 행해지는 인봉의 권세를 통해 얻게 됩니다.

영원한 가족은 젊은 부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고 서로가,

그리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인봉 후 그들은 그들이 계속 합당하다면, 이 생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세상에서도 그들을 축복해 줄 성약을 맺고 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가족들이 불사 불멸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는 데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 다른 역할을 지닌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영원한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 불리는 경험을 다뤄야만 합니다. 이 생은 불사 불멸에 대한 믿음과 이해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린도전서 15:19) 구세주의 대속과 부활은 불사 불멸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 내에서 권세와 권능을 지닌 사람들이 땅에서 묶인 것을 하늘에 묶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교회 대관장에게 위임되어 왔는데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니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의식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사도행전 10:34)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한 내부에서는 지위, 부, 모양, 인종 및 교육 수준으로 차별 받지 않습니다. 모두 흰옷을 입습니다. 모두 같은 가르침을 받고, 모두 같은 성약 및 약속을 맺고, 그들이 그들에게 요구된 대로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그들은 같은 거룩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모두 창조주 앞에 평등합니다. 자신의 잘못없이 독신인 사람들은 합당하고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가족 관계를 맺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는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축복은 그것을 받기를 합당하게 소망하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사는 동안 이러한 특권을 받지 못한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대리인으로 이런 축복을 받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런 축복을 받아들일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조상을 찾아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상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9쪽)

이러한 거룩한 축복을 받는 기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으로 회복의 위대한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감 영 대관장과 개척자들이 나부를 떠날 때 그토록 간절히 성전 축복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브리감 영은 위대한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을 때, 성전을 짓고 운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이 영원한 축복을 다시 확고히 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의식은 개척자들이 기꺼이 그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고 황량하고 황폐한 서부의 사막으로의 여행길을 견디게 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시대에 수많은 나라에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보다 이 경륜의 시대에 더 많은 성전을 헌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분은 운영중인 49개의 운영 중인 성전 중 24개를 헌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온 세상에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5,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나부 성전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부 성전에서 주어진 영적인 의식의 축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주님의 집에 퍼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 위엄있는 나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던 존과 제인 애컬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이 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이 견뎠지만 그들의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성전 축복은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윈터 쿼터스에서 죽음으로 이별했지만 그들은 신앙과 그들이 1846년 추운 2월 저녁에 받은 축복으로 인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매일의 시련 속에서 개척자들이 인생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 이해를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더 큰 소망과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강도는 다르지만 똑같이 힘듭니다.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도 매일 이겨내야 할 도전입니다. 영적인 힘의 가장 큰 원천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 중 가장 큰 이 축복을 아직도 성전 내에서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데 필요한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에 있는 경험을 다시 누리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슴, 마음, 및 영혼에 영원한 삶에 대한 시현이 다시 펼쳐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토요일 오후 모임
1997년 4월 5일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테드 이 데이비스
교회 감사 위원회

수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교회 감사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역원, 고용원, 본부의 부서 및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와 교회가 가입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일하는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과 인력을 입수하고 확보했습니다.

교회에는 또한 교회의 다른 운영 기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부가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 감사 위원회로부터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 직원은 공인 회계사들과 전공 분야의 자격을 지닌 다른 감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부는 인정된 전문적인 감사 표준에 따라 교회 운영 기구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종무를 관장하는 지역 단위 조직의 헌금과 지출에 대한 감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 위원회는 교회 기금의 헌금과 지출을 관리하며 교회 자산을 보호하는 데 지침이 되는 재정 정책과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또 우리는 1996년 12월 31일 자로 마감된 1년 간 교회 예산, 회계와 보고 체제 및 감사 체제, 그리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1996년도 교회 기금에 대한 지출은 성문화되어 있는 정책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평의회는 계시에 의해 규정된 대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승인된 예산에 대한 집행은 예산 지출 위원회의 지시 하에 예산부를 통해 관리됩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전문인들에 의해 관리되며, 이 전문인들은 총관리 역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일반인에게 인정된 관례에 따라 자체의 회계 및 보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회 감사부나 독립된 회계 회사가 이러한 사업체들을 감사합니다. 데저렛 경영 재단 법인의 이사회는 총관리 역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를 감독합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와 그 외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독립된 회계 회사들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재정, 예산, 기타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우리의 검토와 1996년에 작성된 모든 감사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와 이러한 감사에 대한 회신에 의거하여 교회 감사 위원회는 1996년 12월 31일 자로 마감된 1년 간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모든 기금이, 모든 면에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감사 위원회
테드 이 데이비스, 위원장
도날드 디 샐먼
프랭크 엠 멕코드

1996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6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통계 자료는 본 대회가 있기 전까지 접수된 1996년도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2,296
지방부 수	671
선교부 수	309
와드 및 지부 수	23,528
국가 수	140
지역 수	21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 수	9,694,549
1996년 동안 침례 받은 기록	
상의 8세 자녀	81,017
1996년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 수	321,385

선교사

복음 선교사	52,938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

로웰 디 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원; *로이드 피 조오지*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플로렌스 스미스 프로우스 컬리모어* 자매, 칠십인 정원회 회원이었던 제임즈 에이 컬리모어 장로의 미망인; *데이비드 엠 케네디* 형제, 대관장단의 특별 대표와 미국 재무 장관을 역임함; *테럴 에이치 벨* 형제, 미국 교육 장관을 역임함; *플로렌스 리차즈*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보좌를 역임함. □

"감독님, 도와 주세요!"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감독의 짐은 무겁습니다. 와드 역원과 회원들의 지지 없이는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년 전 프로보의 어느 한 큰 와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식 중에 어떤 작은 남자 아이가 몹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그 세 살짜리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몇 분 동안 노력하다가, 결국 아빠에게 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빠는 예배당 앞쪽 통로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연사와 회중 모두 아이의 소란 때문에 난처해 하는 부모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빠의 인내심은 엄마보다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아빠는 그 아이를 어깨에 짊어지고는 일어서서 뒤의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어깨에 얹힌 채 뒤를 쳐다보면서 아빠가 화가 나서 걷는 것을 눈치 챈 이 작은 아이는 조용해지면서 이제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예배당의 문에 다달았을 때, 이 작은 아이는 연단쪽을 향해 팔을 쭉 뻗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독님, 도와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팔을 뻗어 감독이나 그의 보좌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나 직장 문제에 영감 받은 조언이나 지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나 우리 부름에 대한 의무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다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도를 받기 위해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분들의 모범을 통해 배웁니다. 이 영감 받은 감독과 지부장, 그리고 보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독이나 지부장은 임무가 많습니다. 감독은 아론 신권 회장으로서 와드 내의 청남 청녀 프로그램과 활동을 개인적으로 돌봅니다. 감독과 보좌들이 청소년들을 매년 한 번씩 접견합니다. 이 분들은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전에서 맺게 될 성약을 준비하도록 격려합니다.

관리 대제사로서 감독은 와드 내의 모든 정원회, 보조 조직,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립니다. 와드 직책에 부름을 주는 일은 감독의 지시 아래 이루어집니다.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침례와 같은 의식의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 보좌들의 도움을 받으며, 감독은 성찬식과 와드 내의 모든 반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단은 신권 집행 위원회와 와드 평의회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단은 와드 내의 모든 회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와드의 여건을 잘 아는 이 분들은 와드의 모임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감독단은 또한 안식일에 모임을 집중적으로 갖는 목적을 잘 알고 있는데, 이는 정규 모임 시간을 줄임으로써 안식일에 교회 모임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으로 복음 공부와 봉사할 시간을 더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독단은 와드의 재정도 책임집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받으며, 단위 조직의 예산과 지출, 입금을 관리하고,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독은 도움이 필요한 회원에게 교회 물품과 자금을 사용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결정하는 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을 찾을 책임도 있습니다.

감독은 회원들을 위하여 분별의 권세와 계시의 권리와 안내의 영감을 받는 판사이자 목자입니다. 감독은 합당성에 관한 접견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견을 통해 감독은 성전 참석을 인가하며, 와드 직책에 부름을 주며, 신권 직분에 성임하고, 선교사를 부릅니다. 또한 교회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공식, 비공식 선도 조치를 취하며, 회원들이 선도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조언하고 도와 줍니다

어떤 의무는 위임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감독과 보좌들은 그 분들의 지시 하에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는 집행 서기, 서기, 정원회 회장단 및 그룹 지도자, 보조 조직 회장단, 그리고 역원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기술적으로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의 짐에 짓눌리거나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감독과 지부장들의 훌륭한 업적에 놀랍니다. 제 생애에서 저희 가족은 여러 감독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그 분들과 보좌들을 사랑했으며, 저희의 인생에서 그 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느꼈습니다. 각자 개성은 달랐지만, 모두 주님의 헌신적인 종들이었습니다. 저는 책임의 겉옷으로 그 분들의 모습이 크는 것을 보았고 회원들에 대한 그 분들의 놀라운 봉사를 기뻐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과 감독단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감독에 대해 좀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청소년, 노인, 결혼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인종이나 직장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감독은 없습니다. 주님의 계시와 그 분의 예언자들의 지시 아래, 감독은 성임받고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회원들을 관리하도록 성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감독은 노인이나 젊은이, 결혼한 사람이나 독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활동적이거나 덜 활동적인 사람 모두를 돌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독은 무리를 모아서 성도의 그룹으로 가르침을 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이, 결혼 상태, 집안, 경제적 여건을 초월합니다. 우리 감독들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라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 모두가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그 분의 교회의 초기 회원들에게 그 분의 종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요, 그 분의 종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8 및 36:2 참조) 저는 그 원리가 진실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교회의 회원들은 지도자에게 충성되고 그 분들의 지시를 따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원리는 또한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스러운 권능을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교리와 성약 121:41)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15,000여 명의 감독과 8,000여 명의 지부장이 있습니다. 보좌들을 합하면, 감독단과 지부장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6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목자, 이스라엘의 판사, 사람들의 지도자이자 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하고 사랑 받는 사람들인 이 분들에게 찬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성과 지지로 형제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분들의 부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세 살짜리 어린 아이가 "감독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우리 각자가 "감독님을 도와주세요!"라고 목표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초기 시대 감독과 보좌들, 그리고 회원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지역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나뉜 큰 도시에 있는 어떤 와드나 지부는 그 지역에 수천 또는 수백 만 명이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감독은 주 중에 여행을 해야 하거나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 여행하거나, 주 중에는 가족 및 회원과는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되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물질적인 것이 변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지도자들의 부름의 속성과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동전 하나 받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노동의 대가는 주님께서 따로 준비해 두신 계획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중의 하나는 감독과 보좌들이 부름의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하며 가족으로서의 다른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만, 또한 그의 무리인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도 이렇게 행합니다. 짐은 무겁습니다. 와드 역원과 회원들의 지지 없이는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도울수 있을까요? 감독단의 짐을 덜기 위해서 보조 조직 회장단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회장과 그룹 지도자는 자신들의 부름에서 막중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감독은 부름 책임이 있지 간청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름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가장 평범한 부름은 형제에게는 가정 복음 교사이고 상호 부조회 여성들에게는 방문 교사입니다. 적절하게 행하면, 이러한 부름으로 감독단의 짐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감독의 눈과 귀와 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로서 방문과 관찰을 충실해 행함으로써 감독과 감독단 보좌를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적 면과 영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음에서 가르치는 자립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도움이 필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계 가족과 가까운 친척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감독이 해결하도록 짐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바쁜 감독과 보좌들을 돕는 또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그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주소나 전화 번호, 또는 통상적인 일에 관해서는 감독단의 일원에게 물어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이 꼭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행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립시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을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들도 직장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직장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도자들이 직장에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회원들은 또한 지역 지도자들이 직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회원들에게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교회 직책에 부름을 받은 것이지 회원들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 창고를 운영하도록 부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들도 남편이자 아버지임

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독이나 보좌로는 한동안 봉사하지만, 가족에 대한 영원한 책임에서는 절대 해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가 사려깊이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 성찬식 후에 감독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왜 여섯 시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젊은 감독의 부인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독이 저녁 여섯 시가 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로 나쁜 일인데, 하필이면 이러한 일이 성탄절에 일어났습니다. 감독은 도움을 청하는 회원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성탄절 오후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 회원이 필요한 접견을 조금 미루어 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들은 예는 아주 예외적이긴 해도 많은 감독과 감독들의 부인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제가 참석했던 솔트레이크의 어느 한 와드에서 있었던 좀더 현실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감독단 일원의 부인이 성찬식에서 말씀을 하였는데, 그 자매는 와드 회원들이 월요일 저녁에 집으로 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에서 그 자매와 아이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 형제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지 않는 일은 모든 와드와 지부에서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감독, 지부장, 그리고 보좌들의 직분은 이 교회에서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이러한 직책에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존경하며, 그 분의 영으로 영감을 받고, 이 직분에 필요한 분별의 권세도 받습니다. 이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이 분들에게 좀더 많은 배려를 해줍시다.

저는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지도자들이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회원들과 지도자들을 어디에 있든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고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증인의 법을 통해서, 즉 권능 있는 증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축복된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보호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옹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너희를 자주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응하지 아니하였도다."(니파이 삼서 10: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설명해 주신 후에 똑같은 비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종의 입으로 천사들의 성역으로, 내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로, 번개 소리로, 폭풍우 소리로, 지진과 큰 우박 소리로, 기근과 각종 질병의 소리로, 큰 나팔 소리로, 심판의 소리로, 온 종일 자비의 소리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재물의 소리로 불러서 영원한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려 하였으나 너희는 응하지 아니하였도다."(교리와 성약 43:25)

구세주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에는 한이 없는 듯 합니다. 또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 중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자를 가질 준비가 된 자들에게,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서 권능을 받은 종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안전한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38년 가을, 미주리 북부 지역에서 성도와 주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모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파웨스트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농장에 살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혼즈 밀"이라고 불리는 작은 정착촌의 설립자인 혼 씨에게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곳을 떠나 서부로 오라는 소식을 전했으나, 혼 씨는 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신앙을 키우는 네 가지 고전*,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8년, 90쪽) 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받아 들이는 성도들을 구하도록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교회 정사*, 제5권, 137쪽) 예언자는 그의 권고를 받아 들이고 따랐더라면 혼즈 밀의 무죄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슬픈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어디에서 슬픔과 죄로부터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권고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

다. 그러한 경고들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계속해서 그 경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 대회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의 예언자가 이전의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두 번째의 증인이 되고, 때로는 세 번째의 증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킴볼 대관장님께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벤슨 대관장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셨으며,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그 두 분의 말씀을 모두 인용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고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증인의 법을 통해서, 즉 권능 있는 증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축복된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언자의 권고에서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실 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저 현명한 사람이 좋은 충고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만일 예언자의 권고가 자신이 받아들이기에 편안하고 적절하며, 자신이 바라는 바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충고라고 간주해 버리기나 자신의 입장은 그 권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몰몬경에서 코리호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것처럼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너희들은 너희의 뜻대로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언에 좇아 이 백성들을 다스려, 노예를 속박하듯 짓누르며 저들의 수고로 너희 배를 채우며 저희가 감히 너희를 치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저들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도다."(앨마서 30:27)

코리호어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그릇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논쟁을

벌여온 그릇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를 거부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다른 영향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사랑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며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아 다시 본향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온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고를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미움을 싹트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다른 권세의 영향력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라기 보다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선택하는 영향력에 전념할 수 있는 박탈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예언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한 선택은 훌륭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유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믿는 것 또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더욱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장차 영감 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돕기로 결정한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그가 맨처음 부탁했을 때입니다. 그 후 그가 계속해서 부탁할 때마다 거절한 사람들은 영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의 요구가 더욱 바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영감 받은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거나, 나는 그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를 통해 그 권고를 확신하고 따랐을 때마다 저는 제가 더욱 안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저는 그 길이 저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험한 곳이 평탄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에 준비하신 사랑의 보살핌으로 저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몰몬경의 시작 부분에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리하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가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리하이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권고를 주실 때 일어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리하이의 가족 가운데 신앙을 갖고 분명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위험과 안전의 길 모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이 광야로 간 자들은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스럽게 보였습니다. 리하이는 숨질 때, 다른 모든 예언자들처럼, 가족들에게 안전한 곳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구세주로부터 신권의 열쇠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권고를 줄 수 있는 권세는 그러한 열쇠를 통해 오게 됩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열쇠는 예언자에서부터 보다 적은 수의 회원 그룹, 나아가 가족 및 개인에 이르는 선을 따라 위임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스테이크를 안전한 장소로 만드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부는 저희 이웃에 살고 계시는 감독님께서 소집한 부모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소집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명한 분의 목소리 이상의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경고할 책임에 부합하며 우리에게 실천할 책임을 부여해 주는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신권의 권능선을 존중해서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생명선을 동여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의 큰 위험 속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세주께서는 신권의 열쇠를 주셔서 들을 귀와 순종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토마스 비 마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쉬 회장과 다른 십이사도들이 시험 받을 것을 아시고,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주님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라. 나의 종 요셉을 배반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저와 함께 있나니 나의 손이 저를 지켜 주리라. 또 내가 저에게 준 열쇠는 내가 올 때까지 저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12:15)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분의 다른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권고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힘들지라도 권고를 따르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 나오는 레딕 뉴튼 알레드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데려 오도록 브리감 영이 보낸 구조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치자 구조대의 대장인 그랜트 대장은 손수레 부대를 찾으러 나가면서 스위트워터 강가에 마차 몇 대를 남겨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지고, 날씨마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험악해지자, 스위트워터 강가에 남아 있던 대원들 가운데 두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손수레 부대가 어딘가에서 겨울을 나고 있든지, 아니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레딕 알레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이 보냈으며, 신권 지도자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대의 마차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되돌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바로 솔트레이크에서 오는 마차를 보는 즉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무려 일흔일곱 대의 마차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 마차들이 리틀 마운틴까지 갔을 때 영 대관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마침내 윌리의 손수레 부대가 로키 리지를 힘들게 넘어 왔을 때, 그들을 맞아 준 것은 바로 레딕 알레드와 그의 몇 대의 마차였습니다. (레베카 바톨로뮤와 레오나드 제이 애링턴, *1856년 손수레 부대의 구조*, 유타 주 프로보, 찰스 레드 서부 연구원, 1992년, 29쪽, 33~34쪽 참조)

이 번 대회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 회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레딕 뉴튼 알레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필요해 보이지 않고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우정 증진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이 영적으로 지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친절한 말을 해주고 우정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목숨을 걸고 온 손수레 개척자들을 보고 힘든 상황에서도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그 개척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일레드 형제가 느꼈던 그 거룩한 느낌을 그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증명할 기록은 없지만, 저는 알레드 형제가 기다리는 동안 기도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그는 끝까지 충실하라는 권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에 찬 기도를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하거나 멍상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같은 권고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권고를 거부하지 말고, 깊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래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건네 주면서 그 안에 황금이 들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현명하게도 손에 그대로 들고 있다가 부드럽게 흔들어 볼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권고하신 대로 행할 때마다, 저는 얼마 후 금조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듯이 축복을 받기 시작해 기뻤습니다.

우리는 신권의 열쇠가 지상에 주어진 때에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모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충족시켜 주는 말씀을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겸손한 마음으로 귀기울여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반드시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거룩한 부름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모든 회원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의 거룩한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홍콩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서 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받는 특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밑의 네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매력적인 도시로 갔으며, 그 곳에서 삼년 동안 아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미국 서부 지역의 드넓은 곳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홍콩에서 사는 동안 각자 개인적, 정서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녁 시간을 우리는 검소한 아파트 13층에 있는 식탁에 둘러 앉아 아이들의 학교와 문화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시 여덟 살이던 막내 아이 캐미가 여러 시간 걸려 학교 숙제를 다하고 나더니, "아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홍콩에 오기로 '선택'되었어요?" 저의 첫 반응은 다소 경박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구나."하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딸의 얼굴에는 좀 더 어른 스러운 대답을 원하는 진지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의 신권 부름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니 스스로 그 답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자상하게도 제게 전화를 주셔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친숙한 음성이 떠 올랐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몹시 미흡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삼십대로 여섯 명의 어린 자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나 이제나 선교부장님에게 느끼고 있었던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머리 속에 떠 올랐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 것일까요?

며칠 후, 우리는 렉스 디 피네가 장로님과 만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낀 점을 그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피네가 장로님의 답변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브러프 형제님, 형제님은 예언자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의 거룩한 부름에 관해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지도자들의 부름이 거룩함을 믿었습니다. 저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킴볼 대관장님이 예언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네가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형제님 자신의 부름의 거룩한 본질에 대한 간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형제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디모데의 "거룩한 부름"에 관한 개인적인 간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디모데후서 1:9)

이처럼 강력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디모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디모데후서 1:8)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캐미와 함께 이 성구를 읽다가 저는 딸 아이가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부름을 받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고난"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집과 가족을 떠나 있게 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딸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가 "그렇지만, 아빠,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되'지요" 하고 질문한 것을 보면 저의 목적하는 바가 아직 미치지 못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사 그것은 훨씬 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부름과 책임은 누구에게는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힝클리 대관장님이 저를 칠십인으로 성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러프 형제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형제님에 관한 좋은 점을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교회 부름에 관해서 권리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깃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원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의 거룩한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협회 시절에 교사이셨던 밀드리드 제이콥슨 자매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임을 맡도록 부름 받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에 두 분의 감독이셨던 린 맥키넌 감독님과 로스 잭슨 감독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계시의 절차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해야 하며, 열망이 아니라 계시가 바로 부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약의 다음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마태복음 20:20~21)

저는 캐미에게 세베데의 아들들은 바로 사도 야고보와 요한으로서 후에 베드로와 함께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헌신적인 어머니에게 대답해 주셨는지를 읽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마태복음 20:23)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바, 그들의 중요한 부름에 관해 가르침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한복음 15:16)

저는 캐미에게 우리는 그처럼 힘든 일은 애써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위해 아내와 함께 인도 여행을 하게 되었던 며칠 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홍콩발 인도 뉴델리행 비행기는 새벽 두 시 경에 뉴델리에 도착하는 심야 비행기였습니다. 그처럼 심야의 시간에도 우리를 실어다 주기를 원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운전 기사를 선택한 우리는 40킬로미터나 떨어진 호텔을 향해 떠났습니다. 심야의 시간에도 도로에는 동물과 사람들과 차량들이 가득 붐볐습니다. 교차로를 자나려고 하는 데 택시 엔진이 꺼져 버렸습니다. 저는 운전 기사가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지켜 보며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체념한 것이 분명한 기사는 저를 돌아보더니 그 나름대로는 유창한 영어로 "택시 좀 미세요!"하고 말했습니다. 그 때는 새벽 세 시였고, 저와 아내는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택시가 교차로를 건널 수 있도록 힘껏 밀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제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택시 좀 밀어요" 아내도 차에서 내려 저를 도와 교차로를 빠져 나가기 위해 차를 밀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택시를 밀면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이 부름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구려."

저는 1993년 6월, 당시 베트남 북부 지역과 몽골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부부 선교사님들과 북경에서 가졌던 특별한 모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틀 훈련을 받고 영성을 쌓은 뒤, 우리는 이 친숙한 노래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높은 산 바다나
전쟁터 아닐지 난 모르나"
(*찬송가*[1985년], 164장)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아내는 제게 몸을 숙여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일 수도, '바다'가 될 수도 '전쟁터'가 될 수도 있지요." 주님은 확실히 세상의 이 흥미있는 분야에서 봉사할 훌륭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부부 선교사님들은 이들 나라에 오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봉사의 결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특별한 부름을 위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우리 아이들에게 온 선교사 부름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떨리는 가슴으로 열어 본 적이 각기 네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봉사를 하게 되는 다양한 가능성을 흥분된 마음으로 상상해 보고는 했습니다. 비록 희망 지역을 피력하기는 했지만, "그대는 이제 [어떤] 선교부에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적힌 구절을 보는 순간 가족 모두가 예외없이 훌륭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언자께서 저희 자녀 중 네 명이 기쁘게 응답했던, 거룩한 선택의 절차를 인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귀환 선교사들도 그들의 선교사 부름이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됨과 거룩한 영감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린 캐미의 의문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그 어린 아이가 어렵게 헤쳐 나갔던 그 힘든 저녁의 일이 머리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다른 성구와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요한 복음 15:16) 하실 것이라는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그 약속은 어린 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열다섯 살이 된 캐미가 최근에 잘 아는 어떤 어른에게서 "넌 정말 운이 좋아 어려서 홍콩에서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질문에 대답한 내용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캐미는 저를 똑바로 보더니 그 어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름은 분명히 그처럼 개인적이고 예언적인 계시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보증 수표

셀던 에프 차일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는 정직이 유일한 정책입니다.

저는 유타 북쪽에 있는 조그만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많은 땅을 가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풍족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할 일만 많았던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선하고, 근면하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버지는 다른 직장에 다니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하러 가시기 전에 제가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일의 목록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번은 건초 갈퀴의 작은 부품을 대장간에 갖다 주어 수리하라는 것이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한 푼도 남겨 놓지 않아 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다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 오시면 당연히 부러진 부품이 다 수리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대장간까지 일 마일쯤 걸어 갔던 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대장장이가 부품을 용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일을 다 마치자, 저는 걱정스런 어투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아버지가 나중에 지불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불안해 하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는 내 어깨를 누드리며, "얘야, 걱정마라, 너의 아버지의 말은 보증 수표란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품 수리도 다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은 보증 수표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으기 안심이 되어 몹시 기뻐 집까지 내내 뛰어 왔던 것도 기억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인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으나, 그것은 좋은 것이며 바람직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몇년 후에야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이 보증 수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뢰성이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약속과 성약을 깨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대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예는 몰몬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니파이와 그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 리하이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레이밴에게서 놋쇠판을 가져 오라는 명을 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일단 시도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형들은 광야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니파이는 그들은 꼭 수행하고 완수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광야에 계신 부친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니파이일서 3:15) 그들은 다시 노력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니파이는 "성으로 넘어 들어가 래이밴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니파이일서 4:5)습니다. 그곳에서 니파이는 술취한 레이밴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들려주는 영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레이밴을 치라, 주께서 저를 네 손에 맡기셨음이라… 하나를 쳐없앰이 나라가 뒤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져 멸망되는 일보다 나으리라."(니파이일서 4:12~13) 그러고 나서 그는 레이밴의 옷을 입고 보물고로 가서 놋쇠판을 얻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이 보냄을 받고 행하여야 할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래이밴의 종 조램의 훌륭한 본보기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니파이는 보물고를 떠나면서 조램에게 따라 오라고 했으며, 조램은 니파이가 그의 형들을 불렀을 때에야 그가 래이밴이 아니라 니파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에는 조램이 "떨기 시작하더… 달아나려 했으나"(니파이일서 4:30) 니파이가 그를 붙잡고 그들과 함께 광야로 간다면 자유인이 될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말했다고 씌여 있습니다.(니파이일서 4:33 참조) 조램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니파이는 "조램이 우리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졌으며"(니파이일서 4:37)라고 말했습니다. 조램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맹세는 보증 수표와 같았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낡은 시대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날의 세상에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행합니다.

결심을 하면, 그것을 존중합니다.

부름을 받게 되면, 그것을 완수합니다.

어떤 물건을 빌리면, 그것을 돌려줍니다.

재정적인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을 갚습니다. 동의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 주셨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이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제게 매년 얼마씩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솔트레이크 성전(왼쪽)과 태버내클(오른쪽). 회원들이 태버내클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음

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집을 잃게 되는데도요?' '나는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약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부인은 성약이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남편과 함께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며, 성약과 언약을 지키는 남편을 더 원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6년 10월호, 99쪽)

우리는 누구나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는 정직이 유일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동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존중할 때 하나님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는 물 속에서 성약을 맺습니다.(모사이야서 18:8~10 참조)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 성약을 맺으며, 우리가 그 거룩한 성약을 지킨다면 약속된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성약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시험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약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아 보아 너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노라."(교리와 성약 98:14)

몰몬경에 나오는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감동적인 예입니다. 암몬과 그 형제들은 14년 동안 레이맨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으며 개심하여 주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앨마서 23:5~6 참조) "이는 저들이 온전히 정직하고 매사에 올바르기 때문이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굳건했기 때문이었"(앨마서 27:27)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 보다는 자기들의 생명을 버릴"(앨마서 24:18) 것을 성약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전쟁의 무기를 땅에 묻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성약에 진실되었기 때문에 레이맨의 군사들이 쳐들어 올 때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어기기 보다는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앨마서 24:21 참조)

하나님과 이웃을 대함에 있어 정직과 성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합시다. 조셉 비워스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의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하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내적인 평안이며 또 하나는 죄에 따르는 죄의식과 불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성에 따르는 다른 하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성실성의 가장 큰 보상은 성신이 늘 함께 동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에 충실한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생활 속에서 평안을 찾음* [1995년], 193~194쪽)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맺은 약속과 성약을 존중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 "우리의 말은 보증 수표"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평안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께서 염려하시는 사도들에게 "또다른 보혜사"를 통해 평안이 주어진 것 같이 오늘 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그와 똑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성역을 베푸신 며칠 동안, 주님은 사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끝마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께서 3년 간 성역을 베푸실 때 함께 있었으나,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급속도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신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성역의 끝이 가까왔음을 아신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요한복음 13:33)라고 하시며 떠나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좌절감과 근심이 이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도와주시며 빛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모범과 위안이 없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하신 주님은 이렇게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18, 16~17, 26)

사도인 주님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은 중요한 축복을 덧붙이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경전은 그 약속이 절정의 때에 그의 종들의 삶에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취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을 약속하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은 전쟁, 폭력, 억압, 불공정, 분쟁, 질병 그리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그러한 세상적인 평안을 기대하지 않으셨음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하신 결론적인 말씀에서 분명 해집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6:33)

지상 생활에서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허물어져 버린다 해도, 참된 제자가 된다면 약속된 보혜사가 주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할 때 보혜사, 즉 성신에 의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위안이며 평정함이요 평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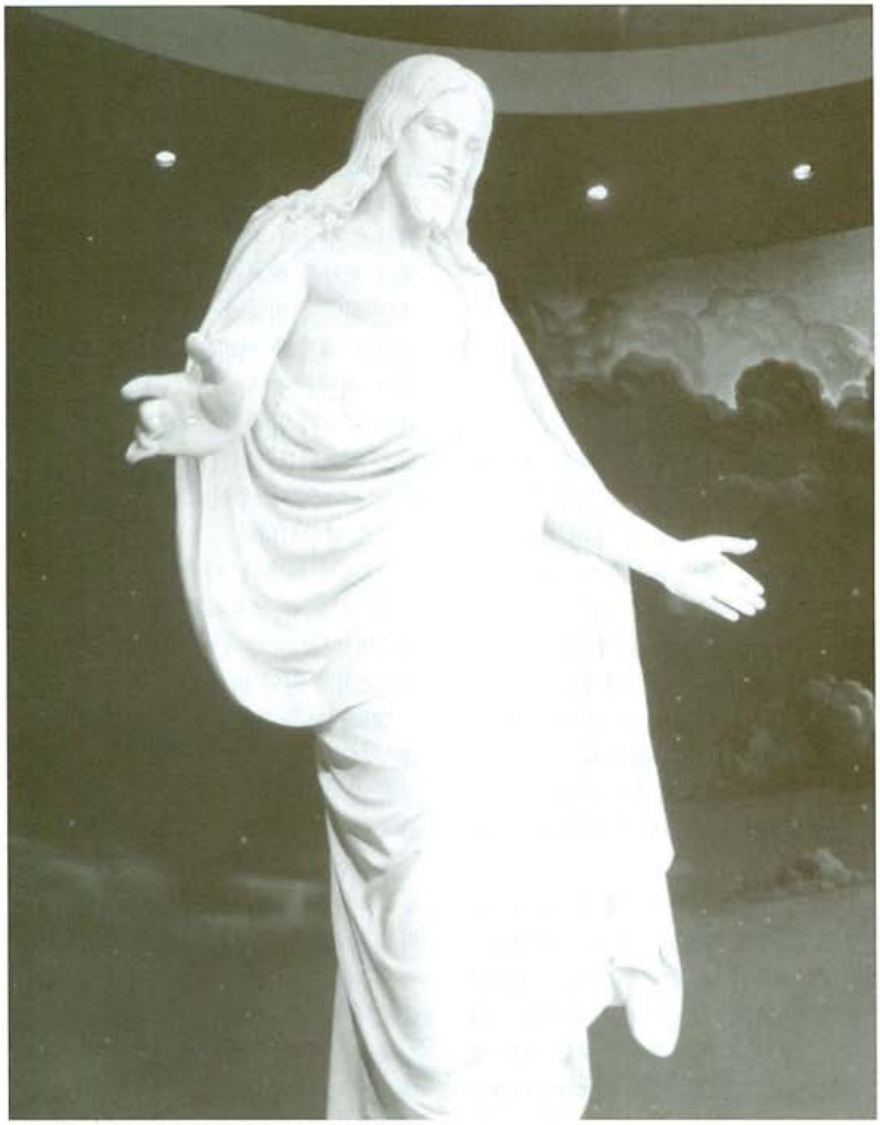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리와 성약 59:23)

힐라맨이 전쟁 중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평화를 일러 주시었"(앨마서 58:11)음을 깨닫고, 올리버 카우드리가 주님께 몰몬경의 참됨에 대해 알게 해 줄 것을 간구했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전해졌음 같이(교리와 성약 6:23), 진지하게 구하는 모든 자들은 그와 똑같은 평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은 세미한 음성으로 전해지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신은 영적인 개체로서, 일반적으로 육감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을 움직임으로 알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감명 및 느낌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소리치거나 큰 손으로 악수를 하며 우리의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속삭입니다. 성령은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주님의 등불", 성도의 벗, 1983년, 10월호, 31쪽)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포기하는 것이 필요



북 방문자 센터에 있는 그리스도 조각상, 베르텔 토르발드슨 작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몇 년 전에, 니파이인 예언자 니파이와 리하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불같은 것으로 둘러 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던 자들은 믿지 않는 무리를 감싼 어둠의 구름 너머로 들리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땅이 흔들리듯 그들에게 회개를 위쳤습니다.

"저들이 이같은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음성은 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보라 다만 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요 작은 속삭임 같았으나, 듣는 자의 심령을 꿰뚫었고, 소리가 지극히 부드러웠음에도 보라 땅이 몹시 요동하여"(힐라맨서 5:30~31) 그들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성신이 하늘로부터 내리사 저들의 마음에 임하시니, 저들은 모두 마치 뜨거운 불로 가득 찬듯하여 놀라운 말들을 지껄이더라. 이 때에 저들에게 음성이 임하여 속삭이듯 즐겁게 이르기를… 평화롭고 다시 평화로울지어다."(힐라맨서 5:45~47)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마음도 꿰뚫을 수 있는 권세에 굴복했습니다.

바울은 영의 열매, 즉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3) 다시 말해서, 영은 무엇이든지 꿰뚫을 수 있습니다. 어떤한 법도 성령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며(교리와 성약 6:15)

•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며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겸손히 걷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며(교리와 성약 11:12)

•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며(교리와 성약 11:3; 모사이야서 4:20)

• 온갖 진리를 알게 해주며(모로나이서 10:5)

• 아버지와 아들을 간증하며(교리와 성약 20:27)

• 모든 것을 아시며(교리와 성약 42:17)

• 증거해 주시며(교리와 성약 100:8)

• 지식을 주시며(교리와 성약 121:26)

• 이끌어 주시며(니파이일서 4:6)

•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시며(니파이일서 17:45)

•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시며(니파이이서 32:8)

• 큰 변화를 갖게 하시며(모사이야서 5:2)

• 확신을 갖게 하시며(앨마서 58:11)

• 평화를 일러 주시고(앨마서 58:11)

•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모로나이서 8:26)

•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요한복음 14:26)

• 자유함을 주시며(고린도전서 3:17)

• 위안을 주시며(요한복음 14:16)

• 구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14)

예수께서 염려하시는 사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평안이 주어진 것 같이 오늘 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그와 똑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래 집단의 압력에 시달리는 십대와 감당하기 힘든 욕정과 감정으로 상처 받은 사람, 외로움과 실망에 가득한 사람, 굶주리고 억압 받고 잊혀진 사람, 공포에 떨며 학대 받은 사람, 거짓말쟁이, 도둑 등, 모든 사람들은 뜻을 굽히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업을 행하면서 그와 같은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유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감 사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하여 기꺼이 하나님으로서의 하늘의 영역을 떠나 아무 힘없는 아기로 지상에 오신 그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저는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하여, 둘째는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니파이는 자신이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부친은 신권을 존중하는 충실한 말일성도이셨으며, 사랑하는 모친은 제가 어렸을 때 여섯 명의 자녀와 함께 부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부친은 자녀가 아홉인 과부와 재혼하여, 저에게는 모두 다섯 명의 형제와 아홉 명의 자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친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고 제게 모범이 되신 두 번째 어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저의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런트가와 테일러 가의 가족들이 결합한지 사십 오 년이 되었고, 우리 부모님도 모두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조부모님과 숙부님, 숙모님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사랑과 지원을 느껴 왔습니다.

저는 또한 사랑하는 헌신적인 아내, 샤론과 여섯 명의 자녀, 두 명의 사위 그리고 다섯 명의 손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편 127:3, 5)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업을 주심과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살아 계신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분은 칠레를 포함한 많은 남미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에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정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16개국에서 대통령과 국가 수반들이 그 곳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거나 회담을 한 지역의 거리마다 장애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순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 등을 번쩍이면서, 그 모임에 오고 가는 귀빈들의 통행을 위해 길을 터 주었습니다. 이처럼 소란스런 와중에,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아무런 나팔 소리도, 특별한 영접 행사도 없었으며, 그 분에게 특권이 베풀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두 대의 밴이 공항을 떠나 산티아고 거리를 겨우 뚫고 나갔는데, 그 중 한 대에는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호텔에서는 정상 회담 방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경호원들이 가득했으나,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투숙하셨습니다.

저는 먼 옛날에 들판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던 몇몇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말구유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임하는 것은 보다 현시적인 많은 사건들에 가려 아주 조용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힝클리 대관장께서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간증하실 때, 사람들은 그 분의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그 분의 말씀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며 성전에서 인봉 받아 영원한 가족을 이룰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회중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계시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왼쪽)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모습

는 간증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 모두 흰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께서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작별에 화답했습니다. 칠레와 온 세상의 많은 성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지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저는 그 분이 저희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 분이 보여 주시는 모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하여—기꺼이 하나님으로서의 하늘의 영역을 떠나 마리아와 요셉이 주막에 묵을 곳이 없었던고로 말구유에서 아무 힘없는 아기로 지상에 오신 그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의 대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소망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모세서 1:39)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 생활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 가시어, 아담으로부터 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몸소 짊어 지셨습니다. 그 곳에서 주님은 "…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만민을 위하여 고난을 겪"(교리와 성약 19:16)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절절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 몇 시간 후, 그 분은 인간의 심판을 받고 십자기에 못박히셨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악한 인간의 욕망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미 대륙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는 흡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니파이삼서 27:16) 회개에 관한 글에서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치루는 이 세상의 전투에서 원수들은 무수한 죄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죄와 사악함의 무리에 둘러싸인 인간은 누구든지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쇠 사용법을 알기만 한다면, 원수라 한들 그들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두 가지 원리는 시험하는 자의 무서운 힘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영혼의 가르침*[1965년], 114쪽)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이사야 1: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 43)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심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주께서 그 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니파이이서 9:41) 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실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음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너희 사이의 변호인으로 아버지께 호소하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르기를 아버지여 당신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소서.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내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나의 이름을 믿는 형제들을 용서하소서."(교리와 성약 45:3~5)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며,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 특별한 절기에, 저는 주님과 주님의 속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모두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그녀는 빵을 두 조각으로 내, 그녀의 아이들에게 주자 아이들은 서둘러 그 빵을 먹었다. '자신이 먹을 빵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았군' 하고 하사관이 푸념했다.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죠' 하고 한 병사가 애기했다.

"'아니야.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하고 하사관이 대답했다."

아이오와, 와이오밍, 네브래스카의 평원을 횡단하여 고난의 길을 지난 개척자의 용기와 신앙을 기리는 한 해를 맞으면서,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기도하고 숨진 아이들을 여러 차례 땅에 묻으면서 개척의 길을 걸었던 어머니들과 같은 현대의 신앙에 찬 어머니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는 자매님들 중에는 어머니가 되기를 갈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자매님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합하여 이 주제에 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니파이 삼서 22:1 참조) 이 단상에서 예언자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듯이, 충실한 사람은 금방 받지는 않는다 해도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구원의 교리*, 제2권, 68쪽 참조) 한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름은 우리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에 관해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특히 아버지 없는 가정이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톰 로우, "아버지 부재: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 클레어몬트 인스티튜트 홈 페이지 사설, 1996년 1월)이 된다고들 하는 때에 아버지들의 중대하고도 긴박한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 없는 가정의 현상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먹고 자기만 하는 하숙생일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회에 신권 메시지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기의 요람을 흔들어 주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의로써 가르치는 어머니의 희생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은 우리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중심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디모데후서 1:5)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디모데후서 3:15)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었던 모든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특히 젊은 어머니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일이란 힘들기도 하고 아무도 잘 알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부인이나 남편 또는 두 사람 모두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흔하며, 남편이 더 높은 경력을 쌓을 때까지 어렵고 가난한 생활을 하기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중고품 가구로 장식되어 있거나, 가구도 없이 사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타이어가 다 달았거나 휘발유가 동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이가 나면서 생기는 괴로움 때문에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밤에 일어나야 하는 일로 인해 젊은 어머니들은 금새 지쳐 버립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시기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그 누구보다 잠을 설치는 수많은 날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보기 보다는 자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혀서 큰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힘든 일은 와드나 스테이크 보조 조직에서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어느 감독이 이렇게 로이스와 유네세처럼 되어 가는 이 젊은 여성들의 모범적인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현명해집시다. 무엇보다도 특히 성격 형성기를 맞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는 가족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어머니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성실하고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며,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족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늘 바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머니로서의 특별한 직분을 기뻐한다면, 하늘이 천사를 내려 보내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이자 모든 방면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한 남편 여러분, 매사에 민감하면서도 현명하게 자매님들을 도와주십시오. "범사가 기

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전도서 3:1)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늘 여러분이 "모든 발자취엔 신앙"을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은 과거나 현재 미래 모두 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없이 혼자 용기있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보다 확고하게 도와드리겠다는 다짐을 더욱 다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어머니가 세 가지 근심 거리를 저에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첫번째는 그 자매님이 말일성도 어머니상에 대해 들을 때마다 자신이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세상이 어린 아이가 말을 하기도 전부터 읽기, 쓰기, 실내 장식, 외국어, 수학, 컴퓨터를 다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중압감을 주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끔 사람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선심 쓰는 체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충고나 칭찬을 받아도 정작 영적이며 감성적인 노력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어머니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도 별로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님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를 막론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직분이 하나님과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부모라는 직분에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두신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날들이 제 자신을 압도할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능력함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뻗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갈구하고 겸손히 간구하기를 속으로 바라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실 수 있으며, 우리도 그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좋아하며, 또 그러한 생각을 통해 희망을 얻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요 영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개인 서한)

그 자매님의 글에서 나타났듯이, 자매님의 눈 언저리에 자리잡은 그림자는 기저귀를 갈거나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 일 때문 만이 아니라, 며칠 밤을 자신의 영혼을 갈구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간구하는 동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결의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저로서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일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영원한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전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복음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하신다면, 충실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성령의 인도와 위안을 간구한다면, 성전에 가서 남녀가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성약을 맺고 약속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여 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관심과 동정심과 용서의 마음을 보여 준다면,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모든 것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자녀나 손자녀의 결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가 곧바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한때 훌륭한 부모가 되길 소망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부모의 갈망이자 모든 부모가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고 똑같은 것을 두려워했던 선조 어머니들처럼, 여러분은 격려를 받고 결국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함께 타락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모든 인류의 어머니, 이브의 장엄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전통과 힐라맨 이천 용사의 어머니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고 양육하게 될 부름을 성임 받은 마리아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해 모든 어머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에 직접 참예하는 데는 육신을 입고 경험을 통해서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이 지상으로 데려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어떤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도움과 지혜와 인

도를 간구하고자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 하늘의 문은 열릴 것이며, 영원한 도움과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약속을 청하십시오. 여러분과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이든 치유할 수 있는 속죄의 향유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덕분에,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일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될 것입니다.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겠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늘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 굳은 결심을 갖고 떠나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샅샅이 쓰시며,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구원의 사업이며,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마음이 들지라도 정직하게 노력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보상 받고 찬사 받게 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직분에 관하여 다음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권세로 너희를 구하시는 이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할진대,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니파이이서 31:19)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굳게 의지하십시오. 영원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니파이이서 31:20)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특히 여러분이 밤낮으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온유하면서도 조금은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 하며 구세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군중을 헤치고 나왔을 때처럼, 구세주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마음 태우는 어머니들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복음 9:22)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시고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권 모임
1997년 4월 5일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위대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업을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맨 먼저 순종하기를 배우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곳에 서서 태버내클의 많은 청중을 바라보며 전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들었던 노래들은 참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내 평안 어디서 찾을수 있나?" (*찬송가*, 129장)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저녁 내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는 이반 스티븐스가 작곡한 감동적인 노래, "산들아, 기뻐 소리치라"를 들었습니다. 우리 개척자들의 도착, 150주년 기념의 해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 그 노래를 처음으로 듣거나 불렸을 때 느꼈을 전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대이동을 마친 후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초와 마차 침대에서의 생활, 노상에서 자며 맨발로 걷고, 초원에 시신을 묻으며 마침내 시온을 건설할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후 그들이 어떻게 노래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들아, 기뻐 소리치라. 너희 골짜기여, 노래하라."

대이동을 하던 대대의 일원이었고 우리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모든 일들을 했으며,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통계된 자료를 보고 전세계에 걸쳐 교회의 이미지와 성장 그리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스테이크, 와드 그리고 회원과 관련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우리는 열정적으로 "산들아, 기뻐 소리치라"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할 방법으로 퍼져 나갑니다.

오늘밤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20세기의 거의 전 기간을 살았습니다. 20세기 중 처음 6년을 빼고 말입니다. 저는 1906년에 태어났으며, 3년 후면 100년을 채우는 한 세기의 끝에 있습니다. 며칠 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는 다가오는 2000년의 헌납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세기 후반부 3년을 남겨 놓고, 제가 20세기의 끝까지 존재한다면, 저는 처음 6년을 빼고는 20세기의 거의 전부를 산 것이 됩니다. 이것은 금세기 100년 중에서 94%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세기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숙고하면서 특별히 거의 한 세기에 걸쳐 보고 느껴 왔던 것들에 관해서 아론 신권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906년에 교회 회원 수가 약 36만 명이었던 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55개의 스테이크와 22개의 선교부가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건데 1,500명의 선교사가 22개의 선교부에, 한 선교부마다 약 70명씩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주님의 사업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일요일 아침에 아버지께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이다호 오클리의 오클리 제1와드의 감독이셨는데, 그 분은 밖으로 나가서 그 때 마침 지나가던 스칸디나비아인 친구인 피터슨 형제님에게 저의 출생을 알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갓난 아들을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어머니께서 보신 아기 중에서 가장 못난이였답니다. 저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주름졌고, 대머리였습니다. 피터슨 형제님은 저를 바라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헤이트 자매님, 이 아이를 보라고 저를 부르셨단 말입니까?" 저의 탄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껏 자동차의 출현과 첫 번째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위스키로 조절하는 라디오에서부터 현대 첨단 전자 제품까지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다호 전력 회사에서 밤에 앉은 채 작은 위스커로 라디오를 들으려 할 때, 상당한 소음이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것도 알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 방송에 채널을 맞춘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근본적인 것들은 그 때 존재했었습니다. 이 지구 상에 살아온 이후로 보아 왔던 모든 것들 중 근본적인 것들을 바꾼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신속하게 통신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비행기 등으로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원리인 근본적인 것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청소년 여러분, 전세계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집사 신권 형제 여러분, 저는 아담스 감독님으로부터 집사로 성임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후임으로 부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사가 되었을 때의 짜릿한 전율과 현재와 같은 신권을 가졌을 때의 감동을 기억합니다. 지상에서 주님의 계획이 진척되고 제가 조직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쉽고도 단순한 언어와 방법으로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두 살 때 신권을 받습니다. 우리는 집사, 교사, 제사의 낮은 신권의 초기 단계를 경험하며 조금씩 배우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쌓아 갑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진 조그만 간증이 자꾸 자라서, 여러분도 그 간증이 커 가는 것을 보고, 그 간증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이 될 준비를 하면서 간증의 고결함을 느낄 것입니다.

성년이 될 준비에 관해 말하자면, 제가 열두 살이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이었고, 어머니께서 제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저는 열두 살 때 성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미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 소년들에게 경전에서 배운대로 처음 알게 된 쉽고도 간결한, 근본적인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것들은 지구 상에 있었고,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비행기 또는 통신의 속도는 발전하였지만 복음의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며,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준비해야 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또 다른 어떠한 것이나 신권 승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복음의 기본 원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밤 대관장단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시길 "홈런을 치십시오."라고 하셨으며, 또 어떤 분은 "장거리 슛을 날리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어떤 모임에서 미식 축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속해 있던 아이다호 오클리 학교의 임원회에서 12벌의 축구부 유니폼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들의 책임, *엔사인*, 1981년 5월호, 42쪽) 당시, 우리는 미식 축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농구를 하곤 했는데, 그것은 운동을 하기가 쉽고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임원회에서는 12벌의 선수복을 마련할 수가 있었고 우리는 한 명의 교체 선수를 포함한 하나의 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코치는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분은 축구 경기를 한 번 관람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클은 어떻게 하며 경기장을 달리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 후 간단한 경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경기를 본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의 첫번째 시합은 전년도 아이다호 주 고교부 우승팀인 아이다호 트윈폴스와의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차에 몸을 싣고 트윈폴스로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니폼을 입고 농구화를 신고서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12명의 우리 선수가 가볍게 몸을 푼 후에 밴드 연주가 시작됐고 상대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밴드부의 숫자가 우리 학교 전교생 수보다 많았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커다란 그린 베이 패커 장신구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39명으로서, 유니폼을 완전하게 갖추어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그 경기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두세 번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공을 아무 곳으로나 넘기기 위해서 찼습니다. 우리 팀이 공을 가지면 곧 뺏겼고, 상대팀이 공을 가졌을 때마다 그들은 득점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참 흥미로운 오후였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피와 상처로 뒤범벅이 된 채 아주 지쳐 있을 때, 상대팀이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하프백을 맡았던 크리포드 리가 그들의 패스 실수로 공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당황하고 있는 사이, 상대 선수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득점을 위해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터치다운 득점을 했습니다.

그 경기는 106대 6으로 끝났습니다. 2~3년 전쯤에 트윈폴스 신문은 그들의 훌륭한 축구팀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오클리와의 경기를 실었는데, 신문에는 점수가 106대 7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 신문의 편집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편집장께, 제 생각에는 그 경기의 상대팀 중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그 경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추가점을 올리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의 어느 누구도 공을 차서 추가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의 점수는 106대 6이고, 편집장께서는 경기 기록의 점수를 정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기회와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과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복음은 참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교사들의 힘을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법대로 수행되는 주님의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기회인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사랑을 표합니다.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착하고 순수하며 청결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기를 배우십시오. 위대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주님의 사업을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맨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은 참되다는 간증과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인도하는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의 예언자요 선견자며 계시자이십니다. 그 분은 교회를 감리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분을 20년 이상 아주 가까이에서 뵈었습니다. 그 분의 능력, 재능 그리고 헌신적인 노고와 그 분이 주님의 사업을 인도하시며 세상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참된 것이며,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전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로 또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사랑과 또한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는 특권을 받은 일반 남성들은 신성한 권세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큰 업적을 이루라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저녁에 저는 잘 기록되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몇 가지를 전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개척자 시대의 용감하고 강인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제사나 교사의 연령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꺼이 큰 희생을 치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고 또한 우리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닌 고귀한 신권이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들도 오늘날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크고 작은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똑같은 신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남들을 포함하여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는 특권을 받은 일반 남성들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신권의 소유자들은 용맹스러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신성한 권세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자주 간증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확증하면서, 저는 주님의 영이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강화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모든 의로운 임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닌 천부적인 능력을 몇 배나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에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힘을 넘어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 드리겠다고 약속한 이야기는 그 시작이 1856년 연차 대회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연차 대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 광장에 있는 옛 태버내클 연단에서서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구조하라는 부름을 발표하셨습니다. 이틀 뒤에, 튼튼한 노새들을 이끌고 약 30명의 충실한 형제들이 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손수레 부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개종한 지 5년도 안되는 댄 존스도 자원하였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윌리 부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초겨울의 폭풍에 갇혀 성도들은 얼어붙고 있었으며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으나, 몇몇 사람에게는 너무 늦은 도움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윌리 부대원 아홉 명이 같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구조 대원 몇몇은 손수레 부대원들을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호송하라는 지명을 받았으나, 나머지 대원들은 동쪽으로 더 가서 마틴 부대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호제트와 헌트 마차 부대와

함께 마틴 손수레 부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와이오밍의 데블스 게이트에서 동쪽으로 약 64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눈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부대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받는 식량 배급은 하루에 밀가루 몇 백 그램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부대원중 삼분의 일만이 겨우 걸을 수 있었으며, 매일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구조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생존자들을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겠다고 현명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마차에 공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손수레 부대원들의 물건의 대부분을 봄이 올 때까지 데블스 게이트에 보관해 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구조대에서 댄 존스 형제와 다른 두 명의 형제가, 마차 부대에서 온 열일곱 명의 젊은이와 함께 뒤에 남아 재산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곳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황량한 와이오밍에서, 그것도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극한의 상황에서 겨울철의 다섯달 동안을 버티도록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희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사람에게 계곡으로 향하는 마차에 합류하라는 권유도 있었으나, 그들 모두는 봉사하라는 부름에 순종하여 뒤에 남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대원들은 데블스 게이트에서 통나무 집을 수리하고, 남아 있는 가축을 죽여 질기고 심줄 많은 고기를 식용으로 저장하며, 그들이 지켜야 할 물건들을 좋은 상태로 재배치하고 정리하느라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들소 몇 마리를 잡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 사냥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그들은 동물 가죽으로 연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가죽에서 털을 벗겨내고는 이것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들은 마차의 끌채를 감싼 가죽과 낡은 실내화 바닥, 그리고 두 달 동안 바닥 깔개로 사용해 온 닳아빠진 들소의 가죽을 먹었습니다. 한 때 댄 존스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말 안장까지도 먹을 각오를 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혹심한 겨울의 2월에 스네이크 인디언 한 명이 찾아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날 밤에 인디언과 두 명의 대원이 기름진 들소 고기를 잔뜩 싣고 야영지로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드디어 5월 초에 구조 마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스 형제가 받은 여러 서신 중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이 보낸 중요한 편지 한 통이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가 없이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부리고 싣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기다리면서, 점차 걱정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존스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침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곧 어떤 이가 와서 누구의 마차에 먼저 짐을 실을 것인가를 물어와 나는 서기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적게 하였다. 그러고는 일을 계속했다. 서기가 지침을 기록하는 대로, 작업 지시가 주어졌으며 우리는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 갔다. 우리는 4일 동안을 이런 방식으로 일했다. 모든 마차에 짐이 실리고, 부대가 조직되어 [계곡을 향해] 출발을 하였다."(*인디언들과의 사십년*, 댄 존스)

열일곱 명의 젊은이들은 마지막 마차를 타고 솔트레이크로 출발하여 그 곳에서 가족들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를 하였습니다. 존스 형제는 도착하고 나서 영 대관장에게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말을 들을지 조금은 걱정스러운 느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존스 형제가 대관장의 서면 지시를 기다려야 했을까요? 모든 것이 밝혀져, 영 대관장이 지침이 담긴 편지를 작성토록 하였으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댄 존스는 주의를 기울여 상세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가 와이오밍에서 받았던 영감과 예언자의 서한에 담긴 지침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일이 그에게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댄 존스와 함께 있었던 젊은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일을 해냈던 것이었습니다.

• 그들은 마차와 손수레로 그리고 대부분을 도보로 평원을 횡단하였습니다.

• 그들은 이동 중에 많은 친구와 친지들이 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목적지에서 약 50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 그들은 식량도 거의 없고 전혀 편치 않은 상황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 그들은 그들의 동료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예언자의 부름을 따랐습니다.

• 그들은 끝까지 고결하게 견디어냈으며 노력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는 특권을 가진 일반 남성들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신성한 권세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영웅들 중, 한 사람으로 모사이야 왕의 위대한 아들 암몬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님을 아노라.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매,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큰 기적들을 행하였으니, 이로써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앨마서 26:12)

아론 신권을 지닌 젊은이들과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분들께, 암몬과 댄 존스가 간증한 대로 우리도 "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인도자로 삼았으며, 성신에 귀기울이며 순종하였고, 그들이 결코 상상치도 못했던 참으로 커다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사항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이 150여 년이 넘게 지켜져 온 젊은이들의 충성심보다 덜해서는 안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종인 예언자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도자로 삼자는 것이 저의 간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행할 기적과 완성해야 할 여정과 성취해야 할 놀라운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축복 받은 훌륭한 세대 중에서도 그분의 택함 받은 아들이라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힘과 영의 인도로써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권의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신권 책임의 핵심입니다. 축복을 하고, 병자를 고치며, 복음의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세가 바로 신권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신권 소유자들이 함께 한, 이 훌륭한 모임에서 말씀을 하는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충성과 충실, 그리고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사업에 대한 참여와 헌신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의 위대한 권세가 우리 안에서 잠자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함께 가장 위대한 대업과 가장 신성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 초월적인 권세를 완전히 행사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신권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세입니다. 세상은 신권에 의해 그리고 신권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권세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한 열쇠를 통해 우리의 삶과 교회 조직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권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위임하신 힘이며 권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신권 책임의 핵심입니다. 축복을 하고, 병자를 고치며, 복음의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세가 바로 신권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의로운 신권 권능이 가장 필요합니다. 신권 권능은 커다란 사랑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사와 교사, 제사, 장로, 대제사, 축복사, 칠십인, 사도 등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해당됩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과 할아버님으로부터 신권으로 돌보는 것의 원리를 처음으로 배웠으나, 수많은 합당한 사람들이 또한 그 원리를 행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 교사 시절에 신권으로 돌보는 것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 말모 출신으로 이민을 오신 앨곳 존손 형제님의 가정 복음 교사 후임 동반자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분의 다정스러운 스웨덴어 강세를 포함해 그 분의 모든 것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주님께서 교사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지닌 참된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사의 의무는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돌보며," (교리와 성약 20:53~55)

존슨 형제님은 사랑하는 스웨덴을 떠나 미국으로 오시느라 커다란 대가를 치루셔야 했습니다. 그 분은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연령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와드의 주일학교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에게 보좌로 일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제 나이 겨우 열일곱 살이었습니다. 그 분은 건축업으로 성공하신 분으로, 2차 대전 후 제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의 첫번째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법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저는 그 분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으며, 제가 한 일에 대해 대금을 요청하면 그 분은 청구 액수보다 더 많이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충실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후임 동반자로 봉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경험담을 들려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의 임무가 항상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 사항이 생길 때마다 돌보고 기꺼이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갈 때마다 연장을 가지고 가는 한 대제사 그룹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컴퓨터나 다른 첨단 장비 같은 것들을 모두 고칠 수 있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명을 받은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살려 도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의 깊은 가정 복음 교사는 가능하다면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합니다. 아론 신권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는 충실한 멜기세덱 신권 선임 동반자와 함께 봉사함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우고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에프 젝스 형제님은 오래 전에 가정 복음 교육 후임 동반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켜 준 경험담을 이렇게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에 다가설 때, 나는 다리가 떨림을 느꼈고 뱃속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나의 동반자가 그 문이 내가 두드릴 문이라고 했을 때 나는 기절할 것만 같았다.

"나는 유타 주 바운티풀 제1와드에 사시는 미망인 라이스 자매님의 아파트를 방문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온 열다섯 살

된 가정 복음 교사였다. 나는 그날 밤 동반자인 돈 개버트 형제님으로부터 병들었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들을 돌보는 일에 관한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다.

"개버트 형제님은 우리에게 지명된 다섯 가정에서 발표할 주제를 주었다. 나는 종이에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하며 준비했지만, 여전히 떨리고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나는 대제사 앞에서 어린 신권 소유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금방 응답이 오지 않았다. 내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려고 할 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뒤에서 가냘프고 나이가 든 자매님이 나타나 문 앞에 선 우리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셨다. 그러나 곧 그 분은 개버트 형제님을 보자 미소를 지으셨다. 그 분은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으며 의자에 앉도록 권유했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개버트 형제님은 나를 보며 마치 '자, 로버트,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야.'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뱃속의 느낌이 악화되었다. 사실 중요하지는 않지만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었다. 막 신권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서 배우는 때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이 쪽지로부터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친절하고 자상하신 자매님의 볼이 눈물로 얼룩진 것을 보았다. 그 분은 신권 소유자들이 집에 온 것에 감사를 표하셨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뜻깊은 어떤 말을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행스럽게도 개버트 형제님이 간증을 한 후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질문하여 나를 도왔다. 그 분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었다. 라이스 자매님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 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 분은 나를 돌아보며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고 부탁하셨다. 당시 나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부탁을 받고 멍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이가 더 많고 더 경험이 있고 신뢰 받는 사람이 있는 데에도 내가 기도를 부탁 받은 것에 놀랐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동의를 한 후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곧 바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신앙이 깊은 자매님을 축복하셔서 특별히 건강과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가정 복음 교육의 방문을 마치는 폐회 기도를 드렸다.

"라이스 자매님의 가정에서 내가 가정 복음 교육을 시작한 이래 25년이 지났으며 그 분은 오래 전에 별세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개버트 형제와 순종심에 가득 찬 대제사와 불안해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아론 신권 교사가 받은 부름이 합당함을 알고 있었던 신앙심 깊은 자매님과 함께 가졌던 경험이 생각난다."("내 첫번째 집", *뉴 이라*, 1989년 5월호, 27쪽)

충실하고 헌신적인 감독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 지침서*에서 감독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다시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들은 무겁고 때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무는 감독님들이 위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무들은 보좌나 가장, 가정 복음 교사나 정원회 지도자들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래 전에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는 "각 사람은 저마다 맡은 바 직분을 지켜 자기의 부르심대로 힘써 일하라."(교리와 성약 84:109)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의 충만한 의미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두에게 자신의 임무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승인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 됩니다.… 각 개인에 속한 책임들을 우리가 직접하려는 그런 도움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역 대표 세미나 말씀, 1973년 4월 4~5일, 말일성도 교회 문서 보관소 소장) 이것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교회의 관리 역원들은 그들이 부름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임무를 빼앗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 여러분, 이 막중한 부름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독과 관리 대제사의 임무를 즐겨 수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분들의 복지에 관하여 지혜와 통찰력, 영감이 있는 영적으로 특별한 엔다우먼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 및 제사 정원회 회장으로서 여러분은 청소년, 곧 청남 청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족과 정원회, 와드와 스테이크를 돌보아야 하는 신권 지도자와 회원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신권 책임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를 관리할 권능을 지닌 분들을 지지하는 특권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께서는 이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훌륭한 기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초기 시절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윌포드 우드럽에게 가족을 보스턴으로 데리고 가서 뉴잉글랜드와 캐나다에서 성도들을 집합시켜 시온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 명의 부대를 대동하고, 그들은 해질 무렵 피츠버그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드럽 형제님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출항하려는 기선으로 갔습니다. 나는 선장을 보았으며 그 기선에 모두 탑승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마치고 나자 곧 영이 내게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기선에 오르지 말라. 성도들도 승선시키지 말라' 물론 나는 선장에게 가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배는 출항하여, 겨우 8 킬로미터 정도 항해하였을 때, 배에 불이 나 300여 명의 탑승객들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 호머 너럼 편[1990년], 294~295쪽) 성도들이 윌포드 우드럽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현명하게도 순종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두 멸망당하였을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저는 주요 신권 지도자들이 주신 지혜와 영감을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동의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그 분들의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대부분의 세월을 영과 조화를 이루어 왔으며, 저는 그렇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그 분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교회 초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를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습니

다. 사실 예언자 요셉은 커틀랜드에서 지도자들에 대해 "나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브리감 영과 히버 시 킴볼이이었습니다."(*교회 정사*, 5:412)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흔들림없는 신앙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브리감 영을 부르셔서 교회 회원들을 서부로 인도하도록 하셨으며 또한 대관장단이 재조직되었을 때 히버 시 킴볼을 브리감 영 대관장의 제1보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감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신앙 깊은 순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지시가 참되다는 간증을 확고히 느낄 수 있도록 영과 더욱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을 지지하면 커다란 안전과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권에는 온 세상에서 의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권 봉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기적인 이익과 욕망을 뒤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권 부름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 양식에 있어서 검소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닌 부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또한 미래에 있을 필요 사항과 일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고 또한 우리를 억누를 수 있는 채무에 속박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장차 불행한 때를 대비하여 얼마간의 돈을 저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우리는 미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부름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남 여러분들은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힘인 이 신권의 권세가 세상에서 권력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수하고 성신을 부여하는 사도들이 지닌 신권의 권세를 사고 싶어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찌어다"(사도행전 8:20)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 그리고 정치적 및 군사적 힘을 지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한 운동 선수들을 눈여겨 보고 칭송합니다. 세상적인 힘은 종종 사정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권의 권세는 신권을 다스리는 의의 원리를 통해서 만이 행사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희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교리와 성약 121:41~42, 45)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교리와 성약 121:40)라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미리엄 웹스터 사전*, 제10판 "선택 받은" 참조)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택함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만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15:16) 이러한 일은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노력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또 우리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교리와 성약 84:39)을 지킬 때에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교리와 성약 84:34) 될 수 있습니다.

휘날리는 봄눈이 금년 대회의 특색이었다.

대관장단 보좌로 봉사하셨던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의 지성이 위대하고 또한 그의 봉사가 크고 그 폭이 클지라도, 사람이 성신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 그가 갖기를 바라시는 만큼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다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저는 제게 왔던 이 기적과 같은 축복, 곧 저의 일부 조상들이 지녔던 축복과 제 아들과 손자, 증손자들이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많이 누리기를 제가 바라는 축복에 대해 평생 동안 주님께 감사해 왔습니다."(대회 보고, 1955년 10월, 88쪽)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분의 충실한 아들들을 위해 지니고 계신 모든 지고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그들은 찾아올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흔들림 없는 신앙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우리 모두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몇 년 전, 미국 내외 여러 곳에서 특이한 영화 하나가 극장가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꿈의 구장*"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젊은이인 주인공이 어릴 적 야구 선수로 활약했던 추억을 잊지 못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옥수수 농장 가운데 많은 땅을 잘라서 정식 규모의 야구장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공사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야구장을 보여 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자신마저 그 꿈이 장차 성공할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던 중에 그는 "일단 야구장을 만들면 그들은 찾아올 것이다."라는 위안의 말을 가슴에 품고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왔습니다. 야구에 대한 많은 추억을 가득 간직한 그 독특한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습니다.

최근에 저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증거하고 침례를 주라는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온 세상으로 떠나도록 부름 받는 이 교회의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복음 선교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서, 보기에도 두렵고 다소 생각하기 조차 힘들 만큼 어려운 임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귓전을 울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가슴을 꿰뚫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거룩한 부름을 수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1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작년은 유타 주가 주로 승격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다른 나라의 많은 대사들이 주청사와 교회 관리 행정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도 돌아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교실에도 들렀으며, 각 임지로 떠나게 되는 선교사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보이는 노련한 언어 실력과 신앙과 사랑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교사 각자에게서 목적 의식과 준비하여 봉사하겠다는 결의와 즐거운 마음을 눈여겨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교사로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가르침과 간증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회원 각자가 구도자들을 개종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바꾸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야 말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전세계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앨마서 4장 13절에는 그와 같은 기적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들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저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앨마서 5:13)

앨마가 말한 침례 성약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모사이야서 18:8~10)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교사의 메시지에 응하는 사람들은 전에 교회에 대하여 들어 본 사람들입니다. 태버내클 합창단의 공연을 들었든지, 많은 여행을 하시는 힝클리 대관장님의 많은 기자 회견 내용을 듣거나 읽었든지, 아니면 친구인 교회 회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든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원으로서 최상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은 복음의 가르침과 일치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목소리는 진실을 나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도자와의 우정 증진은 침례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개종하는 사

람에게는 선교사의 가르침에 두 번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심적인 변화를 경험한 증인은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동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토론토나 온타리오, 퀘벡 등의 도시에서는 선교사를 도와 구도자를 정답게 맞아 주거나 다른 회원들을 소개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 충분했습니다. 우정 증진을 하고 재활동화시키는 일은 우리 말일 성도들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구도자들에게 부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흥미와 안정과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제이콥 디야거 형제님이 토론토에서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닐 당시 받았던 부름처럼, 다소 단순한 부름이어도 좋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중역으로 있었지만, 찬송가 책을 제자리에 꽂아 놓는 일을 하는 것이 그가 교회에서 맨 처음 받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 첫번째 부름을 상기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매주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송가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야거 장로님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칠십인 제1정원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비록 총관리 역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많았지만, 그는 결코 첫번째 교회 부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선교부장 시절에 매주 모든 선교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밀튼에서 봉사하던 젊은 장로가 보낸 편지를 읽고 매우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사랑스러운 가족, 즉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그 메시지가 참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는 자신들이 침례를 받게 되면 멀리 캐나다 서부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서 자신들과 의절하려 할지 모른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집어 들더니 밴쿠버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빠른 속도로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내용은 대개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미니,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과 저는 위대한 진리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토론을 공부했으며, 돌아오는 토요일 밤에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들처럼 선교사들을 집에 초대하여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눈물로 편지를 봉한 뒤, 우표를 부쳐 밴쿠버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친정 부모가 밴쿠버에서 편지를 받던 바로 그 날, 해밀튼의 이 부부는 그녀의 친정 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보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음주에 침례를 받기로 날짜까지 정했단다. 너희들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니, 언젠가는 너희도 배워 보기를 기도하련다."

해밀튼의 이 부부가 아내의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모님께 전화하여, 서로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비록 전화상이긴 하지만, 그들은 두 가족이 한꺼번에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오랫동안 포옹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십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격만 갖추면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이루실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인 로마에서 독특하면서 애정이 깃든 우정 증진 활동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저희 자매와 함께 그 곳의 한 지방부 대회에서 5백 명이 넘는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감리자는 멋진 이탈리아 분인 레오폴도 라체르 형제님이었습니다. 그 분의 형제가 독일의 자동차 공장에 파견 근무를 가 있었는데, 선교사 두 명이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레오폴도 라체르 형제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오폴도는 그 복음을 받아 들였으며, 후에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의 선교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모임 동안, 저는 회중 가운데 하얀 카네이션을 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레오폴도 라체르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입니다. 저희는 지난 지방부 대회 이후에 침례 받은 회원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과 특별히 우정 증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는 회원 및 선교사들이 그 새로운 회원들과 포옹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손님도,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이었습니다.

그밖에 어떤 이유로든 하늘로 향하는 길에서 떨어져 나와 몇 달 동안 활동이 저조해진 사람들도 새로운 교회 개종자들입니다. 아마 그 분들은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분들일 것입니다. 친구들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분들이 사는 집을 효율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방문하면, 그 활동이 저조해진 분들은 맨처음 선교사들이 자신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영광스러운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활동화됨으로써 갖게 되는 변화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간증을 가진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모든 사람을 보살

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과 청녀 교사들은 선악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에 서 있으며, 바로 이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가 누구입니까?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에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고 진실로 보살펴 주었던 분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소중한 청소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그 둘 사이에는 그 청소년을 죄의 유혹에서 막아 주고 그가 꾸준히 하늘로 하늘로 향하는 길, 곧 영생의 길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신의 유대 관계가 커갈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기나 다른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노력과 간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우정 증진을 하고 그들을 재활동화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하신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두 곳의 스테이크 대회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개척자들이 불렀던 찬송가,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찬송가, 161장)의 가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몇년 전 솔트레이크시티의 밀크리크 스테이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백 명이 넘는 수련 장로들이 그 전 해에 장로로 성임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클렉 부장님께 그의 성공 비결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 분은 너무나 겸손해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클렉 부장님이 문제를 인식하고 난 뒤, 각 수련 장로를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부름과 임무를 주었다고 그 분의 보좌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명을 하면서 클렉 부장은 주님의 성전과 그 곳에서 강조되는 구원의 의식과 성약에 대해 언급했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의 집에 데리고 가, 영원한 가족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수련 장로는 그렇게 소망한다고 대답했으며, 자연스럽게 재활동화 과정이 이루어졌고, 아울러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오래 전, 유타 주 프라이스의 북 카본 스테이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86명의 수련 장로가 1년 만에 활동화되어 아내와 함께 맨타이 성전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실 브로드벤트 스테이크 부장님에게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습니까, 부장님?"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분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보좌인 저드 부장님이 하셨지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드 부장은 덩치가 크고 얼굴에 건강미가 넘치는 웰쉬 석탄 광부였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저드 부장님, 어떻게 해서 일년 만에 86명의 형제님들을 활동화시킬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그 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분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제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한 분이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관장님께서 다른 스테이크 부장님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실 테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활동화 부문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스테이크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분은 웃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답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저와 한 가지 거래를 하시지요. 만일 저에게 연차 대회 입장권 두 장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86명의 형제들을 재활동화시켰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건에 이자가 붙어서 그로부터 10년 동안 연차 대회 때마다 입장권 두 장을 계속 갚아야 되리란건 선혀 몰랐습니다.

밀크리크와 북 카본 스테이크, 이 두 곳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다른 스테이크들에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원리가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1. 재활동화 기회는 와드 차원에서 마련한다.

2. 와드의 감독이 참여한다.

3. 합당하고 영성이 깊은 교사들이 참여한다.

4. 각 개인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구도자나 새로운 개종자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일을 수행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저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제사 가운데 한 명이 신권 모임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문에게 정원회를 맡기고 빠져 나와 리차드의 집으로 갔습니다. 리차드는 웨스트 템플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의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리차드를 찾아서 그 수리점으로 차를 몰고 가서 사방을 둘러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공장 옆에 있는 기름 구덩이를 자세히 보라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 두 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리차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 찾으셨군요, 감독님! 올라갈께요." 그후 그는 신권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근처 스테이크로 이사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저는 리차드가 멕시코로 선교 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은 그의 송별 간증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리차드는 답사를 하며, 자신이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돌리겐 된 것은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교회가 아니라, 바로 깊고 어두컴컴한 기름 구덩이 속에서 올려다 보았다가 정원회 회장님이 뻗은 손을 발견했을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리차드는 저와 가깝게 지내면서 감독으로서의 부름을 비롯해 그의 간증과 가족과 교회에서의 충실한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흔들림 없는 신앙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꿈의 구장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짓기만 하면 그들이 올 것입니다. 이 말이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개종자와 청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개종자 모두는 소중합니다. 개종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개종자 모두를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행해진 모든 말씀을 동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듣고 적어 놓았기를 바랍니다.

몬슨 부대관장께서 개종자를 유지시키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분의 말씀에 공감하며 이와 똑같은 주제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하여 교회 회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남녀 성인 및 어린이를 포함하여 321,385명이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 한 해 동안에 새로운 시온의 스테이크 100개를 조직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 해에 100개의 새로운 스테이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와 같은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어야 하는 시급하고도 긴급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오랜 친구와 단체들을 떠나 색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요구까지 하는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서 6:4)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설명을 위해 저는 저의 실패 경험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실패를 한 적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3년 전, 영국 제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동반자와 함께 한 젊은이를 가르쳐 침례를 주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학구적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 청년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개종자에서 회원으로 가는 큰 변화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해임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해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지부에서 작은 책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봉사하던 조직의 회장은 좋게 표현해서 사랑이 부족하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지른 저의 친구를 다소 따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날 밤 그 청년은 그 역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심하여 그 전세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말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돌아가지 않겠어."

그는 점차 비활동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그는 영국군에서 복무하였습니다. 그의 첫번째 부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한 여성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이 점도 그의 믿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 저는 그를 찾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그의 회원 기록에는 현재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으며 오랫 동안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복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갔을 때, 저는 다시 그의 소재를 수소문했습니다. 제가 떠나기로 한 날 그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철 역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비행기를 타야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지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제가 서로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결코 다시 그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에게 편지를 써왔는데, 그 편지들이 격려와 자극이 되어 그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지만 교회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늙어갔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 스위스로 이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스위스에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기 위해 가던 길을 바꿨습니다. 그 친구 부부와 저의 부부 네 사람이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밋진 시간을 가졌으나, 신앙의 불꽃이 오래 전에 꺼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불을 다시 지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그에게 책과 잡지, 태버내클 합창단의 음반 및 다른 물건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 전에 숨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소식을 편지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그 분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뺨을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 지쳤을 때 제가 그 곳에 있어 용기를 북돋아 주었더라면, 그가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파하였던 상처를 제가 감싸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위안이 되지만, 한편으로 제가 실패하였기에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개종자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을 계속 활동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곧 교회의 도처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형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부탁드리고 간청합니다. 개종자 모두는 소중합니다. 개종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개종자 모두를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오래 전에 모로나이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와 교회 회원 앞에서 저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음을 증거하지 않고서 침례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저를 끝까지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고서 침례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모로나이서 6:2~3)

저는 이 개종자들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으며 그분의 실재하심을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으며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로나이는 침례 받은 후의 개종자들에 관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성신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나니,"(모로나이서 6:4)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개종자들은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그들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가정 방문 교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감독단과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와 청남 청녀, 심지어는 초등협회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에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열다섯 살 아니면 열여섯 살로 보이는 소년이 회중 앞에 서서 침례 받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뒤 교사 정원회 소년들이 한 명씩 마이크 앞으로 나와 저마다 그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는,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정원회 소년들이 그와 함께 하고 그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청남들이 친구에게 감사와 격려가 담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침례 받은 소년을 포함하여 그 소년들 모두가 선교사업을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관장님은 현재 교회의 사업을 관장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은 이 복음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줍니다. 또 그들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관점을 줍니다. 사물에 대한 시각을 고결하고 거룩하게 해줍니다.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사업을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께서는 아흔아홉을 두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는 사실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하나가 밖에서 어둔 어느 그늘 아래 있다면, 그것이 아흔아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누가복음 15:3~7 참조)

사실 오늘 저녁에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의 젊은 친구이자 동료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이 편지를 널리 인용하였었는데 이제 예비 선교사인 여러분께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울을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늙고 쇠약한 교사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신뢰하고 대단히 사랑하는 젊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 보다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디모데전서 4:10)

바울은 핍박 받고 쫓겨났으며, 미움과 경멸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온 인류의 구속주에 대한 간증을 두려움 없이 전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이서 25:26)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와 사랑과 영과 신앙과 정결한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의 연소함을 지나쳐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욕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해서도 안되며, 불결한 생각과

말, 행동을 해서도 안되며, 오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디모데전서 4:14)

누가 장로의 회입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집사, 교사, 제사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합당한 권능을 지닌 사람에 의하여 성임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아버지나 감독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값지고 소중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위대하고 훌륭한 것들에 대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이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계속 적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디모데전서 4:16)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들과 또한 여러분 자신까지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디모데전서 5:22)

참으로 간단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생각과 불결한 언어에 이르게 하는 텔레비전 쇼를 멀리 하십시오. 악한 생각으로 인도하는 비디오를 멀리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해가 될 뿐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글과 그림이 있는 책과 잡지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십시오.

바울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디모데전서 6:10)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돈에 대한 사랑과 돈이 살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며, 우리를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인도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것은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바울의 위대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디모데후서 1:7~8)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또 조롱당하지 않을지, 비난 받지 않을지에 대해서 두려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상기시켜 드리건대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앨마서 41:10) 악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권세와 사랑과 달콤한 단순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상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디모데후서 1:8)

집사, 교사, 제사로서 거룩한 신권에 성임 받은 우리는 굳게 서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5)

만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도록 요청 받는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의 젊은 친구에게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바울이 당부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디모데후서 2:16)

그는 가치 없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악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디모데후서 2:22)

갈라드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은 열 명의 힘과 같다.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알프레드, 로드 테니슨, *갈라드 경*, 1842)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리십시오. 마약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반드시 파멸시킵니다. 끔찍한 질병을 피하듯 그것들을 피하십시오. 실제로 그것들이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말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정직하십시오. 부정직은 부패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피울 수도 없습니다. 입담배를 씹어서도 안됩니다.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혹의 손짓을 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커다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격렬한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더 큰 기회를 맞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앞에 놓인 큰 기회의 세계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술을 닦고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직업 학교나 실업 학교로 가십시오.

이제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커다란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위해 해주지 못할 일

을 선교 사업이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닦게 될 것입니다. 지도력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증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통해 주님에 대해 증거하고 간증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아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강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담대하게 설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서 여러분 곧 사랑스럽고 어린 동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충실하고 참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사업에서 우리를 대신할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분들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감독님과 보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분들은 여러분이 가야할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하십시오 (앨마서 37:47)

여러분은 주님의 이 사업에서 위대한 시기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떤 세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기회를 가진 적이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행복을 가져다 줄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하십시오. 곧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선택한 기술이나 학문 분야의 교육과 주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칠 선교 사업, 여러분의 생활방식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명랑한 동반자와 주님의 집에서 행할 미래의 결혼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사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할 위대한 사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저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아멘. □

일요일 오전 모임
1997년 4월 6일

그들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궁극적인 개척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앞서 가셔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1997년 올해는 브리감 영의 영감 받은 지도하에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곳이다. 계속 나아가자."(윌포드 우드럽, *유타 개척자들* [1880년], 23쪽)라고 선포한 지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본 연차 대회에서 이 획기적인 행사에 관하여 많은 것이 이야기될 것이며 주님이 보여 주신 큰 관심과 인도에 대해 감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에 저는 그 힘든 여정보다 앞서 갔던 "다른 개척자들"에 관하여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사전이 내리는 개척자의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개척자란 앞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을 보이는 사람"(*옥스포드 영영 사전*, "개척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뒤로 돌려 다른 곳으로 가 개척자라는 높은 표준에 맞는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고 애굽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운 모세는 말과 행동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계명을 준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십계명이 기록된 석판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때에도 구속력이 있었으며 지금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신뢰했던 추종자들의 일부가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끊임없는 좌절을 견디어 냈습니다. 비록 모세는 이들의 행위에 실망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었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인도해 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개척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척자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또 다른 사람으로 룻을 들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백성과 친족과 자신의 나라를 버렸습니다. 이방인이자 모압 개종자였던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 그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룻의 이름을 담은 성서에는 룻의 결심과 용기의 정신을 반영해 주는 시적인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

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기 1:16~17) 그렇습니다. 고결한 룻은 개척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에스더, 엘리사벳 같은 충실한 여자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등한시해서도 안되지만 이후 시기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및 다른 사람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의 의복은 단순했으며, 그의 삶은 매우 질박하고 엄격하였으며,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신앙, 회개, 침수에 의한 침례, 그리고 요한이 소유한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분에 의한 성신의 안수가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요한복음 3:28)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누가복음 3:16)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단 강은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처음에 요한은 주님에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태복음 3:14) 그러자 이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5~17)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한복음 1:29)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태복음 11:11) 다른 수많은 개척자들처럼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요한은 순교자의 왕관을 썼습니다.

영과 행동에서 개척자였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 각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기 제자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신성한 부름에 응하여 자신의 그물을 놓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에 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라고 한 간증에 존경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기록된 십이사도 중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잔혹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27)라고 하시고 마리아에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한복음 19:26)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앞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았으며 주님이 가르쳐 준 길을 따르지도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십이사도 대다수는 죽임을 당하였고 진리가 거절당했습니다. 계몽의 밝은 햇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의 긴 그림자가 지구를 가리웠습니다.

수세기 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이사야 60:2) 아모스는 땅의 기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아모스 8:11) 역사의 암흑 시대는 결코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때가 되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정직한 사람들이 기준점을 세워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개혁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습니다. 박해는 가혹했으며 개인적인 희생은 엄청났습니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찾기만 하면 온 인류를 예수가 가르친 진리로 되돌이킬 수 있을 것으로 느꼈던 잃어버린 기준점을 찾기 위해 절망적으로 눈보라치는 광야의 길을 따라간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존 허스, 쯔빙글리, 녹스, 칼빈 그리고 틴대일, 이 모두는 개혁의 시기에 개척자였습니다. 틴대일이 자신의 비평가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의미심장합니다. "쟁기질하는 시골 소년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경전을 더 많이 알게 하겠소."(로저 힐러스, "책의 역사", *워싱턴 포스트*, 1996년 4월 10일자 참조)

위대한 개혁가들의 가르침과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영웅적이었으며 그들의 공헌은 많았고 그들의 희생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개혁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그들의 희생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투쟁은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에 사려 깊게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구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읽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으니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렸던 회복이 마침내 왔습니다. 이제 회복 당시 그 곳에 있었던 증인이자 예언자가 된 시골 소년, 즉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상기해 봄으로써 세계의 역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검토해 봅시다.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 주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요셉 스미스서 2:11)

"마침내 나는 암흑과 혼돈 속에 머무르든가 야고보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든가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해 보려고 나는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개인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 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췄습니다.… 이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3~17)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

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온 시기에 충만한 경륜의 시대의 아침이 와서 오랜 세대의 영적인 밤의 암흑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지시 받은 고귀한 금판으로부터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새로이 증거하는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과 관련한 위대한 계시가 주어진, 하나님의 손에 쓰인 도구였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침례 요한과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방문을 받았으며 만유의 회복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견디어 냈으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슬픔 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예언자라는 부름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인류의 영혼에 빛과 진리를 가져 오는 전세계에 놀라운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형 하이람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개척자였습니다.

경전 역사의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 궁극적인 개척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출생은 고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출생을 알려 주었습니다. 주님의 삶과 성역은 세상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출생하자 위대한 축복과 시저의 통전보다 더 오래 지속하는 부와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약속된 메시야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굿간에서 태어나 구유를 요람으로 받으신 주님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나아오셨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주님은 인간에게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세상의 사고를 바꾸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축복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장님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구절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은 행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사도행전 10:38)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9~10)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이 어찌나 심했던지 주님의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주님은 우리에게 봉사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10)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 진정한 개척자처럼 주님도 개척자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봅시다. 그 곳에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주님께 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마가복음 5:23)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마가복음 5:35)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 주님은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애곡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훤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마가복음 5:39~40) 그러자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마가복음 5:40~42)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마가복음 15:13~14)라고 외치는 군중의 외침에 반응을 보인 빌라도의 말을 읽을 때 몸이 움찔해집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마태복음 27:24)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주님에게 식초를 마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주님의 육체는 빌린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무덤도 주님의 육체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삼일째 되던 날 아침,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의 입구가 열리고 무덤이 빈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천사가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으며 겝바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십이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이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음이라."(교리와 성약 76:22~23)

우리의 중재자요 구속주요 형제요 우리의 변호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임되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발적인 행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인간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과 성역,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비를 베푸신 행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궁극적인 개척자이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속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현세와 영원히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필수적인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4월 6일입니다. 현대의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1) 나는 겸손하게 참으로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를 입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이 참됨을 알며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그 말씀들을 인용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브리서 5:8~9) 영원한 구원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교리와 성약 14:7)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하고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따르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으며 "만민의 고통을" 겪으셨음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부활이 이르게 하사 저들로 큰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서게 하려"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간증합니다. 나는 "주가 만민에게 명하사, 그를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 받지 못하리라 하"(니파이이서 9:21~24 참조)셨음을 간증합니다. 회개하고, 침례 받고, 그를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지켜야 할 필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음"(힐라맨서 5:9)을 압니다. 나는 "자비의 계획을 펼치시려 주께서 스스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자 함"(앨마서 42:15)을 간증합니다. 나는 거룩한 구속주의 희생이 없이는 공의의 요구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가 영광과 승영을 얻을 수 없음을 간증합니다.(존 테일러, *육상과 속죄*[1882년], 179~183쪽, 또한 레위기 3:21, 21:7 참조) 이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속죄" 없이는 우리가 죽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으며, 야곱이 엄숙히 경고하였듯이 "우리의 영은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비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니파이이서 9:7~9 참조) 됩니다.

나는 "구속은 성스러운 메시야로 말미암아 오시나니, 그는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며…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주시며, 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없음"(니파이이서 2:6~7 참조)을 간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니파이이서 2:8)이라는 절대적인 요구 사항은 온순하며, 유순하며, 겸손한, 즉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필요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니파이이서 25:23)지를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가 가질 수 없는 공덕을 지니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에게 영체를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그의 독생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고 죄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의의 요구를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그는 사랑, 동정심, 인내, 순종, 용서 및 겸손을 포함한 모든 태도에서 완전하셨습니다. 그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공의의 빚을 갚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결국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전세에 관한 것을 모두 망각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받고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 지상에 오는 특권이 주어졌을 때 기뻐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시험 받게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 시험 중의 일부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중요한 목적을 잊게 할 수 있는 재미있게 보이는 많은 것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열심

히 작용하여 꼭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 본질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 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담대하고 순종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회복된 복음과 구세주의 가르침을 충만히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조용한 순간에,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현명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것들이 필수적인 것들보다 우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필수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중요한 성약을 포함합니다. 그런 의식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교회와 왕국에 들어오는 침례와 확인입니다. 남자들은 멜기세덱 신권에 합당한 의식을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그것을 존중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 남자와 여자에게는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포함한 성전의 모든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겐 남자와 아내가 순종을 통해서 현세와 영원을 함께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 성전의 인봉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충실하다면, 성전 결혼을 통해 태어나거나 나중에 부모에게 인봉된 자녀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영원히 결합됩니다. 주님의 속죄 희생에 따른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러한 모든 필수적인 의식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속죄는 단지 우리가 죄와 실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정이 아닌 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로 인한 불공정한 것들에 대한 인생의 부조리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나는 침례 받고 주요한 범법을 피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언급한 추가적인 의식과 성약이 승영과 영생을 위해 반드시 주어져야 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성전 의식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도록 선택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치는 데 신앙을 행사하며, 계속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가족의 일원을 도움으로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전의 의식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끝까지"(옴나이서 1:26) 지킴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니파이삼서 12:19)으로 기꺼이 행해질 때 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시간 때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일들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 시간을 무의식중일지라도 영속적인 가치가 없거나 여러분이 지상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활동이나 하찮은 것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오늘이나 내일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을 위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상에서의 시험 기간 중에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것들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덜 중요한 것들, 비록 그것들이 좋아보이고 이를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생이 끝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선택한 대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의식들이 합당하게 완수되었으며 이에 따른 성약들이 의롭게 지켜지고 있음을 앎으로써 주어지는 평안과 평정을 전할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의식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한 의식을 받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 있게 될 때보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여건 속에서 육신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멜빈 제이 밸라드-*의를 위한 십자군* [1966년], 212~213쪽 참조) 평균적인 수명과 비교해 볼 때, 승영에 필수적인 의식을 모두 받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부지런함과 이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위해 자격을 갖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찌 할 수 없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면, 합당하게 생활하시고, 무시, 무관심 또는 합당치 못함으로 인해 자신을 부적격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분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여러분이 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의든지 타의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세주와 그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생의 많은 중요한 우선순위 중의 단지 하나라고 생각하며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실망과 비극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요구 사항의 일부분만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의 한 쪽 길만 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연차 대회의 연사들의 영감 받은 메시지를 듣거나 나중에 읽을 때, 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당장 실천에 옮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범법을 저질렀다면 돌아 오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 하나님의 것들을 잊었다면 우선 순위를 바로잡으십시오. 필수적인 모든 의식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행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구속주께서 행하신 속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경전에 언급된 양식대로 생활할 때 삶에 풍요로움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을 받는 무리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겸손한 중에 더욱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위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여지매 마음이 청결하며 성결하게 되니, 이는 오직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힐라맨서 3:35)

나는 "속죄를 통한 죄사함을 받은 뒤에는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게 되며, 이 성신이란 보혜사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심"(모로나이서 8:26)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답해 주실 것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1982년], 252쪽 참조) 구속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현세와 영원을 통해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필수적인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행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인생의 가장 슬픈 시련과 비극을 견디고 있음을 앎으로써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회의 관심은 이곳 솔트레이크 계곡과 온 세계 도처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을 둘러싼 특별한 행사에 쏠려 있습니다. 와드 및 스테이크에서 1847년의 유타 개척자들을 기리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발자취에 신앙을 지니고 영적인 흔적을 남겼던 모든 나라의 개척자들이 보여 준 훌륭한 노력을 기리는 기회로 개척자 150주년 기념을 연중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은 훌륭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져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니아의 선교부를 돌고 있는 손수레는 우리 개척자를 기리는 전세계적인 노력의 한 훌륭한 예입니다. 그 계획은 손수레를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에미그레이션 캐년으로 가져와 7월 22일에 "바로 이곳이다"라는 주 공원에 도착되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과거를 기억하고, 어제의 시련을 맞아 극복했던 사람들의 모범적인 신앙과 용기로부터 오늘날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 힘을 얻는 해입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이 위대한 개척자들을 기릴 때, 종종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고 가슴에 순수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 연극 및 감동적인 연기를 통해, 세상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놀라운 개척자 여행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기초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서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에 기초를 놓았던 그들이 행한 여행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렇게 연결시키면 우리는 그들의 여행이 얼마나 우리의 것과 비슷한 지를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걸은 발자취마다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는 데 그것은 사랑, 용기, 결심, 헌신, 인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1847년 유타 개척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신앙은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 성전, 어떤 경우에는 가족까지도 버리고, 그들이 박해의 공포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생필품과 소유물은 참으로 적었지만, 그들의 마차와 손수레는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을 알고 계시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시리라는 신앙이었습니다.

1847년 몰몬 트레일을 했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은 그것을 "희망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희망의 여정"이라는 주제가 좋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희망이 넘치는 성도들의 사회, 안전한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염원을 말합니다.

이 150주년 동안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19세기의 개척자들은 결코 영웅이 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영웅적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성도답게 만듭니다. 그들은 옳은 이유를 갖고 옳은 일을 행하고자 했던 신앙인들이었으며, 비범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평범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실망에 빠지거나 불만과 불평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언자와 지도자로 지지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세했으며 그들은 마차를 바로세우듯이 그들의 희망과 태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그들은 여행의 시련과 어려움속에서도 기쁨을 찾았습니다.

개척자들이 유타의 산악 지대로 이주하기 거의 7년전 쯤, 윌리엄 클레이튼은 영국에 있는 동료 성도들에게 시온이 곧 마차와 손수레로 서부로 옮기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온에 모일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나는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견디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나를 실망케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위로 거의 숨이 막히고, 어떤 때는 추위로 거의 얼 정도입니다. 우리는 담요 대신 판자 위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우리는 젖은 옷을 말리거나 갈아 입을 수도 없었으며… 매우 혹심한 날씨에도 밖에서 자야만 했으며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커머스에서 온 편지, 1840년 12월 10일, 윌리엄 클레이튼 소장품, 말일성도 교회 문서 보관소 소장)라고 썼습니다.

윌리암 클레이튼은 후에 아이오와를 건너는 여행 중에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라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와 다른 무리들은 유타로 가는 약 2,080킬로의 여정 동안 만일 신앙이 여러분의 변치않는 동반자가 된다면, 여행을 하면서 두려워 할 게 없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개척자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1847년 개척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개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 그 신앙은 그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회복된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에 중심을 둔 단순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생자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기본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교회가 이 충만한 때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자녀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분명하며 참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할 때 참으로 간단하다는 것을 압니다.

1847년에 나부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여행하는 것은 한 젊은 선교사가 1993년 말에 최초의 말일성도로 봉사하기 위해 아이다호에서 시베리아로 여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우리 선교사들이 언어도 거의 모르고, 그들이 익숙한 음식, 문화 및 생활 여건과 크게 다른 나라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의 개척자로서 여행하는 데 두려움없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발자욱에 신앙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아를 둔 부모이거나, 합당한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 애쓰는 편부모이거나, 사악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고자 애쓰는 젊은이이거나, 인생이란 여정을 혼자 걷는 독신이거나 간에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

은 우리가 그와 같이 담대하고, 두려움없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위안과 소망하는 확신을 얻음으로써 인생의 가장 슬픈 시련과 비극을 견디고 있음을 앎으로써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아버지이며,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염려하고 계시며, 우리가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한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1847년 개척자들이 서부로 여행하면서 특별히 플레트 강과 스위트워터 강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선한 물을 비교적 가까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노력을 새롭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취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정의 어떤 순간에는 개척자들이 아이오와를 건널 때 온갖 역경을 겪고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처럼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역경과 반대와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낙담과 실망은 우리의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항상 악마의 문이 있는 데, 이는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현명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그런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방향을 조정하겠지만, 반면에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은 쉽고, 안락하고, 편리하고, 편안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단지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 좀더 도전적이고, 더 높은 꼭대기를 보기 위하여 개척자들이 했던 것처럼 인생의 최정상에 오릅니다. 우리는 신앙과 인내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활용한다면, 신앙으로 견디며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찬송가* 16장)라고 노래했던 모든 개척자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상 위대한 개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 발자취마다 신앙을 보겠습니까? 나는 특별히 그들이 영원이란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경험을 볼 때 그러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오늘날 여행이 150년 전 우리 개척자들의 여행보다 물질적으로 덜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시련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대륙을 걸어서, 건너 건조한 서부 사막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정이 항상 유동적이고, 하나님의 선악의 표준이 정치적인 편의와 도덕의 쇄퇴로 위협 받고 있는 오늘날의 혼란스럽고 죄많은 세상에서 충실하고, 의롭게 살려는 일보다 그것이 더 어려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전은 그것이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생활하며, 의로운 선택을 하며,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바치는 모든 시대의 합당한 개척자들을 기다리는 보상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특권과 책임은 교회의 회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대하고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척자 조상들이 그랬듯이 시험 받고 정제된 참된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인생을 통해 위험한 길을 걸을 때 안전과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19세기나 20세기 그리고 그 후 개척자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대속 희생이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이 위대한 여행길에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팔마이라에서 카테지 감옥까지 걸었던 신앙의 발자취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오직 주님만이 걸으셨던 좁은 길을 생각하며 경건한 경외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겟세마네 그리고 갈보리까지의 그분의 충실한 발자취들은 우리 모두를 구하셨으며, 우리가 하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여셨습니다.

구세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가 충실하고 참되면 언젠가 그의 사랑의 팔에 안전히 안기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교리와 성약 6:20 참조) 그분은 항상 그 곳에서 격려하고, 용서하며, 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킨다면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에미넌스라고 알려진 언덕 꼭대기에 손자 세 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윌리 부대가 춥고 굶주리며 궁지에 몰려 있었던 스위트워터를 내려다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일지에서 구원 받는 기쁨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존 치슬렛은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이 먼 언덕 너머로 아름답게 질 무렵에 몇몇 포장 마차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소식은 불같이 캠프에 전해졌으며… 기쁨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으며… 강한 남자들의 주름지고 햇빛에 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참으로 오랜만에 시온의 노래가 캠프에서 들렸다… 충족된 굶주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과 우리의 선한 형제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르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 독특한 서부 이주 이야기, 1856~1860년,[1976년], 106~107쪽)

그 순간에 윌리 부대가 처음으로 구조자들을 보았던 같은 언덕에 서 있으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를 구조하는 가장 위대한 구조의 영원한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채울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과 나에게 여행에서 두려워 할 게 없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를 믿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 여정 동안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장엄한 개척자 여행

비디오테이프 자료에서, 대관장단은 유적지 여섯 곳을 방문하여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신앙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해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인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여행은 미시시피 강 연안의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나부에서 습지대에 불과했던 땅을 우정이 넘치고 상업이 번창하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부는 계속 머무를 본향이 아니라, 당분간 머무를 안식처에 불과했습니다. 미주리 주에서 성도들을 내몰았던 것과 같은 극심한 박해가 다시 그들의 생명과 도시를 위협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은 1844년 6월 27일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나부에서의 성도들의 삶도 이제 마감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46년 2월 1일, 일요일, 성도들은 그 "요셉의 도시"에서 함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브리감 영은 모든 회원 가족들에게 네 시간 안에 떠날 채비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 날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대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유물을 한데 모으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신들의 집 문을 마지막으로 닫은 후, 강 건너 펼쳐진 서부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부는 평온합니다. 집들과 상점들이 아름답게 복원되었습니다. 근면과 헌신의 모범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초기 성도들이 도시를 세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보여준 용기와 그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구던 밭과 손수 심은 수목들, 그들이 건립한 성전 등,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한채 떠나야 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운 집에서 걸어 나와 마차에 올라 타고 강을 향해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 곳에서 강을 건너 아이오와의 대지 위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따금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떠나온 정든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부를 떠난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이 개척자들 앞에는 무수한 역경들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으로 지도자들을 믿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신앙, 결코 주춤거리거나 좌절하지 않으리라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황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발자취마다 신앙이 넘치는 여행이었습니다.

해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서부로 가는 길은 더디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든 여행 길을 헤쳐 갈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강건한 사람들조차 혹한과 끊임없는 비와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 수렁 등을 견디어내기 힘겨워 했습니다. 아이오와를 횡단하는 데만 131일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셨듯이, 개척자들 또한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아이오와에서의 역경 가운데에서 생겨나 여러 세대를 걸쳐 애창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찬송가, 16장)입니다.

가든 그로브와 피스가 산에 뒤따라 올 성도들을 위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한 후, 이 충실한 개척자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미주리 강 연안의 월동기 야영지로 전진해 갔습니다.

이 곳 윈터 쿼터스에는 광야에서 조직된 시온이 있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성도들을 부대로 편성하고 그들의 얼마되지 않은 자산들을 모두 한데 모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죽음이 그들의 야영지를 휩쓸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한 무명의 어린이와 일곱 개척자들이 묻힌 무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숭고한 성도들이 집을 떠나 서부로 이동하라는 예언자의 부름을 기꺼이 따르는 가운데 그들이 치른 대가가 얼

솔트레이크 성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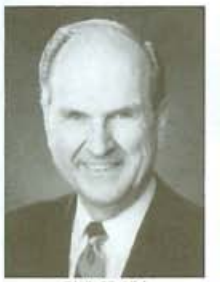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돈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칠십인 회장단

엘 앨든 포터

조 제이 크라스탄슨

몬트 제이 브러프

더블류 유진 해슨

잭 에이치 고슬리드

해롤드 지 힐럼

얼 시 팅기

질십인 제일 성원회

안젤 아브레아 · 카롤로스 에이치 아마도 · 닐 엘 앤더슨 · 달라스 엔 아치볼드 · 벤 비 뱅크스 · 메릴 제이 베이트먼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케이 카먹 · 디 토드 크라스토파슨 · 제이 리차드 클라크 · 게리 제이 코올먼 · 스펜서 제이 콘디 · 진 알 쿡 · 로버트 케이 델리바흐 · 존 비 딕슨

찰스 디디에이 · 로렌 시 던 · 본 제이 페터스토문 · 존 에이치 그로버그 · 브루스 시 허펜 · 에프 엠빈 하몬드 · 에프 버튼 하워드 · 제이 이 젠슨

알린 케이 젠슨 · 케네스 존슨 · 엘 라이오넬 켄드릭 · 윌리엄 롤프 카 · 요시히꼬 기꾸짜 · 크리 엘 코포드 · 딘 엘 라슨 · 존 엠 에드슨

린 에이 미칼슨 · 알렉산더 비 모리슨 · 데니스 비 노인슈인더 · 글렌 엘 페이스 · 제임즈 엠 퍼리오어 · 앤드류 더블류 피터슨 · 렉스 디 피비가 · 휴 더블류 파녹크

로날드 이 포울맨 · 칼 비 프렛 · 세실 오 사뮤엘슨 · 데이비드 이 소렌슨 ·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 로버트 이 뮬스 ·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질십인 제이 성원회

리차드 디 올레드 · 리노 알비레즈 · 엘 에드워드 브라운 · 시 멕스 콜드웰 · 에란 에이 폴

샘던 에프 차일드 · 리차드 이 쿡 · 뉴 딘 엘 쿡 · 플라우디오 알 뎅 코스타 · 존 이 파울러

듀엔 비 제라드 · 웨인 엠 첸콕 · 제이 켄트 폴리 · 더블류 돈 레드 · 이우구스토우 에이 림

제임즈 오 메이슨 · 리차드 제이 에이너즈 · 브이 달라스 메릴 · 데일 이 밀러 · 브루스 디 포터

림 지 로빈스 · 데니스 이 시먼즈 · 도널드 엘 스타쉘리 ·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 타이 씩 유엔

제럴드 엘 테일러 · 리차드 이 탈리 일세 · 프리시스코 제이 비니스 · 렌스 비 워크맨 · 리차드 비 워스린

관리 감독단

리차드 시 에즐리 제1보좌 ·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관리 감독 · 키스 비 맥멀린 제2보좌

템플 스퀘어에 있는 어셈블리 홀

마나 큰 것이었나 생각하노라면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젖어듭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사투를 벌였으며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진정, 이 고귀한 개척자들은 고통과 눈물의 여로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름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주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불멸의 증거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해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1847년 4월의 어느 이른 봄 날에, 십이사도 정원회는 브리감 영의 지시 아래, 남자 143명, 여자 3명, 소년 2명, 마차 72대, 말 93필, 황소 66마리, 노새 52마리, 암소 19마리, 개 17마리, 그리고 병아리 몇 마리로 이루어진 선발대를 직접 편성한 후, 이들을 이끌고 윈터 쿼터스를 출발했습니다.

개척자들이 대서부 이동을 하는 길인 윈터 쿼터스와 약속의 시온 사이에는 광막한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들의 생명줄인, 비옥한 플레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네브래스카를 횡단하면서 이동거리를 기록했으며 평원 가운데 홀로 솟은 침니 록(굴뚝 바위)을 지나 나아갔습니다.

세이지가 덤성덤성 여기저기 나 있고 먼지 소용돌이가 부는 이 땅 위를 피로에 지친 숫소들이 육중하게 걸어가고, 마차 바퀴는 삐걱대며, 용감한 남자와 여자들이 애써 나아가는 가운데로, 때때로 늑대들이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의 자취가 곳곳에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노스 플랫을 떠나, 그 후 여러 차례 건너게 될 스위트 워터 강을 따라 갔습니다. 인디펜던스 록(독립 바위)이라 불리우는 둥근 노출부에 야영하면서, 이들 19세기 여행자들 중 몇몇이 자신들의 이름을 이 화강암 바위에 새겨 놓았습니다.

몰몬 개척자 트레일을 따라 있는 지역의 돌에는 아직도 이러한 개척자들의 여행 자국들이 남아 있다.

네브래스카 주, 윈터 쿼터스에 있는 조각 "윈터 쿼터스" 앞에 서 있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이 조각은 아바드 도시어 뱅크스 작임

인디펜던스 록(독립 바위)을 지나, 짐마차는 데빌즈 게이트(악마의 문)라는 산허리에 난 깊은 절벽 틈새를 끼고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일지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여로는 이내 가파른 오르막길이 되고 더욱 험난한 바위투성이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로키 리지는 성지입니다. 바로 이곳은 개척자들이 서부로 이동하는 가운데 만난 가장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개척자들은 이 능선의 가파른 비탈길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심지어 사망자까지 생기는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저는 손에 사각 못 하나와 마차나 손수레에서 떨어져 나왔을 금속 조각을 들고 있습니다. 마차가 이 능선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이 곳에서 손수레를 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부에게는 로키 리지를 힘들게 오른 것이 불운이었습니다. 1856년에 마틴과 윌리 손수레 부대는 이 정상에서 일찍 불어닥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구조대가 솔트레이크에서 갔지만, 깊은 눈 속에서 절명한 200여 명에 이르는 인명을 구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틴 코브에서 그 매섭고 고통스런 한파를 피했습니다. 엄청난 역경을 겪다 신앙을 위해 이 곳에서 목숨을 잃은 영령들을 기리고자 이 록 크릭(바위 협곡)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손수레 개척자들의 용맹스런 노고에서 위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을 거쳐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찮고 중요치 않은 것들이 찌꺼기처럼 녹아 없어지며, 우리의 신앙은 밝고 온전하며 강하게 됩니다. 의롭게 살며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뇌와 슬픔과 비탄은 깊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해설: 몬슨 부대관장

윈드 리버 정상을 북쪽에 두고, 개척자들은 산맥 능선과 그레이트 베이슨까지 가장 곧게 뻗은 길 사이의 유일한 주요 돌파구인 사우스 패스로 건넜습니다. 유타 북동부 지역에 접어들어, 그들은 좌우로 치솟은 붉은 절벽 사이로 난 에코 캐년(메아리 협곡)의 좁은 통로를 느리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 막바지 길에서 그나마 조금 남은 마지막 힘까지 모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사방으로 뻗쳐 첩첩으로 포개진 산들이 그들 앞에 불쑥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행의 목적지에 다 왔다는 들뜬 마음이 앞에 가로놓인 산을 넘어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와이오밍의 로키 리지에 있는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알게 되면서 때로는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들은 빅 마운틴이라고 직접 명명한 이 높은 정상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본향인, 멀리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반짝이는 산 계곡을 처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이제 이루 헤아릴 수 없던 희생과 분투가 거의 끝났습니다. 솔트레이크 계곡이 바로 눈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불굴의 신앙으로 피로에 지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빅 마운틴은 제 마음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개척자 조상인 깁슨 콘디는 진퇴 양난에 빠진 손수레 개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이 정상을 넘었습니다. 1856년의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는 예언자의 부름에 순종하여 바로 이곳으로 여행해 왔습니다. 길에는 눈이 16피트나 쌓여 있었습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가정의 안락함을 뒤에 남기고 떠났던 이 개척자 조상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설: 파우스트 부대관장

7월 24일, 토요일에 영 대관장님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개척자들은 참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왔으며, 참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그곳에 멈춰 서서 자신들이 무사하게 오게 된 것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예레미야 3:14)로 택함 받아 사막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복음의 거룩한 회복 외에 무엇이 그 같은 노고를 하도록 이끌며, 그 같은 희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자신들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확고한 신앙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본향에서 앞으로의 과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용기를 내었습니다. 임시 막사를 지어야 하며,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심으며, 성전을 건립해야 했습니다.

해설: 힝클리 대관장

솔트레이크 계곡 위로 우뚝 솟은 반구형의 정상이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기 전에 시현으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분은 깃발이 산 위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곳에 세우라. 그리하면 번영하고 평안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요셉 스미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계곡에 들어왔을 때, 그 정상을 곧 알아보셨습니다. 1847년 7월 26일 아침에, 새로 대관장단으로 선출될 사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몇몇 회원과 함께 비탈을 올랐습니다.

이들 소수의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 계곡 아래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 곳이 바로 우리가 정착할 곳이며 하나님께서 그 분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세우실 곳입니다." 하고 영 대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곳 엔사인 피크에 서서 계곡을 바라보며, 그들의 예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행에 닳은 오래되고 누추한 옷에, 수천 마일에 이르는 긴 여정에 닳고 닳은 구두를 신은 예언자들이 복천년의 시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담대하다 하겠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은 가장 근접한 정착지로부터 천 마일이나 떨어졌고 태평양 연안에서도 800 마일 떨어진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곳 기후를 겪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곳에서 농작물을 길러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어떠한 건물도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시시피 강가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쫓겨나 이 서부의 사막으로 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전과 계시의 말씀에서 나온 시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이사야 11:12)

1세기도 훨씬 이전에 시작된 이 위대한 개척자 정신이 말일성도 개척자들에게 면면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척자의 피가 서부를 향해 걸었던 사람의 혈관에 흘렀듯이 우리들의 혈관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개척자 정신이야말로 현대의 산맥들에 맞서려는 우리의 용기와 계속 이어가려는 헌신의 진정한 정수입니다. 초기 개척자들의 신앙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명확한 비전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말일성도 개척자들에 의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에 깊게 각인된 발자취들은 전세계를 걸쳐 여러 나라에 그와 같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브라질, 프랑스에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걸음씩 충실하게 내디디며 영광스러운 사명, 곧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립하며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그렇게 위대한 유산을 받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선조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비디오를 보았는데,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 몇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수없이 주지되어 온 것처럼, 올해는 그들이 이 계곡에 들어온 지 1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저는 그 분들이 이룬 일의 중요성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에 관해 계속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인간의 고통 및 신앙의 업적으로 가득 찬 것이라 결코 진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척자의 후손이든, 아니면 바로 어제 침례 받았든, 각자는 저마다 일정량씩 개척자들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뒤에는 위대하고 고결한 선조들이 계시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그분의 예언자들의 듣는 귀와 이 대업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철저한 헌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엄한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수십 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오는 7월을 개척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룬 기이한 업적을 경축하고 그들이 놓은 기초에서 성장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함께 기뻐하기로 한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윌러스 스테그너의 글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비회원인 그는 저와 유타 대학교 동창으로서 후에 스탠포드 대학교 창작 교수가 되었으며, 퓰리처 상을 수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사려 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몰몬 개척자들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한 주,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이주 이야기는 단순한 유타 창설의 이야기 차원을 넘는다. 그들은 도피 여행을 하면서 로커스트 크리크에서 미주리에 이르는 아이오와 주 남부를 개척했고, 처음으로 도로를 만들었으며, 다리와 지역 사회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카운실 블러프스에서 미주리 주를 교역 장소 및 인디언 관리 기관에서 문명의 첨병 기지로 변화시켰으며, 그 강 양쪽에 정착촌을 세웠고, 윈터 쿼터스와 후에는 케네스빌까지를 인디펜던스, 웨스트포드, 세인트 조셉에 버금가는 보급 기지로 만들었다. 그들의 지도서와 도로 표지판, 다리 및 나룻배들은 뒤따라오기로 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그는 계속 이렇게 적습니다. "몰몬들은 서부 정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세력의 일부이다. 그들의 주 구성원들은 아이오와 주 남부와 미주리 주 변경과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유타를 열었다. 브루클린 호를 타고 혼을 돌아 항해했던 동부 지역 성도들인 사뮤엘 브래넌 그룹과 포트 리 븐워드에서 샌디에이고까지 이천 마일을 행군한 몰몬 대대는 몰몬 이동의 제2기였으며, 그렇게 하는 사이 그들은 남서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을 여는 데 기여했다. 몰몬 대대원들이 콜로마에 있을 때는 서터스 물방아 지반에서 금이 번쩍거리고 있었을 때인데, 브리감 영의 지시를 받고 지역을 개척하는 몰몬들은 그 곳에서 잠깐만 쉰 다음에 다시 출발하여 유타 주 솔트레이크와 웨버 계곡에서 외곽으로 나와 북부 애리조나에서 아이다호의 림하이 강까지, 또 와이오밍 주의 포트브릿저에서 카슨 밸리의 제노아까지, 남서부 지역의 경우 세인트 조지와 라스 베이거스에서 산 베어나디노에 이르는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했다."(윌러스 스테그너: 시온의 집합, *몰몬 트레일 이야기*, 1964년, 6~7쪽)

앞의 이야기는 개척자들의 눈부신 업적의 요약판입니다.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주리 주 주지사인 보그스의 근절령을 피해 달아났던 선조들은 일리노이로 와서 당시 그 주에서는 가장 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미시시피 연안에 있었는데, 강이 크게 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벽돌 집과 학교를 지었으며, 대학교를 설립하고, 집회소를 세웠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보고에 따르면 당시 주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건축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적대감은 계속 자랐습니다. 결국 지도자인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인 하이람이 1844년 6월 27일에 카테지 감옥에서 총에 맞아 살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브리감 영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척자들은 요셉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찾아낼 수 없는"(*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14쪽) 먼 곳, 서부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26년 2월 4일, 마차 부대가 나부 팔리 거리에서 강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아이오와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져 갔습니다. 강물이 얼어서, 그들은 얼음판 위를 건넜습니다. 일단 나부에 작별을 고한 그들은 자연과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들을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땅이 녹으면서 발이 푹푹 빠지고 위험한 진흙탕이 돼버렸습니다. 마차 축이 가라앉고, 황소떼가 움직이는데 두세 배의

힘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지난 적이 없는 길을 닦아 나갔습니다.

마침내 미주리 주 그랜드 인캠프먼트에 당도한 개척자들은 수백 채의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어떤 것은 매우 조잡하고, 어떤 것은 다소 안락한 것도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날씨를 피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습니다.

1846년의 겨울 내내, 그 변경 정착촌에는 마차를 만드느라 용광로가 들끓고 모루가 떵떵 소리를 끊임없이 냈습니다. 겨우 십대였던 제 할아버지는 대장장이 일과 마차 만드는 일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쇠를 주물하는 실력보다 더 유용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 분은 후에 자신의 마차를 만들어, 젊은 아내와 아기와 처남을 태우고 서부로 출발했습니다. 그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어디에선가 그 분의 부인은 병이 들어 숨졌으며, 처남도 같은 날 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둘을 묻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한 뒤 아기를 안고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계곡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1847년 봄, 첫번째 마차 부대가 윈터 쿼터스를 출발하여 서부로 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플래트 강의 북쪽을 따라 나 있는 길로 이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으로 가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길로 이동했습니다. 그 몰몬들의 도로에는 후에 유니온 퍼시픽 철도와 대륙 횡단 고속도로가 놓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11일 후인 1847년 7월 24일에 그들은 산 협곡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리감 영은 "바로 이곳이다"(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 약사*, 3:224)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양이 이미 조사되었고 물이 풍족하며 기후가 더욱 좋은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짐 브릿저는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샘 브래넌은 브리감 영에게 캘리포니아로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는 황량한 계곡과 서부에 작열하는 7월의 태양 아래 번쩍거리는 염분 많은 물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양에 구워진 땅에 쟁기질도 되지 않았습니다. 46세의 브리감 영은 이 곳에 서서 "바로 이곳이다."라고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농작물을 심은 적도 없고 추수도 몰랐습니다. 계절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 뒤로도 수많은 회원들이 오고 있어서 곧 수만 명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리감 영의 예언적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사막 위에 집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기적처럼 그 나무가 자랐습니다. 장엄한 새로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장 40년이 걸린 대역사였습니다. 그 1847년부터 시작해서 1869년에 철도가 놓일 때까지 산악 지대인 시온으로 수만 명이 모여 들었습니다. 나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곳의 성전은 방화자들이 불을 질러 태워버렸으며, 벽도 나중에는 폭풍에 무너졌습니다.

1837년에 영국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범위는 그 곳에서 시작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점차 독일 및 다른 국가들에까지 넓혀졌습니다. 개종한 사람들은 모두 시온으로 모이고 싶어했습니다.

그 집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당국이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주자들을 뉴올리언즈와 뉴욕과 보스톤으로 데려올 배를 파견했습니다. 최종 목표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바로 그레이크 솔트레이크 계곡이었습니다. 바로 이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도시와 정착촌을 로키 산맥 지역에 있는 것보다 350개 지역이나 많이 세웠습니다.

긴 여행에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콜레라와 흑뿌리 혹병과 심한 피로와 굶주림과 심한 추위로 숨졌습니다.

끔찍한 대가를 치룬 것으로 가장 유명한 부대는 1856년의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였습니다.

영국과 서부 유럽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모두 싣고 올 마차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시온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겨우 작은 수레 하나만 끌고 걸어와야 했습니다. 수백 명이 그렇게 했으며, 황소 마차보다 더 빨리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1856년의 이 두 부대는 걸어오는 동안 많은 수가 숨졌습니다. 그들은 늦게 출발한 데다, 아무도 그들이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차를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 몇몇이 여행하면서 도움을 주도록 지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래 부르며 서부로 출발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의 몰랐습니다.

그들은 서부로 이어지는 플래트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포트 라라미 근처에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량도 줄었습니다. 그들은 와이오밍의 높은 평원을 느릿느릿 오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여행에서 약 2백 명이 숨졌습니다.

그 곳에 있으면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고 생애 내내 끔찍한 경험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개척자들의 서부 이동사에서 그처럼 비극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상상할 수 있거나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 의식을 통해 그 죽음과 비참한 고통의 여행을 했던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와이오밍 리버튼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 제약상,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유가 된 록 크리크 할로우에는 같은 날 밤에 숨진 열세 명의 평범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가족과 함께 혼자서 여행하던 덴마크 출신의 아홉 살짜리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보딜 모르텐슨이었습니다.

1856년 10월, 제임스 지 윌리 부대는 강풍을 동반한 심한 눈보라가 60센티미터나 쌓여 대피할 곳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보딜은 밖으로 나가 불을 지필 잠목을 주웠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팔에 땔감을 안고 수레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동사했습니다. 굶주림과 심한 추위로 그 연약한 소녀는 고생 끝에 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제 1세기 반 전의 과거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그 분들의 큰 노고의 수혜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분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1997년이며, 미래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척자들에게서 위대한 일들이 기대되었듯이, 이젠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분들이 무엇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왕국을 건설해야 할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우리는 진리와 의를 위해 싸우는 대십자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선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유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횃불을 쥐고 달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전세계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좋은 평판은 주님의 사업을 강화시켜 줍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신앙개조 제13조), 그러한 것들을 구하도록 합시다.

다니엘이 시현으로 본 그 작은 돌이 존귀와 권세를 갖고 구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복하며 삽시다. 아직 우리를 특별한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의 덕을 통해 우리가 믿는 훌륭한 것의 강건함과 선함을 나아가 보여 줍시다.

전세계에서 가족들이 흩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단결시키고 그들을 강화시키고 의와 진리 안에서 양육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위대한 유산을 받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선조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업과 목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에 귀기울일 지상의 의인들을 찾아 나섭시다.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찾는 경향이 있는 세대에게 빛과 이해력과 진리를 가져다 줍시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전세계에 걸쳐 집회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야곱서 6:7)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 집회소를 사용합시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성전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구원의 의식이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굳건하고 훌륭한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종석으로 해서 완전히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희생과 고통과 죽음과 시현과 신앙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및 그의 아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간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옛날 포장 마차가 지금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 대체되었습니다. 말과 4륜 마차는 고속도로를 마음껏 질주하고 에어콘이 장착된 자동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울 수 있는 훌륭한 학원이 있으며, 귀중한 가족 역사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천 명이 예배볼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대중 매체도 우리를 좋게 다룹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리의 대업을 위해 봉사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참으로 존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베드로전서 2:9)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할 때 기뻐하시길 기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이 기념하는 해에 미래를 내다 보면서 이를 위해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일요일 오후 모임
1997년 4월 6일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맡긴다면, 성신은 우리의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몰몬 개척자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후, 그 곳 사막에서 정착하는 것이 참으로 큰 도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시련과 어려움을 맞이했으며,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삶이, 이전에 익숙해져 있던 삶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집도 지어야 하고, 땅도 개간해야 했습니다. 관개수로도 파고, 정원도 일구어야 했으며, 나무도 치고 가축도 돌봐야 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은 계속 유타로 들어왔고, 가뭄과 메뚜기로 인한 재앙도 계속 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새로운 지역의 경제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므로 초기 개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 무관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항이 되었으며,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겪는 고난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 성도들의 느슨해진 태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1856년, 대관장단은 하나의 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전체를 여행하면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각 가정에 질문지와 함께 가정 복음 교사를 보냈습니다. 이 질문들 중에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들을 어떤 면에서든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간음을 범한 적이 있습니까?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있습니까?

독한 음료에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빚은 다 갚았습니까?

가정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칩니까?

가족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까?

와드 모임에 참석합니까?(*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교회사*에서 발췌한 질문[교회 교육 기구 교재, 1993])

성도들은 지도자들로부터 주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자신들을 재헌납하도록 권고를 받았으며, 그들은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1997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비록 지금이 그 당시와 다르다고 해도 그와 같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오늘날 하더라도 여전히 적절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초기 개척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혹의 근원으로 그 목록은 아마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균형을 잡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은 우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둘러싸 버렸습니다.

몇몇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부정적인 대중의 항의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텔레비전 등급 제도가 세워지게 되었고,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위해 등급 결정을 하는 이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옳음과 그름 사이에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우리를 인도해 주는 특별한 힘을 축복받았습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났음을 아셨던 그 특별하고 신성한 시간에 그분은 우리가 일컫는 최후의 만찬에 그분의 열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도 그들이 홀로 남겨지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1~3)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며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요한복음 14:22)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2~23, 26)

우리 주님 곧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 그 약속된 보혜사는 물로 침례를 받아 성도로 헤아림을 받는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표시가 주어져 열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이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세주의 교회가 세워진 후, 배도가 교회 회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암흑의 시대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불의로 인해 신권 권능이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1820년에 첫번째 시현을 받았을 때, 빛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 세상에 되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신권의 권능을 부여 받았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으로부터 아론 신권을,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계시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 사이의 대화의 고리가 회복되었습니다.

1830년 4월 6일,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적은 수의 회중이 모였을 때, 예언자 요셉은 참석한 이들에게 자신과 올리버 카우드리를 그들의 교사요, 특별한 조언자로 기꺼이 받아들이는지를 물었습니다. 참석한 이들은 손을 들어 지지를 표했습니다.

비록 요셉과 올리버가 이미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장로 직분에 성임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조직된 교회에서 장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의 성찬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올리버는 이미 침례를 받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했습니다.(*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교회사*, 67~68쪽)

신권의 권세로써, 물로 침례를 받은 다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 성신을 받은 사람들 중에 헤아림을 받는다는 일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리드랜드 리차즈 장로님은 성신의 은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성신의 은사는 식물에게 물과 햇빛이 중요한 만큼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과 햇빛을 빼앗아 보십시오, 식물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신을 치워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도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의 삶과 헌신에 있어서도 많은 면에서 그와 같을 것이 분명합니다."(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성신의 은사", *엔사인* 1979년 11월호, 76쪽)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한 오직 한정된 가치만을 지니게 됩니다. 성신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늘 그분을 기억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변함없는 우리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애에서 한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내게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수년 동안 한 소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지만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시도하는 중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회계 고문들을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큰 회사와 합병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합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는 계속해서 경영을 하도록 하는 5년간의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도 안되어 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기업주는 내가 어떤 신탁을 위반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긴 토의 후, 그들은 여전히 강요했으며 나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는 나는 회사를 떠나는 데 동의했습니다. 나에게 그 시기는 매우 절박한 때였습니다. 아내는 심한 병중이어서 많은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딸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비를 충당할 정도의 사업 자문 업무를 보면서 그 다음해를 보냈습니다. 약 1년 동안을 고생한 끝에, 켈리포니아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관해 논의해 보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주 좋은 계약 조건을 협상했으며,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중하게 의논한 후, 나는 가족들에게 이 일이 올바른 일임을 확신시켰습니다. 그 제의를 수락하기 위해 회사로 전화를 하는 중에,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강하고 힘있는 음성을 들었으며, "그 제의를 거절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를 거절했지만 무척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왜 그것을 거절하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층에 있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앉아 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교리와 성약 111편이 펴졌습니다. 이것은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았던 메사추세츠 주에 주어진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다음 구절들이 그 페이지에서 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너희 빚에 대하여는 마음을 쓰지 말라. 내가 이를 갚을 힘을 너희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곳과 이 근방의 땅에 머물라."(교리와 성약 111:5, 7)

큰 평온이 내 영혼에 찾아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나는 보스톤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 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에 나는 대관장단의 제1보좌였던 리 부대관장님을 모시고 대회에 참석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리 부대관장님의 말씀에 흠뻑 취할 수 있었던 그 대회는 영광스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해 7월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작고하시고 리 부대관장님이

예언자가 되셨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솔트레이크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내 직업을 떠나 교회 총관리 역원이 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종종 만일 내가 보스톤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던 성신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팔리 피 프랫은 성신의 은사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통찰력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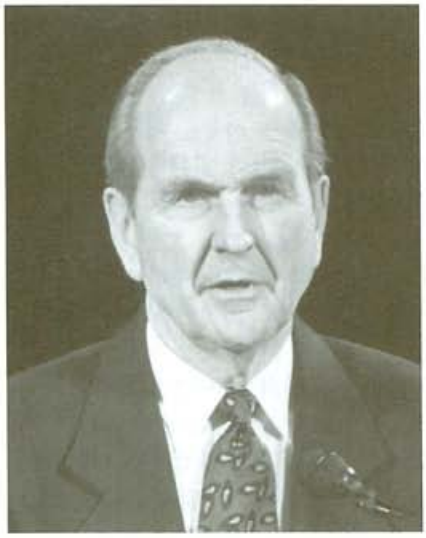
"성신의 은사는 모든 지적인 능력을 밝혀 주며, 모든 자연적인 열정과 애정을 증가, 확대, 확장시켜 주고, 순화시켜 주며, 지혜의 은사로써 그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순응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성품의 모든 순수한 연민과 기쁨, 기호, 동정의 느낌 그리고 애정을 개발시키며,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덕, 친절, 선, 부드러움, 다정함 그리고 사랑을 불어 넣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조직 및 모습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은 건강, 원기, 생기 및 사회적인 감정을 키워줍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체적, 지적인 모든 기능을 활기차게 해줍니다. 그것은 신경을 강화시켜 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뼈에 골수를, 마음에는 기쁨을, 눈에는 빛을, 귀에는 음악을,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팔리 피 프랫, *신학에의 열쇠*, 110쪽)

나는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성신의 은사가 위안과 힘이 됨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그 길을 혼자서 찾도록 내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것,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등급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성신의 동반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며, 우리 생활에서 주어지는 속삭임을 따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고 귀중한 은사인 성신의 은사를 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참고 견디며 들어 올려 짐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견디는 책임은 분명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북돋아 주는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나와 나의 자매가 결혼 초기에 미네아폴리스에 살던 어느 날, 우리는 남는 오후 시간을 우리 두 살 된 딸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미네소타의 많은 아름다운 호수 중에 하나를 찾아가 작은 보트를 빌렸습니다. 호숫가로부터 멀리 배를 저어 나가, 잔잔한 호수 가운데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별안간 우리 어린 딸이 한 쪽 다리를 들어 보트 밖으로 내밀면서 "아빠, 이제 보트에서 내릴래."하고 소리쳤습니다.

황급히 우리는 아기를 붙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지금 내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보트가 안전히 우리를 호숫가로 데려다 줄 때까지는 보트에 있어야 한단다." 오랜 설득 끝에 우리는 딸아이에게 보트에서 너무 일찍 내리는 것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지 부모가 지닌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들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리석게도 보트에서 내리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까지[1] 견딜 것을[2]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경전의 주된 주제입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구절을 대신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온을 세우려 힘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성신의 능력과 은사를 얻을 것이라. 저들이 끝까지 참을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받들어질 것이요, 어린 양의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 받으리라."[3]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항상 율법에[4]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비유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처음에 주님과 함께 "보트에 타야"합니다. 그런 다음 계속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하기 전에 보트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할 것이며, 그 곳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들리워질 것입니다.

"들리워진다"라는 말은 간단한 실험[5]으로 입증될 수 있는 물리 법칙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속이 빈 실패를 사용하여, 내가 실패에 난 구멍을 불어보겠습니다. 내쉬는 힘으로 종이 조각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와 곧은 핀을 준비합니다. 이 핀으로 카드 가운데를 뚫습니다. 핀으로 낸 카드 구멍을 실패 구멍에 대고 내가 카드를 실패에 가까이 잡고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실패 구멍을 불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불 때, 카드를 놓아 물리적인 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카드를 불어 날려버릴까요, 아니면 카드가 나 있는 쪽으로 들려 올려지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실험: 실패 구멍

을 불자, 카드가 실패쪽으로 들리워진다.)

보셨습니까? 내가 충분히 입김을 부는 한, 카드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불지 못했을 때, 카드는 떨어졌습니다. 내 입김이 다 했을 때, 반작용인 중력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 힘이 견딜 수만 있다면, 카드는 무한정 떠 있게 될 것입니다.[6]

중력에 대항하여 무언가를 떠 있게 하려면,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에너지와 참으려는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5킬로미터 경주자의 승리자는 5킬로미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1~2킬로미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스톤에 가려고 버스를 탄다면, 여러분은 버링톤에서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위를 얻고자 한다면, 학기도중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멋진 양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시켜 놓고, 샐러드만 먹어보고 식당을 나서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하면서 참고, 일을 해가면서 부딪치는 반대를 견디며, 끝까지 견디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즐기기 전에 일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일을 마칠 때까지 일을 계속하라
일을 벌이는 자는 많으나, 완수하는 자는 적다.
명예, 권세, 권자 및 칭송들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항상 주어진다.
일을 마칠 때까지 일을 계속하라
일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일해, 그로 인해 행복을 얻으라.
열심히 일함과 일함으로 인한 행복이
결국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 주리라.[7]

때때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참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병을 앓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은 그러한 시련의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8] 대체로 육체적으로 심한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초기 개척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서부 이주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올해의 150주년 기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9] 추방,[10] 정부의 근절령,[11] 재산 몰수[12] 등 많은 것들을 굳건히 견디어 냈습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염려하시는 것은 각 개개인의 구원과 승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종한 후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성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13]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분의 사명을 회피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14] 그분의 대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부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사 불멸과 영생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15]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16]

예수님은 지상 성역 초기에 그의 추종자들의 결심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그분은 5,000명을 먹이시고,[17] 하나님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18]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견딜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그분은 십이사도들에게 몸을 돌리시며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19]

베드로의 답변은 결심의 참 핵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개심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것이 됩니다.

이 견디는 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교회에서의 회원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성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결혼, 특히 성전 결혼과 가족 결속은 성약 관계입니다. 그것들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세계를 통하여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때, 많은 배우자가 서로에 대한 성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일부 성전 결혼도 실패하는데 이는 남편의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신권 의무가 아내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것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20]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21]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최근에 모든 말일성도 남편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신권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22] 그의 현명한 조언에 우리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더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23] 참고 견디는 사랑은 인생을 통하여 인생의 시련기에 들리워질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 견디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결속을 인생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약 중의 하나로 여길 때 가능합니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성약은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24]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견디겠다는 진실된 결심도 없이 성스런 침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침례는 참으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회원됨으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성전의 승영에 이르는 의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왕위, 왕국, 주권 및 권세를[25] 얻기에 합당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그 분의 교회에서 건성으로 활동하는 자와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간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26]

주님께 충성함이란 그 분의 교회를 이끌도록 주님께 부름 받은 자들에게 충성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하도록 성임된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27] 그들이 주님의 가라앉지 않을 보트를 구원의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동안 우리는 보트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28] 어떠한 물도 바다, 육지, 하늘 만물의 주님 안에 거하는 배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보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합니다. 슬프게도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보다도 인생의 험난한 길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는 일로부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실수가 아닌 일로 부당히 버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속주로부터 결코 버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다."[30]

주님에 대한 강한 성약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성약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영원한 성약에 대한 결심이 약하면 영생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 구절에 표현된 대로 후에 인생에 대한 불평이 후회로 점철되게 됩니다.

말이나 글로써 표현된 것 중에 가장 슬픈 것은,

"할 수 있었는 데"라는 말이다![31]

우리는 모든 축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32]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영광스럽게 끝까지 견디길 원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몇 가지 개인적인 우선 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충실함을 유혹하는 많은 흥미로운 일들 중에서 여러분은 우선 "보트에서" 안전히 있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33] 만약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재미, 무절제한 관계, 명성, 또는 부귀 같은 것들을, 끝까지 견디도록 거룩한 성약을 맺은 배우자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한다면, 사탄이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맞게 되면, 이전에 맺은 성약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길지어다.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고, 명한 것을 행할지어다."[34] 주님은 그의 예언자 예레미아를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35]

우선 순위가 올바르다면 견디는 힘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선 순위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혼이나 교회나, 인생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그 무엇이나 그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창조주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하도록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시된 진리의 원리에 의해 자신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여러분의 고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면 주님의 들리우는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36]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부름을 주셨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뚝 서서, 가슴 속 깊은 찬송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왕국을 건설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충실하며 신앙을 지킵시다."[37]

우리 모두가 참고 견디어 마지막 날에 들리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4:13; 마가복음 13:13; 니파이이서 33:4; 옴나이서 1:26; 니파이삼서 15:9; 교리와 성약 14:7, 18:22, 20:29 참조. 이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해 주셨다. 위대하신 엘로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며 진실하도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니파이이서 31:15) 또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는 흡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니파이삼서 27:16)

2. 견디다라는 영어 낱말 *endure*(앤듀어)는 라틴어 어근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접두사 *en*은 "*내부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뒤의 *dure*는 동사 *durare*에서 나온 것으로, "확고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endure*는 "당신 내부에 확고해지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 뜻이 성경의 원어에 도입된 것이다.

3. 니파이일서 13:37; 또한 모사이야서 23:22; 앨마서 13:29, 36:3, 37:37, 38:5; 니파이삼서 27:21~22; 이더서 4:19; 교리와 성약 5:35, 9:14, 17:8, 75:16. 더욱 강조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이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따르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회개치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지 아니하면 저주 받으리라 하시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니파이이서 9:24; 또한 니파이이서 31:16; 몰몬서 9:29 참조)

4.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5.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교회 지역 관리 역원이었던 노먼 시 보엠 장로가 1996년 8월 17일에 물리학에서의 이 버눌리 법칙의 시연을 처음 저자에게 보여 주었다.

6. 부양의 법칙은 비행기가 날 때마다 작용한다.

7. 작자 미상, "일에 매달리라", 말일성도 애송시, 잭 엠 라이온 외 다수 편(1996년), 255~256쪽

8.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95세에 자신이 "이 생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했다.(대회 보고, 1970년 10월, 92쪽) 평생토록 충실하고 훌륭하게 봉사했던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표상이 되었다.

9. 요셉 스미스서 1:20, 22~24, 27, 58, 60~61, 74 참조.

10. 개척자들은 오하이오 주에서 미주리 주로, 다시 일리노이 주로 쫓겨났으며, 결국에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까지 이동해 갔다.

11. 초기 개척자들은 "몰몬을 적으로 간주하여 이 주에서 근절시키거나 쫓아내야 한다"(교

회 정사, 3:175)고 지시한 미주리 주지사의 명령에 따른 위협으로 미주리 주를 떠나야 했다.

12. 1887년, 미국 의회는 공동 헌장을 폐기하고 로간, 맨타이, 세인트조지 및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가장 거룩한 예배의 집인 성전을 비롯해, 교회의 모든 소유물과 기타 자산을 연방 정부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소유하도록 승인함으로써 교회의 법적 존립 자체를 말살하려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 미국 소송*, 136 U. S. 1 [1890년] 참조)

13. 디모데후서 4:7

14. 니파이삼서 27:13 참조

15. 모세서 1:39 참조

16. 요한복음 17:4; 또한 요한복음 4:34 참조

17. 마태복음 14:21, 16:9; 마가복음 6:44, 8:19; 누가복음 9:14; 요한복음 6:10 참조

18. 요한복음 6:60

19. 요한복음 6:67~69

20. 교리와 성약 42:22 참조

21. 이 말은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해왔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49쪽 참조

22. 페루 리마에서 가진 첫번째 회원 노변의 모임

23. 에베소서 5:33.

24. 합당한 사람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이 신권을 통해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84:33~48 참조)

25. 교리와 성약 132:19

26. 마가복음 4:17

27. 교리와 성약 1:38, 21:5, 68:4 참조

28. 사도행전 27:30~31; 니파이일서 18:21~23.

29.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찬송가*, 59장

30. 교리와 성약 82:10

31. 존 그린립 위티어, "모드 뮬러", 위티어 시집(1892년), 48쪽

32. 교리와 성약 14:7.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인내에 관한 개념을 신앙개조 제13조에 포함시켰다.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33. 마태복음 6:24 참조

34. 영감역, 누가복음 14:28

35. 예레미야 31:33

36. 모로나이서 10:32

37.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 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0쪽

"하나의 작은 돌"

엘레인 앨 잭 자매
최근에 해임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단순히 이 복음을 믿기만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마음이 불타야 합니다.

저는 캐나다 카드스톤에 있는 앨버타 성전 바로 근처에서 성장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기슭에 있는 이 작은 몰몬 마을에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하고 웅장한 상징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성전 안에서 제게 가장 뜻깊은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성전은 제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존 에프 앤더슨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능숙한 석공이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 하얀 화강암을 입히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1915년 정초식에서 할아버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사도의 관리하에 수석 석공으로 일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성전 헌납 전인 1923년에 저의 할아버지가 성전의 마지막 돌을 놓으셨습니다. 당시의 할아버지의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문 입구에 관석이 아니라 작은 돌이 놓였다."

오늘 저는 상호부조회 건물 정문 입구에 작은 돌을 놓았습니다.

몰몬경의 가운데에 있는 작은 돌인 옴나이서에서 아멜레카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의 구속의 능력을 얻기 바라노라. 참으로 너희는 주께로 나아와 너희 영육을 주 앞에 드리며, 쉬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라. 주가 살아계시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옴나이서 1:26)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2) 여러분의 시간, 재능, 은사, 축복 및 주님을 섬기고 그분이 바라시는 바를 모두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조심해서 그 분이 놓은 돌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저는 본부 상호부조회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한 봉사를 바칩니다.

1991년에 힝클리 대관장님의 초대로, 저는 앨버타 성전 재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의 어린 시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임이 끝나고 일어나서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31장)을 부르는 동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던 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숙한 가사에 감동 받았습니다. "천국 무리 함께 찬송 부르오니 호산나 호산나 주와 어린 양" 호산나는 기뻐서 외치는 의로운 함성이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외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동안 합창단이 웅장하게 함께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 고결한 성전 벽을 할아버지께서 세우셨던 일을 생각하니 가사가 뜻깊었습니다. "주의 전이 완성되었으니 우리의 헌납을 받아 주시옵소서."(*성가집*, 1980년, 69~76쪽)

성전을 짓고 부름을 수행하는 것에 관

한 비유는 많습니다. 우리는 맨땅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검토를 한 뒤, 다시 조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벽을 세우고, 지붕과 정원까지 덧붙입니다. 모든 행정은 과거의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건물처럼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교육을 강조하지만 범교회적인 문맹퇴치 노력을 넛붙였으며, 방문 교육을 통해 자매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에 관한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과 가족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며, 양육하고, 회생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여성들의 거룩한 성품을 존중해 왔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서로를 보살피며, 자립을 가르치고 구세주에 대해 가르치는 교회 여성들 덕분에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혼까지 바치는 이 교회의 훌륭한 여성들과 가까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분들의 돌에 제 돌을 더하며, 그것이 받아들여지길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볼 때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여성 조직인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맞았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세계 모든 대륙에 동시 중계 방송을 해서, 대만, 짐바브웨, 독일, 멕시코, 한국, 호주 및 미국의 자매들을 연결했던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 조직의 초대 회장인 엠마 스미스는 자매들에게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상호부조회 회의록, 1842년 3월 17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문서 보관소)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경축 행사는 "뭔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1842년에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20명의 여성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든 대륙과 거의 모든 나라에 약 4백 만 명의 여성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부 성전에서 일하는 남성들을 위해 셔츠를 기워 주는 일을 했던 마가쿡이라는 한 여성에 의해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이 필요했으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사라 킴볼이 천을 제공했으며, 몇 주 안에 주님의 영감을 통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정문에 조그만 물건 하나를 놓으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전세계에서 한번에 큰 돌 하나를 놓을 수 있을 만큼 선을 위한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순종하고, 충실하며, 성실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헌납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니파이의 다음 말씀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 배를 만들라. 내가 너의 백성들을 물 건너로 인도하리라."(니파이일서 17:8) 니파이는 바닷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한번도 배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신앙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야 연장을 녹여 만들어 당신께서 지시하신 대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쇠붙이를 구할 수 있겠나이까"(니파이일서 17:9)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니파이는 주님께 배를 만들어 바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직분에 부름 받았을 때 저는 니파이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두 분의 강하고 유능한 보좌인 오까자끼 자매님과 클라이드 자매님을 도구로 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단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헌신과 능력과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봉사하는 열두 분의 고귀한 여성으로 구성된 임원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모사이야서 18:12) 수행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해 전세계의 상호부조회 여성들이 기도해 주시고 선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교리와 성약 64:33) 고 하신 주님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는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저희에게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많은 신권 지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의 이해력과 신권의 권세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그 분들은 우리에게서 지지와 신앙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영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이 단호하게, 그러나 동정심을 잃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신뢰하고 그 분들도 저희를 신뢰하셨습니다.

제가 힝클리 대관장님, 몬슨 부대관장님, 파우스트 부대관장님 및 십이사도 정원회에 이야기할 때는 이 교회의 여성들을 대신해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진 말일의 예언자임을 압니다.

저는 또 제 남편 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인내와 유머 감각과 판단력과 의로운 손으로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의 네 아들도 성실하게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한번은 아들 아이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극도의 찬사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도록 오랫동안 훈련시켜 왔는데, 마침내 그대로 됐어!"

우리가 바치는 헌납에는 일의 종류와 그 일에 임하는 마음 모두가 포함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니파이삼서 9:20)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결합하여 영혼이 됩니다. 옴나이는 "영육을 주 앞에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 복음을 믿기만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마음이 불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헌납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영을 통한 노력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의 노력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상호부조회는 금세기 초에 봉사하셨던 에멀린 비 웰즈 회장님이 말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통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50년 후 벨리 스패포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 거룩한 사명의 문지방에 와 있습니다."(*상호부조회 역사*, 1842~1966년[1996], 140쪽) 오늘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성과 빛을 향해 문지방을 넘어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세기에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헌납이 매우 희망찰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그분의 계획을 도울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들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회장단은 보다 큰 목적 의식과 헌신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새로운 돌을 얹으시는 스무트 회장님과 그 분의 두 보좌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합니다. 분명히 오늘의 그 힘은, 내일의 여성들이 건물을 올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매일 매일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겸손하고, 인내심 강하고, 오래 참는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세워져 왔고, 또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자신의 헌물을 바치면서 "성도들게 많은 것 알도록 하시며"(*찬송가*, 31장)라고 노래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저의 마음은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에 대해 "호산나, 호산나, 주와 어린양"이라고 간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관리 감독

우리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헐벗고 병들고 고통 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잭 자매님과 보좌들의 노고로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구세주를 따르던 충실한 제자들은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진, 사고를 요하는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 복음 원리를 들었습니다. 거듭해서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마태복음 13:10) 하고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마태복음 3:13)

한번은 어떤 율법사가 한 가지 교리에 대해 구세주를 시험해 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예민한 율법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누가복음 10:25)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누가복음 10:26) 율법사는 율법에 인용된 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누가복음 10:27)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고 하시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누가복음 10:28)

주님을 혼동시키는 데 실패한 율법사는 당황했습니다. 교사이자 학자인 그는 오히려 자신의 질문에 직접 답하도록 요구 받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사는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누가복음 10:29) 우리는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을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구세주의 가장 통찰력 있는 비유의 말씀 하나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누가복음 10:30) 우리는 초등협회 때부터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의아해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분명히 멈춰서 도움을 줬을텐데. 분명히 나라면 그의 고통을 덜어 주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을텐데."

비유는 계속됩니다. "어떤 사마리아 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누가복음 10:33) 몰몬경에서 예언자 몰몬은 우리 시대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 받는 자

들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를 꾸미면서도, 굶주리며 궁핍하며 헐벗고 병들어 고난 당하는 자가 너희 옆을 지나쳐 가거늘 저들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느냐?"(몰몬서 8:37, 39)

모로나이는 시현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헐벗고 병들고 고통 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을만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를 보았다면 동정심이 생겼을텐데, 또는 내가 그의 비명을 들었으면 그 사마리아 인처럼 했을텐데."

비유는 계속됩니다. "[사마리아 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누가복음 10:34) 비유를 끝내신 뒤에, 구세주께서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누가복음 10:36)

그 율법사는 재빨리 자비를 보인 사람, 즉 그 사마리아에서 여행 온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고 이르셨습니다.

세상의 궁핍한 자들의 곤경을 덜어 주기 위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마리아인 가운데 몇 명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한 명의 방사선 기사와 두 명의 기술자와 한 명의 생의학 기사가 폴란드의 어느 병원에 유방 엑스선 사진 촬영 기계와 필름 처리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장비는 교회 인도 주의 지원 기금에 후하게 헌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22명의 의사들과 24명의 기술자들이 반경 50마일 이내의 병원에서 와서 기계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기계의 효용성을 목격한 폴란드 정부는 45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이상의 조기 진단으로 목숨을 구하고 많은 고통을 덜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거의 30년 동안을 전쟁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은 비참함과 빈곤을 겪었습니다. 1994년에 교회가 비상 식량을 제공한 뒤, 기본적인 식량 생산 및 가공을 보다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민들을 도와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숙련된 자원 봉사자 부부 몇 쌍이 소규모 통조림 공장과 사료 공장을 세웠습니다. 캄보디아 대학교의 협조로, 기술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현대의 사마리아인들의 비이기적인 노력으로 농업의 신세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는 옷을 데져렛 인더스트리에 후하게 보냄으로써 정규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850만 파운드가 넘는 의류가 분류되어 이를 매우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되었습니다. 1백만 톤 이상의 중고 의류가 러시아 전역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영하의 기온 지역에는 외투를,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 장갑을, 그 외 드레스, 셔츠 및 스웨터가 전달되었습니다. 한 러시아 관리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언자 앨마는 당시 굳건히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각 저들이 가진 정도에 따라,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하며 병들어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저들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앨마서 1:27) 관대함으로 번성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혹은 목마[른]…자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조금도 치우침 없이 거저 나누어 주었느니라"(앨마서 1:30)

선한 사마리아 인 정신은 전파력이 강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면 부자가 겸손해지고 가난한 자고 높아지며 둘다 성결케 됩니다.(교리와 성약 104:15~18) 주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받는 사람이 완전히 능력을 갖추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인 정신은 부모가 모범과 이론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돕고 친절하게 대하고 염려해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고 싶은 소망이 강화됩니다.

유타 주 동부 지역에는 말일성도들이 대부분인 지역 사회가 몇 곳 있습니다. 제디는 이 분위기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잘 생겼고 금발에, 나이가 열한 살입니다. 제디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며 운동에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곧 열두 살이 되어 아론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설레어 합니다. 제디의 몸은 하고 싶은 것을 대부분 할 수 없습니다. 폐에 포낭 섬유종 때문에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디의 큰 누나인 아만다는 열여섯 살의 사랑스러운 소녀로서 여러 가지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 줍니다. 아만다는 예민해서 동생이 힘들어 할 때 잘 도와주고 편하게 해줍니다. 그녀는 동생과 학교 사이의 다리 역할도 하는데, 매일 숙제를 알아 와서 동생의 공부를 도와 줍니다. 한 이웃은 "그 집에서는 정말 아만다가 제일이예요."라고 말합니다. 아만다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디는 매우 특별한 이유로 10월 연차 대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열두 살 생일 다음에 열리는 연차 대회에 손자를 데려가 주는 가족 전통 때문입니다. 제디도 그렇지만 할아버지도 거의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자 증조할머니인 93세의 훌륭한 자매님이 장막 저편에 있는 영원한 동반자와 결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네 명의 헌신적인 자녀를 키웠으며, 그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수천 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슬픔에 찬 많은 사람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희망과 격려에 찬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애통한 순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이 재능 있는 자매님이 작곡한 초등협회 노래를 부르면서 구세주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필요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많은 시간과 힘과 정을 쏟았습니다. 용감한 딸 하나는 어머니를 간호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민에 찬 봉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고 것입니다.

유타 주 북부의 한 계곡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는 노쇠한 수도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은 다른 봉사할 일이 많은 데도 정규적으로 그 수도사들의 복지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녀는 점검을 못할 때면 가장 먼저 간식 거리를 보냅니다. 그녀는 스테이크의 다른 회원들에게 하는 것처럼 수도사들의 복지도 같이 돌봅니다.

감독님들은 감독의 창고를 채울 물건을 재배하고 가공할 자원 봉사자를 부릅니다. 작년에는 거의 총 270,000 일에 해당하는 작업이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서 선반을 채우고 감독님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지 공장과 농장에서 자원으로 봉사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도 사탕무 농장에서 거의 천여 평이나 망쳐 버린 것을 보고 농장 관리자가 비명을 지르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 순이 난 것을 잡초로 착각하고 죄다 뽑아 버렸던 겁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향이나 해외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0년 7월, 4쪽)

작은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여섯 식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은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져 있으며, 그 가족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와드 복지 위원회에서 그 가족의 어려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낙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감독님들이 그 가족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새로운 제언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위원회가 주님의 창고에 있는 자원, 즉 와드 회원들의 재능과 기술을 부르면, 그 어려운 상황도 극복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당장의 필요 사항 뿐만 아니라 장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했습니다. 가능성이 현실로 되면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침울했던 분위기가 낙관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에 찬 그 가족은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위원회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미용사는 그 가족을 이발시켜 주고, 치과 의사도 자원했으며, 그 집의 어머니는 오랫만에 처음으로 주저 없이 웃음을 보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책을 읽어 줄 수 있도록 이 어머니에게 새

안경이 선물되었습니다. 한 재정 전문가는 그 가족이 예산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세 살짜리 어린 아이는 다시 한번 주님의 창고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 매우 필요했던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자신들의 생활도 변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한때 더럽고 무질서했던 그 아파트는 정돈되고 청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는 커텐이 달리고, 아버지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1년 후 이 가족은 침실이 세 개인 새 집을 마련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부상 당한 한 가족이 길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만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울부짖는 가운데 상처가 동여졌습니다. 현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가족의 영적인 생활도 치유되었습니다. 현재 이 가족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으며, 성전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들은 감독의 창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성결한 금식 헌금을 사용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께서는 우리가 "금식일과 금식 헌금의 원리가 전 세계에서 지켜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고통을 받기보다 절제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또 남을 염려하는 마음과 비이기적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52~53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끼의 식사를 금식하고 절약한 금액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 열배는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회 보고, 1974년 4월, 184쪽)

고통을 덜도록 돕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구세주로부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과부를 돌보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 주며,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아니면 교회와 무관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 행해져야 합니다."(*타임즈 앤드 시즌스*, 1842년 3월 15일, 732쪽)

우리 모두 현대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헌금을 후하게 바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 인 정신의 원리를 실천하여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할 필요성을 가슴에 영원히 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이 거룩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마태복음 6:9~13; 니파이삼서 13:9~13) 알려진 이 기도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명하셨다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태복음 6:9)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이 거룩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9절)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며, 계시입니까! 그 분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분은 "오, 하늘과 땅의 위대한 창조주시여", "언제, 어디나 계시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그의 기도를 많은 다른 방법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호칭은 위대하고 숭고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그토록 알 필요가 있으며, 알고자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어린 아이가 친아버지와 만족스럽고 안정된 관계로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올바른 느낌인데 이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했으며…"(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분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순진한 어린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를 믿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잘못 인도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아이다호 주 아일랜드 파크에 있는 그들의 오두막집을 우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현관문을 열도록 받은 열쇠가 다른 열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문과 다른 문들을 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갑자기, 그 당시 일곱 살이었던 아들 스티븐이 우리에게 현관문을 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문 안쪽에서 스티븐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기쁘고 놀랍기도 해서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름답고도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정문 계단 옆에 있는 이 큰 바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바위 밑에 열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열쇠가 거기 있었어요." 한 어린이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열쇠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 그의 어머니를 주신 것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및 친구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우리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을 진지하고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 나누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모르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십시오.(앨마서 37:47)

바로 2주 전, 나는 일본 동경에 있는 내 아파트에서 컴퓨터로 중국에 있는 한 조카와 아이다호 포카텔로에 있는 아들과 워싱턴 롱뷰에 있는 다른 조카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자 우편을 쓰는 중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사위가 우리에게 막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거기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여기 있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자 우편의 기적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며 나누고 계십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6~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만물 안에 있어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빛은 너희 눈을 뜨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그 빛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분의 메시지와 느낌을 전하시는 아주 훌륭한 통신 수단을 갖고 계십니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2~3) 그분은 그의 양들을 알고 계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요한복음 10:14~16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응답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약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니파이삼서 18:19)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 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21)

"너희는 반드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에게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 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3:17)

우리는 모세서 1장에서 이러한 강한 말씀을 읽습니다. 3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궁은 곧 나의 이름이라.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가 없음이니, 진실로 이것이 무궁이 아니냐?" 모세는 그 말씀으로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다. 같은 장 4절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느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모세서 1:4) 이 분은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궁이 곧 그의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그 분은 모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그 분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후 사탄이 모세를 유혹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탄은 모세에게 "인간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고 명했습니다.(모세서 1:12) 모세는 사탄을 보며, 주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탄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닮은 하나님의 한 아들이니라. 너를 경배할 그 영광이 어디 있느뇨?"(모세서 1:13)

모세는 자신에 관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를 상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사탄에게 떠날 것을 명했지만, 사탄은 떠나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모세는 다시 그에게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큰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며, 떠날 것을 다시 거부했습니다.(모세서 1:19 참조)

모세는 그제야 자신이 큰 문제에 봉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화가 났고,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모세는 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명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이 한 분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러자 사탄은 떨기 시작하였고, 땅도 요동하였"습니다.(모세서 1:20~21)

그 곳에는 어둡고 쓸쓸한 기운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필멸의 모세가 그런 힘에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 큰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불러 가로되, 독생자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했던 것입니다.(모세서 1:21) 모세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힘을 간청한 것입니다. 모세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능의 근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습니다. "이에 사탄이 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이를 갈더니, 거기 곧 모세 곁에서 떠나가는지라. 모세가 바라보니, 사탄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모세서 1:22)

몇 년 전, 우리 동료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인 킴은 이제 막 숫자 세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킴은 1부터 10까지만 셀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주 즐거워 킴의 할머니를 전화로 부른 후 킴이 숫자 세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 제가 숫자 세는 것을 듣고 싶으세요?" 그런 다음 그녀는 "하나, 둘, 셋" 하며 열까지 센 다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하고 말했습니다. 아마 주님도 킴이 1부터 10까지 셀 수 있는 것을 보고 미소지으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거룩한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기도나 간증이나, 말씀을 끝내는 목적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경외스럽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힘과 확신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 면에서 기도의 끝 부분이 아마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아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나는 그 거룩한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그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교회의 기존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팔을 벌려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격정해 주는 친구로서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1~32)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도우려 한다면 그들이 경험해야 할 이러한 개종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개종의 첫번째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믿겠다는 의욕이…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앨마서 32:27)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욕은 신앙, 인내, 근면, 오래참음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앨마서 32:27~41 참조) 경전에는 기적적인 개종에 관한 몇 가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기적적인 개종은 그러한 한 가지 예이며, 그가 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제게 시키실 일이 무엇이오니까"(사도행전 9:5~6) 때때로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종은 연구와 기도와 경험과 믿음을 통해 개인의 간증이 커지고, 점차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아빈아다이가 사악한 노아 왕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치려 했을 때 앨마만이 그 진리를 인식했습니다. 그런 다음 앨마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아빈아다이의 말씀을 믿는 훌륭한 신앙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개종도 앨마의 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모사이야서 17장 참조)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져다 주는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침례, 죄사함 및 성신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시간을 두고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교회 초기의 성도들이 뒤에 남겨 놓았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 그들이 태어난 곳, 그리고 많은 그들의 생활 방식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고, 여러 나라를 지나 시온으로 와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때때로 그들도 친구와 가족들을 떠나야 하며, 교회의 표준과 부합되지 않는 생활 방식이나 사교적인 접촉도 버려야만 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은 침례 받은 후, 연구와 기도와 회원들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각자 가정과 교회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매일 개인적인 성약을 굳건히 하며 간증을 키우며 더욱 개종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침례 받은 회원으로서 일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우리는 회복된 신권을 받게 됩니다. 성인 남자들은 침례 받는 즉시 아론 신권을 받게 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합당할 경우, 멜기세덱 신권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은 이러한 신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신권을 존중하고 계명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는 것은 개종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자들은 상호부조회에 속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청남 및 청녀 조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겐 초등협회가 있습니다.

계명에 따라 생활하게 되면 신권 정원회 및 보조 조직에서 부름을 받아 희생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최소한 1년간 충실히 생활하면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신성한 엔다우먼트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맺은 영원한 성약 안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오고 보호 받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성장한 후에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인봉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때에 우리의 간증은 계속 자라며, 이 간증으로 인하여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낼 때, 우리를 보호해 주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힐라맨서 5:12) 것입니다.

그림 : 프레드릭 파어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흑백 에칭. 1847년 7월에 개척자들이 들어오면서 보았을 솔트레이크 계곡.

진리를 알고 간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도록 강화시켜 줍니다. 간증이 자람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점점 더 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을 귀를 가진 준비된 사람들에게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훌륭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후, 주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재정리해야 하는 현실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 와드나 지부에서 스스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르쳐 준 선교사들을 더 이상 매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느끼면서 우리 와드나 지부에 참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9) 우리는 경전에서 씨와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앨마서 32장 참조) 우리는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씨앗을 받아들일 좋은 땅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런 땅을 제공해서 씨앗이 영양분을 받아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요한복음 15:16 참조)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만큼 강합니다. 일부는 따뜻한 우정 어린 손길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여 불행하게도 그들을 침례의 물가로 인도한 영을 잃게 됩니다. 한때 그들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이제는 하루 하루 더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로 인해 밀려나거나 일상 생활에서 잊혀집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귀하고 기쁜 일입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그처럼 클 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많은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느끼시는 것이며,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느껴서 우리가 성령을 느끼고, 침례를 받고, 간증을 얻는 기쁨을 경험하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면서 영원히 지속될 개종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결심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및 가족 생활에서 비록 바쁘고 달성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이제 방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신입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인식해야 합니다. 새로 침례 받은 회원들과 늘 가까이 하여 성전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 성전에 감으로써 우정을 돈독히 하여 영생을 향해 함께 나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에도 교회에 속한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의 개심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크게 기뻐하였고, 서로 서로 친밀하여 기쁨을 나누며 심히 즐거워하였으며…"(힐라맨서 6:3)

잠시 양을 돌보는 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몰두해 있을 때, 시간의 흐름과 현재의 상

황을 잊었습니다. 그는 그의 양들이 떠돌아 다니거나 약탈 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이제 개인적인 사색에서 깨어나 몇몇 양들이 없어져, 찾으러 나가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분히 개종된 우리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양을 모으는 커다란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인 선교사였던 암몬은 우리에게 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레이맨인 왕을 섬기기로 했고, 라모나이 왕의 양떼를 지키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배반한 무리들이 공격하여 양떼를 쫓으려 했을 때, 암몬의 동료 종들은 두려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암몬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양떼를 찾으로 가자. 분명히 양떼를 모두 모아 다시 물가로 데려오리라."(앨마서 17:31)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양떼를 모으려 하는 목자들에 관한 한 이야기로 이것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암몬은 왕과 그의 왕국을 의의 양떼와 생명수의 샘으로 다시 데려오려는 거룩한 의도를 지닌 선교사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언덕으로 흩어진 양떼들과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양떼를 모을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만을 본 보통 사람들에게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암몬은 동료들이 양떼를 다시 모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야기시킨 나쁜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왕은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을 북돋아 줄 수 있고, 그들이 의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관해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존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팔을 벌려 따뜻하게 맞아 주는 것이 요구됩니다. 같은 이치로 새로운 회원들도 교회에 와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별, 나이, 결혼 상태, 경제적인 지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개종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나누는 데 우리의 삶을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편리한 때에 내 양을 돌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지 않을 때 내 양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 남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곁에 가까이 두고, 안전하게 인도하십시오. 의로운 선택을 통한 안전은 그들이 영생을 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각 회원의 목표는 "와서 날 좇으라"(누가복음 18:22)는 주님의 진지한 권고를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이 배운 많은 교훈과 유사합니다 신약전서에서 선임 사도인 베드로가 배운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는 우리 또한 우리의 개종 과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선임 사도였지만 자신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 위에서 한 어부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변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가에서 뛰어 내려 구세주를 영접했으며, 그가 얼마나 깊게 개종했는가를 알아보는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워야만 하듯이 베드로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17)라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한복음 21:17)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은 개종 후 이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요한복음 21:3) 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이웃이 고통 받거나 두려움에 떨며 우정 어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마태복음 26:36~46 참조)

베드로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배움을 경험을 할 때, 주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5~16)라고 대답했던 것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진정 이해하

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은 선교 사업과 이제 막 성도의 가족에 들어온 새로 침례 받은 회원들을 돌보는 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일은 성숙한 회원들을 돌보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다시 무리에 들도록 하는 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대회 보고, 4월 1959년 122쪽)라는 한 예언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회원들이 우정 증진자가 되어 모든 형제 자매 즉 활동 회원이나, 새로운 회원 및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 모두를 도와주고 돌보는 일도 그만큼 시급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신권회 모임에서 우리는 힝클리 대관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회원에 관해 간청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회원을 돌볼 것을 시급히 간청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위대한 노력에 동참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들이 회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줍시다. 이것은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의 일입니다. 이것은 감독단,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청남, 청녀 및 초등협회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잃어버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둠 속 어느 곳에 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흔 아홉을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언자의 간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다음과 같기를 기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친구 찾게 도와주소서
성령의 빛으로 영광의 길 비추어 주옵소서
길 잃은 어린 양 찾아 보호하게 하소서
목자되어 어린 양 먹이게 하옵소서
("영감으로 가르치는 축복", *찬송가*, 168장)

우리가 예언자의 간청을 따르고, 돌이켜 본 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하나님께서 열쇠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작은 계시의 음성에 귀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회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 곳에 계셨습니다. 음악은 영감적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좀더 훌륭하게 행동하겠다는 소망을 갖도록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총관리 역원들과 지역 관리 역원 및 본부 역원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보지만 그러려면 약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회와 큰 도전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이 우리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귀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족하거나 다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코 방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한 곳에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고 성취할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작은 계시의 음성에 귀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는 잘못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행하려는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말씀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좋은 시민이 됩시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됩시다. 모든 사람이 선함을 인식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 받을 요소나 편협성을 치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실재를 들어내 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대속 행위의 사실을 의심없이 선언합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며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승영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선언 중 강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대회에서 해임되신 분들께, 여러분이 행하신 지난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수고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지지 받은 분들께는, 여러분이 행하실 사업에서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해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척사를 통해 브리감 영과 몇몇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했으며, 팡파레나 찬사를 받지 않고도 매일 매일 사업을 수행했던 알려지지 않고, 인정 받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영원한 보상이 덜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기여를 합니다. 그 기여가 대업을 세우는 데 보태집니다. 여러분의 기여는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가복음 9:35)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가족의 일원입니다. 각자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는 행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디모데후서 4:7)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보상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에 대해 사랑과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미소짓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구속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위대하고 훌륭한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청녀 대회
1997년 3월 29일

모든 발자취에서 신앙을 발견함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가 흐른 후에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여러분이 한 놀라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개척자로 불리울 것입니다.

안나 마틸다 앤더슨은 1880년대에 스웨덴에 살았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조롱했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미국으로 가서 유타 주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나는 겨우 나이 열한 살에 여동생이다와 함께 돈을 벌어서 나머지 가족을 데려가기 위하여 먼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항해해 간 다음 기차로 유타 주 오그덴으로 갔는데, 그 곳에서 이다는 아이다호에 있는 그녀의 후원자에게 고용되어 포장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안나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계속 달리는 열차에 그야말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할 줄 몰랐으며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안나가 그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으며 두려웠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차는 정오가 되기 바로 직전에 어두컴컴한 리오 그란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나를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친척이 그 곳에 없었습니다. 안나는 정거장이 점점 한산해지자 두려움에 떨며 서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한 독일 가족과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너무나 짙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 때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네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말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안나는 그녀의 여행 가방을 옆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간청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독일 가족이 안나에게 자기네들을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울면서 그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템플 스퀘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녀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황급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 가족을 흘끗 쳐다보고는 계속 재촉해 갔습니다. 안나가 그 여인의 누군가를 찾는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어린 소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안나도 그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일 년 먼저 스웨덴을 떠났던 안나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안나의 교사는 안나를 꼭 껴안으면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안나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데 자꾸 자꾸 잠이 깨는 것 아니겠니?… 도착하는 이민자들의 모습이 내 마음 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는 영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때 나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성전에 도착했는지 가서 알아보라는 영의 자극을 느꼈어."(안나 마틸다 앤더슨의 일지, 저자의 소유에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칠흑 같은 밤에 빛의 천사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보내졌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부탁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제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은 제가 *아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안나는 자신이 어떻게 그 놀라운 여행을 홀로 해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은 그녀에게 무언가 더 나은 것이 틀림없이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머니 없이 홀로 대양을 건너고, 그녀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전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향해 갈 수 있는 용기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안나는 뒤에 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남기면서 미지의 세계를 통과해 갔습니다. 안나의 신앙으로 가득 찬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 중의 하나가 제 남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안나는 그의 할머니입니다.

안나가 한 일은 무서우리 만큼 놀라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것을 몰랐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나중에 올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내었습니다. 개척자는 의를 옹호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안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나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열성에서,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내 신앙의 여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길이 대양을 건너거나 텅빈 기차역에서 홀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길이든지간에, 그 길은 모든 발자취에서 신앙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가 흐른 후에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여러분이 한 놀라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개척자로 불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나처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기 개척자 경험을 조명하는 다른 젊은 여성들의 생애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루스 메이 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일곱 번째 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찬 이웃들을 피해야겠다는 구실로 우리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시온으로 감: 몰몬 트레일의 젊은 개척자들의 실제 이야기* [1994년], 수잔 아링톤 메드슨에서, 30쪽) 개척자 정신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렛 게이 클러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대대에는 여러 명의 매우 좋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아름답고 지적이며, 심지어는 결코 전에 비난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상냥함을 제가 지니고 있다는 그런 사랑스러운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시온으로 감*, 144쪽) 여러분이 상냥하고 정답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마가렛 맥닐 밸러드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저는 여행 길의 대부분을 제 동생 제임스를 등에 업고, 소를 몰며 걸어서 대평원을 횡단하였습니다." (*시온으로 감*, 126쪽) 여러분 중 대다수 또한 사랑으로, 또 힘으로 여러분의 동생을 돌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수잔 노블 그랜트가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오, 어린이 여러분, 이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련의 혹독한 날들 동안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방문하셔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셨다고 요셉 스미스가 선언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간증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죽은 후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이 간증을 여러분이 해주기를 저는 원합니다."(*시온으로 감*, 98쪽) 얼마나 훌륭한 유산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역시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일지에 쓰는 이야기와 아주 다르게 들립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나가 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매일 매일 하는 용기 있는 선택으로 신앙을 보여 줍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현대의 개척자들에게 몇 가지 참으로 훌륭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빛의 가장자리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다가 어둠 속으로 몇 발자국 들어가게 되면 그 빛이 나타나서 여러분 앞을 밝혀 주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루실 시 테이트, *보이드 케이 패커*: 탑 위의 파수꾼에서 보이드 케이 패커가 인용) 우리는 신앙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나의 주일학교 교사처럼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에는 개척자 정신으로부터 힘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거울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강하고 용기 있는 단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존재를 볼 것입니다. 개척자. 그 개척자 정신을 꼭 잡으십시오. 안나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라올 길을 보여 주면서 용감하게 먼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발자취에서 항상 신앙을 발견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인내로 버티며 계속 걸어 가십시오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인 시온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야 할 것입니다.

"개척자 어린이들은 매일 걸을 때 노래했다"("개척자 어린이", *어린이 노래책*, 141쪽) 저는 개척자들을 생각할 때, 비극적인 장면들이 제 마음 속에 떠오릅니다. 심한 눈보라 속의 손수레, 질병, 동상에 걸린 발, 굶주린 배 그리고 얕게 패인 무덤 등.

그러나, 제가 그 기념비적인 불후의 여행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 때, 저는 그러한 실제로 있었던 극적인 장면들과 함께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행은 꽤 판에 박힌 생활이었다는 데 수긍이 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들은 걷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개척자들은 매일 아침 천막을 걷은 후, 곧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이고, 불을 지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을 위한 도시락을 싸고, 수리 작업을 하고, 마소를 잡아 매고, 마차에 짐을 다시 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약 6마일을 걷고 나서 잠시 멈추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다시 모여 오후 6시 경까지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소를 풀어 놓고 물을 먹이고 수리 작업을 하고 부싯깃을 모아 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일지에 몇 줄 적고 때때로 음악을 조금 즐기고 기도하고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느린 황소에 맞춰 모든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마차 뒤에 쳐지지 않기 위하여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날에는, (언제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개척자들이 약 15마일을 여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마일을 채 여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인 1,300마일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거리입니까!

윈터 쿼터스 묘지에 있는 청동 소벽(아바드 페어뱅콴 조각)에 쓰여진 한 기록은 솔트레이크 계곡까지의 먼 길을 걸어갈 때 포장 마차 속에 손을 넣고 간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그 어머니는 그녀의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마차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개척자들은 앞으로 걸어갈 때조차도 서로 돕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현재에 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모든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당장 영웅적인 행위와 용기를 요구하는 극적인 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은 오히려 우리를 소모시켜서 쉽게 실망하기 쉬운 상태에 방치해 두는 매일의 일과와 단조로운 일로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일하고 밤이 되면 침대에 있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인 우리의 시온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앞으로 걸어가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닙니다. 개척자의 꾸준함, 이 모든 평범하고, 진부하고, 힘든 일 그리고 기꺼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는 그들의 마음, 약속의 땅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보다 눈에 띄는 두드러진 용기의 행동만큼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그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고 계속 의심없이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빗고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영웅적인 개척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숙제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이 숙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은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공과반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영웅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되풀이해서 하는 설거지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피아노를 연습하는 일이? 혹은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여러분은 이 여행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매일 기도하고 경전 읽기를 쉬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꿋꿋함과 믿음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는 일이 장엄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항상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고, 작고, 때때로 평범하고 흔히 있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단계입니다"("진정한 위대성", *엔사인*, 1980년 5월 20쪽)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우리가 한 하루의 노동과의 교환으로 즉시 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생활의 평범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즉 일정하고

꾸준한 진보의 리듬에 열중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마차 안에 손을 넣은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뻗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이 낮 동안에 성취한 일들을 그려 보십시오. 완성한 일이나 부분적으로 완성한 일에서 오는 만족감을 여러분 자신이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한 주목할 만한 개척자들만이 기꺼이 앞으로 계속 전진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노래를 *부르며 걷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일을 할 때 즐겁게 합니까? 글쎄요, 아마도 매일 매 순간이 즐거울 수는 없겠지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슬프거나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과 노함 속에 빠지는 것을 자제하려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우리의 사무실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열네 살인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오랫동안 열네 살이었으면 합니다. 열네 살은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짧은 몇 문장이 나의 하루를 밝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잠언 17:22)

에녹의 도시 백성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선해서 그 도시 전체가 하늘로 들리워졌다고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때가 지나매"(모세서 7:21) 시온의 도시가 하늘로 들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개척자들과 같이, 바로 여러분과 나와 같이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과정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인다라 호랑나비는 자연의 가장 화려한 표본 중의 하나입니다. 실험실의 과학자들은 그 나비의 일생의 주기를 주의 깊게 연대기로 적었습니다. 이 나비는 먹고 자랄 식물의 아주 적당한 자리에 알을 낳습니다. 닷새 안에 그 알은 깨어나 노랑색-오렌지 색의 점박이 검은 애벌레로 자랍니다. 그 애벌레는 성숙하여 애벌레 자신의 번데기를 만듭니다. 대부분은 2년 후에 번데기에서 빠져 나오는데, 일부는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관찰'인데 7년 동안이나 번데기 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있다가 갑자기 몇 시간 안에 한때의 점박이 애벌레가 화려한 검은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토드 스타우트, "유타 주의 네 가지 다양한 파필로 인드라", *유타 나비목 연구지*, 1997년 2월호 6쪽) 이 애벌레는 몇 시간 동안에, 아니면 7년 동안에 나비가 되었습니까?

인다라 호랑나비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관찰자들은 기꺼이 그들의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서 시간을 바칩니다.

이것에 대한 말은 "그냥 계속 버텨!"입니다.

제가 칼라일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새로 온 미숙한 꿀벌 반원이었던 그녀의 세계에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느낌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짧은 비디오 단편이 보여짐]

"변화는 저에게 항상 너무나 힘듭니다. 저의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걱정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거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슬픈지 어쩐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혼란에 빠져 있는지 어쩐지 혹은 친구라도 있는지 어쩐지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안 계시며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993년 유타 크레스트우드 케이스빌 스테이크 케이스빌 제18와드, 칼리 닐슨이 인터뷰한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이 소녀의 이름은 칼라일이고 현재 열여섯 살입니다.

"제가 열두 살 때의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당시에 그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생각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들으니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마술같은 해결책을 원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선해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열두 살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저는 경전을 읽고 교회에 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는 매우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전에서 대답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교회에서 공과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칼리 닐슨 자매와 함께 있는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저의 아버지는 벽에 다음과 같은 격언을 걸어 놓았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윌리암 페더] 저는 제가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에게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때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대중 가요와 영화는 사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어차피 모든 것이 일시적이므로 포기해야 한다고 믿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사는 매일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고양시키고 우리를 계속 격려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계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여행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서로를 대단히 염려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실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함께 있는 친구

크리스틴 배너 자매
센터빌 유타 스테이크, 패리쉬 캐년 와드

여러분이 여러분의 와드나 학교에서 유일한 청녀인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옆에 수 천명의 다른 청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와 같이, 저도 신앙을 행사하여야만 했으며 제 생활에서 개척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저는 처음 실질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선생님이 우리 반에 와서 아주 '특별한' 소녀가 곧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니가 온 첫날에 저는 제가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장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저의 주변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불안했지만, 저는 제가 그녀의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지의 세계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방과 후에 제니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약간 걱정이 되고 불안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매우 친절했고 제가 제니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곧 저는 항상 제니와 함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저의 바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게에 가고 그녀의 트램폴린을 갖고 놀고 늦잠도 잤습니다. 저는 제니의 신체적인 장애를 보충해 주었고, 제니는 저의 영적인 부족함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제니는 그리스도 같은 사랑과 용서의 훌륭한 모범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도록 서로 서로 돕고 있었다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저는 개척자가 되는 것의 또 다른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많았는데, 그 친구들 중 많은 친구가 제니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결코 제니에게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항상 제니와 저의 다른 친구들 사이에 있는 어떤 거리를 느꼈습니다. 확실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힘든 일일지라도, 저는 저의 다른 친구들이 제니를 알게 되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만간에 저의 다른 친구들이 제니와 더욱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는 여전히 제니와 친구입니다. 제니는 저와 똑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저는 거의 매일 그녀와 만납니다. 저는 제니와 함께 교실을 여기 저기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옳은 일을 할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개척자들처럼 우리도 모두 우리의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참으로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의 수천 명의 용감한 자매들이 저와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그 사실은 이 위대한 사업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와드나 학교에서 유일한 청녀인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옆에 수천 명의 다른 청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이토록 위험한 말일에 내내 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과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마그나와 컨스 지역 청녀 합창단 참여자들이 본부 청녀 대회에서 수화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의로운 선택

포노 라바타이 자매
솔트레이크 리버사이드 스테이크, 센터 제3와드

"너의 결정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는 너를 많은 불행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라."라고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왜 하필 나지?"라고 제 자신에게 물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세미나리 반에서 한 소녀가 신앙의 기회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너는 기회에서 어려움을 발견하니, 혹은 어려움에서 기회를 발견하니?"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사모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섬과 친구들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고등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자 농구 팀 선수로 뛰었습니다. 저는 해낸 것입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농구 경기장에서 뛰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득점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냈을 때, 행복감에 젖게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저는 팀의 선수였고 방과 후에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리가 또한 방과 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미나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2학기 동안 내내 세미나리에 결석했고 세미나리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세미나리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세미나리 교사가 저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포노,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나는 너에게 그저 조언만 할 수 있을 뿐이야.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너의 결정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는 너를 많은 불행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 주일 동안 생각했고 마침내 저는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구를 중단하고 세미나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미나리보다 먼저 농구를 선택한다면 매우 슬프게 될 것이고 세미나리 졸업식에서 창피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졸업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졸업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불행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의 우선 순위를 똑바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농구를 대단히 좋아할지라도, 먼저 해야할 것을 먼저 해야합니다. 저는 내년에 농구 팀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시간표를 계획할 때, 저는 연습하기 위하여 또다시 세미나리를 그만 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막 세미나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의 교사는 훌륭하고 저의 반은 재미있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의 모국어로 저의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바타이 자매는 그때 사모아어로 이택릴체의 내용을 말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압니다. 이 교회의 교리는 참됩니다. 저는 이 청녀 프로그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도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복음은 저의 생활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곳에 있음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

알렉산드라 헤르난데스 자매
솔트레이크 이민 스테이크, 페더럴 하이츠 와드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저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들은 항상 저에게 복음의 훌륭한 원리를 가르치시며 보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고등 학교 시절 동안 많이 변하였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어 보이고 더 쉽게 보이는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저의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교회 표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바람직하지 못한 파티에 가고 심지어 이따금 나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저의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저는 경전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를 얻는 것이었고, 저는 파티에 가고 친구들처럼 옷을 입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허전함을 느꼈고 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꾸지람이 무서워서 항상 부모님께 숨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가 항상 저에게 제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친구들을 따르고 인기를 얻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특별히 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은 9학년 4학기 때였습니다. 성찬식에서 하는 연사들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어서 저는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에 대하여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연사들에게 저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변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그때였고 저의 친구들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이 그때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후회를 했고 실제로 저의 부모님이 항상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저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달라지고 싶어서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에 경험으로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에 대한 저의 기분이 나아져 갔습니다. 매일 경전 읽는 것이 때때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가치 있는 노력을 그냥 하려고만 하였을 때조차도,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몰몬경을 처음 다 읽었을 때, 저는 부모님이 교회에 대하여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월계반 프로그램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선행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저에게 찾아온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메달을 받았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것은 목걸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합당성을 나타냈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를 제가 계속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와 저의 가치를 앎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런 기쁨은 학교에서 인기를 얻음으로써 받는 느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쯤 아마도 저의 중학교에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알고 또한 그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아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유혹에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길에서 만나는 도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힝클리 대관장님이 예언자인 것과 똑같이 요셉 스미스가 참된 예언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현대의 개척자들

재닛 헤일즈 베컴 회장
본부 청녀 회장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걷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뗄 때마다 신앙을 지니고 가야 합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어린 세 명의 개척자들과 이 세대의 개척자들인 여러분 각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개척자들은 모든 발자취에서 과거의 개척자들과 똑같은 신앙을 지녀야만 합니다. 저는 용기와 의로움의 행위를 통해 길을 인도하는 청녀들을 볼 때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모범으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개척자가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12)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꿀벌반이든, 장미반이든 혹은 월계반이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 즉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려는 헌신도 모든 세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녀들 또한 종종 앞서 간 개척자만큼 맞서 헤쳐나가기에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개척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고난을 헤쳐나갔는지 모른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 대하여 똑같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발걸음을 걷는 용기가 전에 어떤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첫 발걸음은 침례입니다. 리앤이 몰몬경을 읽고 몰몬경에 대하여 기도하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을 때 그녀는 15살이었습니다. 리앤은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리앤과 선교사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리앤의 어머니가 허락한 바로 그날 리앤은 침례 받았습니다. 리앤의 친구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녀를 조롱했고 그녀를 저버렸습니다. 리앤은 종교계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앤은 주님께 충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리앤은 영원한 관점을 이해했고, 마침내 그녀는 성전에서 의로운 젊은이와 결혼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리앤의 어머니도 마침내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카라도 그녀의 가족 중에서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카라는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 출신입니다. 카라의 여덟 번째 생일이 지나갔지만 카라는 침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라는 12살이 되었을 때, 충실한 개척자들의 용기와 똑같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가서 침례 받아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카라는 성전에서 결혼하였고, 그녀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개척자적인 힘과 자신의 고결함과 자신의 신앙을 하나 하나 서서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얼마나 위대한 개척자의 유산입니까!

로키 산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희생을 했던 초기 개척자들과 똑같이, 리앤, 카라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같은 현대의 개척자들 또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가는 여행 길에 있습니다. (이사야 2:2) 예언자 이사야는 말일의 성전을 그렇게 지칭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신성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곳이 우리가 여기 지상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신성한 성약을 맺을 때, 그분은 우리가 다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가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할 때, 여러분의 모범이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을 개척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척자로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발걸음은 여러분을 방황으로 인도할 길에 있는 군중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개척자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인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앨리슨이라는 한 젊은 여성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모범이 된 한 친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앨리슨과 그녀의 친구들은 험담을 그쳤습니다.

라헬이 십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친구들이 점점 더 불경한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헬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반대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경한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모범을 통해서 그녀는 현

대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르는 꿀벌반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참석할 모든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그녀의 반에서 다른 소녀들의 좋은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마약과 폭력이 큰 문제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계명을 지키기로 선택했고, 옳은 일을 행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다니엘르는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청녀, 멜린다는 중학생인데, 상점가에서 두 명의 소년들이 멜린다와 그녀의 친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멜린다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지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소년들에게 자신과 멜린다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들이 그들을 놀렸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구]는 꼭 개척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합니다.… 말일성도 개척자들이 저를 해의 왕국으로 가는 길에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멜린다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청녀들 중 대다수의 청녀들이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반드시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는 한 무리의 청녀에 대하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의 일부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음 안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의 일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활동 회원입니다. 큰 도시에 사는 어떤 청녀는 성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혼자서 버스를 세 번 갈아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강함과 용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께 봉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 (교리와 성약 84:88)

우리는 여러분 청녀들 중 몇 사람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개척자들의 고결한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의 일원, 즉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나 할아버지, 언니나 오빠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흔히 여러분의 지도자들, 그들이 여러분의 고문이든, 여러분의 캠프 지도자든, 혹은 여러분의 감독이든, 그들을 개척자로 생각합니다.

한 젊은 자매는 "저는 저의 현대의 개척자 어머니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녀의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의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말일성도 친척과 어느 여름을 함께 지낸 후 15살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일했으며,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 생활의 축복을 가져다 준 헌신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스탠드에 앉아 계신 우리의 신권 지도자들은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입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은 분명히 그들을 개척자로 생각합니다. 타린이라는 한 젊은 여성은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녀의 인생에서 개척자리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험난해서 그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항상 충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개척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오늘 밤 대관장단의 일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에 영향을 준 오늘날의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제가 본부 청녀 회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몬슨 부대관장님이 저에게 "청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몹시 주시고 싶어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들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확실히 안전하게 디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청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오빠는 [그가 데이트를 시작하였을 때]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데이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쌍쌍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에서 살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높은 표준을 유지하고 좋은 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하여 매우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신중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저를 감동시켜서 제가 데이트를 시작할 때 똑같이 하도록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초기 개척자들을 기억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척자인 우리 각자는 똑같은 성품과 결의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걷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뗄 때마다 신앙을 지니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스테파니라는 한 청녀는 개척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평원을 걸어서 횡단하여 마침내 로키 산맥에서 시온을 찾은 개척자들처럼, 저도 의롭게 산다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해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매님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용기와 결의가 여러분을 "여호와의 전의 산", 즉 "거룩한 성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청녀 지도자 지침서* [1995년], 4쪽)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미래의 세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람들, 단지 여러분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또 그들의 자녀를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 청녀들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청녀들이 의롭고 용감하게 우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행하라", *영문 찬송가*, 255장) 청녀 가치관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올 길을 보여 주며, 가는 길이 험난할 때 서로 돕고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이 세대의 개척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여러 해 전 제가 청녀 캠프에 참석하고 있었을 때, 저는 어느 이른 아침에 청녀들이 그들의 신성한 숲이라고 불렀던 숲 속에서 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때, 저에게 계속 남아 있을 훌륭한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스러운 자연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 여러분의 잠재력을 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시도 비울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기울이십시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12) 이 세대의 개척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영생의 길에 계속 남아 있게 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모두가 개척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사랑스런 청녀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개척자 태버내클 밖의 전세계 대다수 지역의 예배당이나 기타 여러 장소에 수천 명의 청녀들이 함께 모여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지도자들께서는 오늘 밤 매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들은 이러한 것이 자매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 준비에 힘쓰신 분들과 대회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헨리 워드워즈 롱펠로우는 그의 탁월한 명시에서 젊음과 미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참으로 아름답도다! 찬란히 빛나는도다!
환상으로, 염원으로, 꿈으로!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는 동화책
소녀는 여주인공, 남자는 친구이구나!

(헨리 워드워즈 롱펠로우, "모리투리 살루타무스" *롱펠로우의 시 전작집*, 1922년, 311쪽)

1942년 6월 2일에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정결한 젊은이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또한 얼마나 천사와 같이 고결한 존재입니까. 이러한 젊은이는 이곳에서 형언하지 못할 기쁨을 맛봄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한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이 르우벤 클라크, 제112차 연차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솔트레이크시티, 1942년 4월 6일, 1942년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2년 5월호, 273쪽)

우리는 1847년에 대평원을 가로질러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갔던 개척자들의 여행과 그 개척자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150주년을 기념하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개척자 주제가 제시되자, 이미 예상했던 대로, 제각기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대개 선조 가운데는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인 분들을 볼 수 있는데, 타인에 앞서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는 개척자의 의의에 부합되는 삶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옥스포드 영영 사전, "개척자(pioneer)"라는 단어를 보라).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는 새롭게 찾은 신앙의 나팔 소리에 응하고자 숭고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저의 두 증조부님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러한 부류에 속한 분들입니다. 깁슨과 세실리아 샵 콘디는 스코틀랜드의 클락마난에 사셨습니다. 그 가족들은 친구들과 친척들로 가득한 마을에서 탄

광업에 종사하며 상당히 안락한 주택 지구에서 화평한 나날을 보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온 선교사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은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개심을 하였습니다. 시온으로 여행하라는 부름을 듣고서, 그들은 그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처분하여 거대한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한 항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담은 조그마한 상자를 들고서 다섯 자녀들과 함께 출항을 기다리는 배에 올라 탔습니다. 험난한 바다에 시달리며 8주에 걸쳐 3,000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항해하는 동안 몸이 몹시 상했습니다. 형편없는 음식과 불충분한 물, 도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밤낮으로 바다 밖에는 볼 것이 없는 기나긴 8주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영혼까지 괴롭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아들 나다니엘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 증조부모님도 여러분의 부모님 못지 않게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감겼을 때, 증조부모들의 마음은 산산이 쪼개졌습니다. 더욱 그 분들을 비통하게 한 것은 바다의 법에 따라 아들의 주검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은 철심을 매단 천에 싸여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아들의 주검을 뒤로 남기고 떠나는 뱃전에서, 그들 부모는 상처 받은 마음에 오는 무시무시한 타격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로 깁슨 콘디와 그의 훌륭한 아내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이 조직하고 이끌었던 1847년의 첫번째 여행을 역사 학자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편의 서사시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몰몬 개척자들이 벙이나 기아 또는 추위나 더위에 노출됨에 따라 질고를 겪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차나 몇 마리의 마소마저 없어서 실제로 1,300마일이나 되는 길을 손수레를 끌거나 밀면서 걸어서 대평원과 산맥들을 건넌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자, 모든 사람의 마음은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진 맥진한 몸을 추스려 얼마 간의 새로운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켁켁묵은 먼지가 지나간 시간을 느끼게 하는 어느 개척자의 일지에서 우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향한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겸손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주지로 하나님께 헌납했습니다."(에라투스 스노우, "유타 개척자에 관한 설교", *유타 개척자* 중에서, 1880년, 46쪽)

우리는 감히 믿기지 않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분들의 이름을 칭송하며 그 분들의 희생을 가슴 속 깊이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개척사들의 놀라운 경험담들이 있습니까? 미래의 세대가 우리의 노고와 모범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보겠습니까? 청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용기와 신앙과 사랑과 결심의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느끼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래의 다른 친구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실린 권고입니다. "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잠언 4:26)

저는 젊은이들이 간증의 권세와 힘을 올바로 인식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의 자유가 박탈 당한 위험한 정황 속에서, 프라하에서 열린 한 영감에 찬 대회에서, 저는 올가라는 어느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25세였는데, 지난 2년동안 16명이나 되는 자기 또래의 젊은 남녀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본 저는 진정 복음 가운데 개심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코슬로바키아 교회의 초석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실됨과 그에 대한 간증을 모두 올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가 기꺼이 나눈 간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자, 그녀는 "오, 몬슨 형제님, 저는 지금 14명의 다른 사람들과 이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14명 중의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격려할 때 그녀의 눈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마가복음 2:3)

사랑스런 청녀 여러분, 우리는 정녕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선행

을 행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가져오며, 그들에게 이 환난의 세상을 극복하며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이미 팔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십대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두 살 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진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발랄하고, 아름다우며, 확신과 신앙을 지니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극도로 암울하던 시기, 마치 잔혹한 미래만이 손짓하는 듯한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11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뒤에도 여러 달 동안 화학 요법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청녀 반원들과 함께 계획해 왔던 팀파노고스 동굴로의 도보 여행은 이제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빼고 하이킹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목이 메였고 실망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소녀들은 결연한 목소리로 "아니야 제이미, 우리는 너와 함께 갈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걸을 수 없어" 하고 괴로운 목소리로 제이미가 대답했습니다.

"제이미야,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정상까지 데려다 줄께!" 하고 그들이 제안했습니다.

그 하이킹은 지금은 추억 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인 제임스 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시네. 우리 인생에서는 12월에도 6월의 장미를 가질 수 있네." 앞의 어린 소녀들은 그 추억 어린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낙의 미소를 머금고 흡족한 마음으로 내려다 보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제이미는 피아노와 성악과 운동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메이크 어 위시 재단의 간부이자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감을 받기 위해 경전을 읽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오라"(요한복음 7:37) "… 와서 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9)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여섯 아이의 어머니인 루트 포슨 자매님은 생명이 위태로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남편과 세 아들과 세 딸은 모두 병원에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가족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포슨 자매를 잘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가족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 한 명이 가족 전체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께서 깨어나 손을 뻗쳤을 때 그 곳에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의 미소를 엄마가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엄마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사랑을 엄마가 느끼시기를 바래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출애굽기 20:12)

유타 클락슨 묘지에, 몰몬경의 세 목격자 중의 한 사람인 마틴 해리스가 묻혀 있습니다. 그의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기념비 뒤에는 다른 사람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 중 한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빛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였던 음성이 잠잠해졌습니다. 결코 다시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매 여러분, 가정의 빛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 생각할 시간이며, 감사할 시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에 필수적인 것은 "친구를 주의 깊게 선택하라."는 권고입니다. 교회의 선정된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우리는 가장 의미심장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전에서 결혼한 친구들을 둔 젊은이들은 보통 성전에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결혼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영향력은 부모의 권고나 교실 강좌 또는 성전에 근접해 있는 것보다도 더 비중 있게 나타납니다.

저는 청녀 지도자들의 대다수가 여기에 있거나 아주 많은 곳에서 이 모임을 관람하고 계시거나 청취하고 계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소년단 지도자들을 위해 쓰여진 유명한 시 한 편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가 여러분과 여러 청녀들에게도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홀로 교차로에 서 있었네.
태양 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치네.
그녀는 미지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네.
고귀한 경주를 시작하려 하네.
하지만 길은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뻗어 있네.
소녀는 어떤 길이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하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을 아래로 이끄는 길을 택하였네.
경주에 지고 승리자의 관을 잃어버렸네.
그녀는 마침내 분노에 찬 올가미에 걸렸다네.
아무도 갈림길에 서 있지 않았기에.
그녀에게 보다 좋은 길을 보여 주기 위해.
다음날 바로 그 자리에서
큰 희망을 가진 한 소녀가 그 곳에 서 있었네.
그녀 또한 고귀한 경주에 참여했네.
그녀 또한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섰네.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이 그 곳에 있어
어느 길로 가야할지 알려 주었네.
그래서 그녀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
경주에 이기고 승리의 월계관을 썼네.
교차로에 누군가 서 있어
그녀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 주었기에
그녀는 오늘도 당당히 길을 걸어가네.

(말일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모음집, 잭 엠 리온과 그 외 다수 편집, "옛

친구(My chum)"에서 인용함)

고매한 청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갈림길을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기념관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너무나 짧으며, 무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작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시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념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영혼의 복리와 관계된 위대하고 영원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고 진실하다면 언제나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신앙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한 교사와 그 반의 젊은 여성들과의 유대를 그리는 한 인간적인 드라마에 깊은 영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녀 꿀벌반 첫해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빌어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 열두 번째 생일이 되기 몇 달 전에 언니와 함께 쓰는 방의 옷장에서 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의 교사가 되어 기쁘구나. 같이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 쪽지에는 "바우어 디"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 모든 소녀들이 바우어 디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녀와 함께 교회에서 앉기를 원했고, 매주 수요일 상호 향상 모임이 끝난 후에 그녀와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돌이켜 보면서, 저는 지금도 바우어 디와 처음 실제로 만난 일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어 놀랍습니다. 그 첫날 밤, 청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제가 와드 건물의 앞문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가 나를 맞이하려고 그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항상 그녀의 얼굴 모습을 평범한 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반에 오게 되어 기쁘구나. 아주 멋진 시간을 가져보자.'

"그 후 몇 주 안 되어, 저도 다른 소녀들과 함께 바우어 디의 팬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녀의 인기를 알아보고자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지난 후에야, 이해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참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우어 디는 신장염이라는 질병으로 고생했으며, 그것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투석 치료도 되지 못하고 흔히 신장 이식으로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우어 디에게는 아무런 치료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7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 소녀들은 묘지의 무덤가에 침통하게 둘러 서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매년 추도일마다 바우어 디의 안식처를 찾고, 그녀에 대한 추억만은 결코 영원히 잊지 말자고 맹세했습니다."

청녀들의 교사였던 바우어 디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으나, 맹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중 한 청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우어 디 선생님이 나와 함께 우리들 각자와 함께 하시네." 그녀도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그녀의 교훈을 나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헨리 브룩스 아담스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선생님은 영원히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헨리 브룩스 아담스의 교육: 자서전(1942년), 280쪽

오늘 밤, 저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사업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경전의 구절을 말씀드리며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몰몬경의 앨마서에 나오는 경전 구절입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의의 길에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음이며,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이라."(앨마서 7:19)

다른 사람들에게 좇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자 먼저 나아간 고귀한 모든 개척자들에게 저는 간청합니다. "계속 해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7년 4월 5~6일에 개최된
제167차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함

고든 비 힝클릭 대관장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께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앞서 가셔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이 교회의 기본적인 영원한 진리는 가족이 합당하다면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부모, 조부모 및 영원한 동반자와 자녀, 그리고 후손이 없는 하늘은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여러분은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개인적이면서도 유용한 것임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 조차도 속죄에 대한 이해는 일상 생활에서 시급하고 매우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감독, 지부장, 그리고 보좌들의 직분은 이 교회에서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이러한 직책에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존경하며, 그분의 영으로 영감을 받습니다.…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이분들에게 좀더 많은 배려를 해줍시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독생자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기본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교회를 완전하게 회복하셨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오는 기쁨보다 크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부나 재물도, 어떤 명예나 인정도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느끼는 주님의 영의 따뜻함과 평안을 통해 얻는 만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 받으며, 주님의 가르침에 담대하게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회복된 충만한 복음과 구세주의 가르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의 큰 위험 속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세주께서는 신권의 열쇠를 주셔서 들을 귀와 순종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축복 받은 훌륭한 세대 중에서도 그분의 택함 받은 아들이라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힘과 영의 인도로써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침례를 받는 물 속에서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부름 받음
세 개의 칠십인 정원회가 새로 조직됨

제167차 연차 대회가 토요일 오전에 시작되어 주요한 행정 조치가 취해졌다. 12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지지를 받았으며, 추가로 세 개의 칠십인 정원회가 조직되었고, 134명의 형제들이 새로 발표된 직책인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본부 청년 회장단의 새로운 보좌가 지지를 받았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4명의 형제들은 다음과 같다. 게리 제이 코울먼 장로, 윌리암 롤프 카 장로, 존 엠 매드슨 장로, 이 형제들은 모두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새로운 총관리 역원인 칼 비 프랫 장로는 지역 관리 역원과 남미 북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다.

게리 제이 코울먼 장로(55세)는 1992년 6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았으며, 멕시코 남 지역 회장단 제1보좌를 역임했다. 윌리암 롤프 카 장로(61세)는 북미 서북 지역 회장단 제1보좌를 역임했으며, 1996년 4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았다. 1996년 4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은 존 엠 매드슨 장로(57세)는 멕시코 북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은 11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은 다음과 같다. 리차드 디 울레드 장로, 에란 에이 콜 장로, 리차드 이 쿡 장로, 듀앤 비 제라드 장로, 웨인 엠 핸콕 장로, 제이 켄트 졸리 장로,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데일 이 밀러 장로, 린 지 로빈슨 장로,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 리차드 이 털리 일세 장로.

엘레인 엘 잭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에서 해임되었으며, 잭 자매의 두 보좌인 지에꼬 엔 오까자끼 자매와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도 함께 해임되었다. 자매들은 1990년 이래 잭 자매의 보좌로서 봉사했다. 매리 엘런 우드 스무트 자매가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으며, 버지니아 우리 젠슨 자매가 스무트 자매의 제1보좌로서 그리고 셰리 엘 듀 자매가 그녀의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캐롤 비 토마스 자매가 보니 디 파킨 자매의 뒤를 이어 본부 청녀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파킨 자매의 남편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칠십인 제삼 정원회와 제사 정원회와 제오 정원회의 조직에 대해 발표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러한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지역 관리 역원들은 현재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가정에서 거주하며, 교회 봉사를 하게 된다고 말씀했다. 또한 힝클리 대관장은 이들은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칠십인 회장단의 관리를 받게 되고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불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5~6쪽 참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은 칠십인 제삼 정원회에 속하게 되며, 멕시코와 중미, 남미에서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은 칠십인 제사 정원회에 속하게 되고,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지역 관리 역원들은 칠십인 제오 정원회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정원회를 갖추게 됨으로써 우리는 지역 회장단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전세계에서 택함을 받아 일하게 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칠십인 제삼, 제사, 제오 정원회에 부름을 받은 134명의 형제들 중에서 128명은 이미 지역 관리 역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었다. □

칼 비 프랫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칼 비 프랫 장로는 그가 46세 때에 에콰도르 키토 부근에 있는 해발 20,000피트 정도나 되는 코토팍시 산에 올라갔던 것을 아직도 기뻐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던 아르헨티나에서의 선교사 시절을 훨씬 더 행복해 하고 있다.

"간증은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영입니다." 하고 프랫 장로는 말한다.

"어느 날 제가 몰몬경을 공부하고 있던 중에 저에게 작용하는 영을 느꼈던 일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래로 저는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라고 프랫 장로는 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피 프랫 장로의 현손인 칼 비 프랫 장로는 1941년 10월 30일에 바톤과 레번 휘튼 프랫의 아들로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태어났다. 1943년부터 1947년까지 그는 멕시코 콜로니아 더블린에서 살았는데, 그 곳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그의 조상들이 살았다.

1947년 이 후에 아리조나가 그의 고향이 되었다. 그는 아리조나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아리조나 주립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69년에 카렌 앤 예맨과 아리조나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는 1968년에 그녀에게 침례 주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커톤과 맥코니 법률 회사에 기반을 두고 변호사 생활을 했던 프랫 장로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페루의 리마, 에콰도르의 키토 등 남아메리카에서 19년 동안 살면서 일했다. 그는 지금 교회의 북 남미 지역을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프랫 부부는 10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여덟 자녀를 기르는 것 이외에, 많은 버려진 남미 어린이들을 양자로 양육하며 영양 실조에 걸린 그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돌보아 왔다.

"복음은 우리기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프랫 자매는 말한다.

1988년과 1991년 사이에 프랫 장로는 스페인 세비야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 이외에 그는 제사 정원회 고문,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 지역 대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역 관리 역원 및 북 남미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교회 봉사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이 단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우리는 부름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라고 말한다. □

리차드 디 올레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리차드 디 올레드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고 당황했으나, 그와 그의 아내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의 사업에서의 봉사는 그와 그의 아내 게이에게 생활의 방식이 되어 왔다.

미 공군 장교였던 그는 1979년에 은퇴한 이래로 사업 분야에서 중역으로서 다수의 직책에 몸 담아 왔다. 한 회사에서는 총지배인으로 일한 적이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로 일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부름 때문에 사회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는 과테말라 퀘잘테낭고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다음, 과테말라 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 임무가 끝난 지 2 년 후에 그는 과테말라 시의 성전장으로 부름 받았다.

이러한 부름에서 그의 부인이 그의 옆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봉사했는지를 특별히 강조한 그는 그와 그의 아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보내지든지 그 곳에서 그의 아내가 또다시 그 일에 큰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샌 안토니오 텍사스 이스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지역 대표, 스테이크 축복사 및 감독으로 봉사했다.

그는 1932년 8월 3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후에 아칸소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56년 12월 19일에 로간 성전에서 게이 배너와 결혼했다. 그들은 슬하에 자녀 세 명과 손자녀 12명을 두고 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의 부인은 말한다.

올레드 부부는 처음에는 군대에서, 그 다음에는 교회 봉사에서, 임무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부름이 그들의 생활 양식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언제라도 부름을 받으면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올레드 장로는 새로운 부름에서 그가 할지도 모르는 많은 일들 중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새로 부름 받은 칠십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간증을 전하고 시온을 강화하고 설립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

에란 에이 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이 된 에란 에이 콜 장로는 어린 시절 집사로서 신권 봉사의 습관을 배웠다. 그는 "집집마다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금식 헌물을 모으던 때"를 기억한다.

참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부름은 가족의 유산이다. 그의 아버지는 멕시코 더블린에서 와드 감독단의 일원으로 50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중 29년을 감독으로 봉사했다. 콜 장로와 그의 아내는 이 봉사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는 감독,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두 번), 스테이크 축복사, 선교부장(멕시코 시티,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선교사 훈련원 원장(멕시코에서, 1995년부터 1996년까지)으로 봉사했다.

그는 1929년 12월 2일에 멕시코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멕시코 콜로니아 쥬레즈에서 쥬레즈 스테이크 아카데미를 졸업한 다음,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미국으로 이사했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후에 뉴욕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백화점을 경영하는 일에서부터 토지를 개발하는 일까지 사업 분야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일생을 통해서 지역 사회 일에 활발히 참여했다. 그러나 그의 주요한 직업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그는 1994년 12월에 교수직에서 은퇴했다. 1980년대 초에 그는 멕시코의 교회 교육 기구 대표로 봉사하기 위하여 3년의 휴가를 받았다.

그는 1955년 8월 24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캐더린 그로스베크와 결혼했다. 그들은 칠십인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여섯 명의 아들과 세 딸 그리고 23명의 손자녀가 있었으며, 2명의 손자녀가 곧 태어날 것이다.

"남편의 취미는 일하는 거예요."라고 그의 부인은 말한다. 7년 전에 부인으로부터 골프 채 한 벌을 선물 받은 뒤 그는 아들들 및 사위와 함께 골프를 배울 수 있었다. 그 골프 채는 단 세 번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자산이 되는 것처럼 그의 부름에서는 그의 일에 대한 역량이 자산이 될 것이라고 콜 자매는 말한다.

그는 복음에 대한 헌신을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인 영원한 관계에 최우선을 두는 방법으로 해석한다고 콜 자매는 말한다. "복음은 제 생활에서 항상 최우선이고 모든 것에서 최상이 되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리차드 이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간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증은 키워야 하는 것이며, 봉사하는 가운데 자라납니다."라고 리차드 이 쿡 장로는 말한다.

그 자신의 간증은 계속되는 봉사로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그는 스테이크 청남 회장, 와드 청남 회장, 감독,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 선교사 및 선교부장 등으로 봉사해 왔다. 1994년에 그와 그의 아내 매리는 몽골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 받았고, 그 나라에 선교부가 조직되자, 초대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복음이 이제 막 뿌리가 내려지는 나라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경험은 정부와 충심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백성들이 교회를 알도록 돕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아마도 이 새로운 부름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 그의 역량이 그가 봉사할 때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며, 그는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쿡 장로는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수년 동안 근무했으며 부감사로 은퇴했다.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그 회사의 신입 사원인 많은 교회의 젊은이들과 일할 기회를 가졌고, 그는 그 젊은이들 중 일부가 디트로이트 지역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1930년 9월 7일에 유타 주 플레즌트 그로브에서 태어난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50년 9월 13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클리아 설리와 결혼했다. 그들의 세 딸과 한 아들이 그들에게 13명의 손자녀를 안겨 주었다. 클리아는 1984년에 사망했다. 그 후 그는 1988년 7월 16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매리 닐슨과 결혼했다.

쿡 장로는 골프에 열성적이다. 쿡 부부가 몽골로 선교 사업을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기분 전환과 운동을 위한 스윙을 할 계획으로 골프 채 하나만 들고 나머지는 남겨 두고 떠났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골프 채를 손에 대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선교 사업에만 몰두하였다.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놀라운 영향력을 보아 왔습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부름을 받고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돌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

듀앤 비 제라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조종사로서 1997년 4월 1일에 은퇴한 듀앤 비 제라드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전직 델타 에어라인의 안전 비행 시스템 메니저이다.

1938년 4월 22일에 태어난 제라드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 가까이에 있는 테일러스빌에서 자라나 유타 주립 대학교에 다녔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는 그의 어릴 적 여자 친구인 케이 베니언과 결혼했다. 졸업한 후에 제라드 형제는 공군에 입대하여 그 곳에서 조종사로서 훈련 받았다. 그의 임무지 중에 베트남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그는 350 전투 시간을 비행했다. 공군으로 복무하는 동안 그는 또한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하와이 등으로 갔다가 마침내 다시 유타 주의 힐 공군 기지로 돌아왔다. 공군에서 제대하자 마자, 그는 웨스턴 에어라인에서 비행을 시작했는데, 결국 그 회사가 델타와 합병되었다. 유타 주 케이스빌에 사는 동안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부름을 받은 지 2년 후에, 웨스턴 항공사에서 그에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비행 운행 부사장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봉사하는 동안 정기 항공로를 단단한 기반 위에 놓기 위하여 돕는 일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남부 캘리포니아로 통근했다. 그 시절 동안 그와 케이는 그들 자신의 자녀 넷을 길렀고, 친했으나 세상을 일찍 떠난 친구의 자녀 네 명의 수양 부모가 되었다. "저는 침실이 일곱 개 있는 집을 이제 막 설계하여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자녀가 넷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네 명 더 생겨 그들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네 자녀를 더 데려오기로 한 결정은 제라드 장로가 어릴 적에 생활에 적용하도록 배운 방식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듀앤이 19살이었을 때, 그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대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날 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자동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감싸고는 "아들아, 너는 매일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하느냐?"라고 물었다. 그 말은 그 후 일주일이 못되어 심장 마비로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영원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사려 깊고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절한 응답을 받아 왔습니다."라고 제라드 장로는 말한다. 1989년에 제라드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로 이사해서 그 곳에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한 후에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유타 주로 돌아온 후에, 제라드 장로는 북 유타 지역의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

웨인 엠 핸콕 장로

칠십인 정원회

웨인 엠 핸콕과 코니 핸콕은 그들의 생활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았다.

"저는 아리조나 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하게 생각되었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미시간 주 미드랜드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다우 케미컬 회사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인도를 얻는 데 있어서 작고 세미한 음성과 금식과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라고 1931년 7월 16일에 아리조나 주 새포드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서 자라난 핸콕 장로는 말한다.

스테이크 부장,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 선교부장의 보좌 및 감독을 역임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핸콕 장로는 그의 부름과 직업 생활에서 자주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 또한 그와 그의 아내는 여덟 자녀의 부모로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종종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들 가운데 몇 가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망을 맛본 후에 왔습니다. 일찍이 저는 선교 사업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위한 접견을 했으며 선교사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징병 위원회가 저의 선교 사업 요청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병역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가 꼭 소용될 것이라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저는 몹시 실망했지만 그 해 여름에 아리조나 대학교에서 브리감 영 대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제 아내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웨인과 코니는 1953년에 브리감영 대학을 졸업한 후, 그 해 6월 25일에 아이다호 폴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군대에서 복무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그 소환이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당황하였다. 다시 실망이 축복이 되어, 핸콕 형제가 아리조나 대학교 법률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 곳에서 그는 3년 후에 학위를 받았다.

핸콕 장로는 그 학위와 주님의 인도 덕분에 자신의 직업을 통해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느낀다.

"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배운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핸콕 장로는 말한다. □

제이 켄트 졸리 장로

칠십인 정원회

19세때에, 켄트 졸리는 인생은 좋은 것임을 느꼈다. 고장의 정육점 지배인으로서 그는 상당한 돈을 벌고 있었고 그에게는 훌륭한 가족과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영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 당시에 제가 하기를 원하던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변화의 때였습니다. 저는 감독님에게 가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선교부를 사랑했고 주님께 봉사하면서 한 경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일을 행하고 그분에게 봉사하면서 제 남은 인생을 보내기로 다짐하고 선교부로 떠났습니다."

1933년 12월 30일에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에서 태어난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릭스 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그 곳에서 그의 아내, 질 왈드럼 리쉬맨을 만났다. "그녀는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강한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라고 졸리 장로는 말한다.

1957년 11월 22일에 아이디호 폴스 성전에서 결혼한 후, 그 부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들어 갔는데, 그 곳에서 그는 학사 학위를 받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러고 나서 졸리 부부는 고향인 아이다호로 가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성공하였고,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도 일하였다.

감독,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청남 회장을 역임한 졸리 형제는 교회에서 성장하며 계속 봉사하였다. 그와 졸리 자매는 일곱 자녀를 길렀다.

생활에 만족했지만 졸리 부부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몇 주 안에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상달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라고 졸리 장로는 말한다. 텍사스 코퍼스크리스티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에 졸리 장로와 자매는 1994년에 렉스버그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법조계와 부동산 개발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복음 선교사가 받는 영적인 충만과 축복을 그리워했다.

졸리 장로는 최근에 받은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부름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해 나가기 위하여 또다시 큰 소리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렸는가 봅니다. 저는 이 새로운 부름으로 겸손하게 되었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라고 졸리 장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새로이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는 지난 20년 간 국제 경영 관리 분야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책임을 비교해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응답했다. "주님의 사업은 참으로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이너즈 장로는 1950년 10월 29일에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에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1968년에 농구 장학금을 받고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는 곧 다른 선수들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곧바로 그는 우루과이-파라과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제 동반자와 함께 저는 몬테비데오 시의 시장과 그의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그들은 삶에 대한 답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라며 메이너즈 장로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 가족에게 의미 심장한 교리를 가르칠 기회를 맞아 그는 중압감에 괴로워했다. 그리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했다. "저는 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위대한 가족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영의 확신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부터, 주님의 축복을 받아 일생 동안 수많은 간증을 갖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 이어 브리감영 대학을 졸업했으며, 1974년 8월 17일에 낸시 제인 퓨린턴과 결혼했다. 부부는 아리조나 주 피닉스 시로 이주했고, 그는 그 곳에서 국제 경영 관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슬하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위베 제조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뒤 그 회사가 레이몬드 회사에 합병되었으며, 후에 그 곳에서 회장이 되었다. 이 회사는 자동화 생산 라인 장비를 설계, 제작, 설치하는 등의 일을 한다. 회장으로 취임한 지 5년이 되는 해에 그는 멕시코 몬테레이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아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봉사했다.

멕시코에서의 임기를 마친 후, 가족 모두가 유타로 이주했다. 그는 마운틴 프레쉬 인터내셔널 회사의 경영 최고 책임자 및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유타 카마스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도 봉사했다. 그는 또한 여러 회사 및 재단 이사회에서 활동했다.

"주님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하며 이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메이너즈 장로는 힘주어 말한다. □

데일 이 밀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지난 30여년 간을 여러 기업체에서 보내다가 최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을 받은 데일 이 밀러 장로는 기꺼이 주님께 모든 시간을 바쳐 봉사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1936년 4월 2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에서 유년기를 보낸 후, 1956년에 우루과이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저는 비록 다섯 살의 어린 아이였지만, 점차 구세주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밀러 장로는 전한다. 밀러 장로는 다른 두 형제들과 함께 편모 슬하에서 자라났다. "제가 열여섯 살이 되던 해에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리라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열여덟 살이 되던 해에,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 이어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남가주 대학의 국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0년 6월 24일에 라우렐 리 챈들러와 결혼했다.

캘리포니아 주 팔로 알토에 직장을 갖게 된 그는 당시 스탠포드 와드의 감독이었던 헨리 비 아이어링의 보좌로 봉사하다가 후에 고등 평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1979년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선교부를 관장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다섯 자녀 중 네 명이 밀러 장로와 함께 남미로 이주했다. 그는 귀환한 뒤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제약 회사인 신텍스의 중역으로 12년 간 근무했으며, 그 후 경영 관리 훈련 회사인 젱거-밀러의 창업자가 되었다. 그는 지난 8년 간 초기 단계에 있는 국제적 첨단 기술 회사의 경영 자문으로 활약해 왔다.

근일에, 밀러 부부는 미처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집을 팔아야만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집을 팔고 이틀이 지난 후, 그는 북미 남동 지역의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 부부는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한 후, 카리브 해 유역을 거점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에 관여해 왔다. 그가 이뤄낸 업적으로는 카리브 해 유역에 복지 봉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는 푸에르토리코에 두 개의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데 기여했다.

"저의 경영 일선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린 지 로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선교 사업은 린 지 로빈스 장로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할 때,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선교 사업은 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저는 저의 아들들에게 선교 사업을 시키고 싶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린 지 로빈슨은 1952년 10월 27일에 유타 주 페이슨에서 태어나 근처에 있는 스프링빌에서 자랐다. 그는 선교 사업을 가기 전과 후에 브리감 영 대학교를 다녔다. 그는 1974년 6월 27일에 맨타이 성전에서 잰 닐슨과 결혼하였고, 그 부부는 유타 주 로간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식품 과학과 경영학을 공부했다. 아내가 임신했음을 안 후 그는 그의 저녁 시간과 주말을 교회와 가정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식당 직업의 목표를 포기했다.

1976년에 그는 스페인어 학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 해에 아리조나 주 글렌데일에 있는 미국 국제 경영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해외에서 살 것을 고려했지만 일곱 명의 자녀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과 가까이 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유타 주 북부에서 법률에 관한 출판업 판매 담당 대표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재정 상담자로 일했다. 1983년에 그는 프랭클린 퀘스트 회사에서 수석 부사장이 되었고 1993년에 그 회사에서 은퇴하였다.

로빈슨 장로는 알래스카에서 그림 그리기와 낚시를 즐겼고 교회 스포츠 선수로 뛰었다. "교회 스포츠는 우리가 다른 와드로 이사갈 때마다 형제들을 알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것 외에, 그는 스테이크 집행 서기, 고등 평의원, 감독으로 봉사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센터빌 유타 노스 스테이크, 센터빌 21와드의 회원이다.

"저는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합니다. 모든 계명, 모든 원리, 모든 가르침은 여기 이 지구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내세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라고 로빈슨 장로는 말한다. □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섯 대륙에 걸쳐 57개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관리해 온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는 폭넓은 국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저는 우리들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 경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우리 교회의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지닌 회원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1931년 10월 19일에 유타 주 허리케인에서 태어나 1952년 9월 24일에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애프톤 스트레톤과 결혼했다. 그는 슬하에 자녀 4명과 손자녀 11명을 두고 있다.

그는 학사 학위를 유타 주립대에서 받고 석·박사 학위를 일리노이 대학에서 취득했다. 그 후 그는 중위로 공군에서 2년 간 복역했다.

1958년, 그는 시카코의 스위프트 주식회사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1969년에 그는 앨라이드 밀스 회사에 입사하여 회장 및 경영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경영 중책을 맡았다.

1977년 그는 뉴욕 시에 본부를 둔 농업 관련 산업에 깊이 관여하는 거대한 다국적 사기업이며 금융 회사인 콘티넨탈 그레인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이사라는 중책을 수락하고 코네티컷의 뉴 케이넌으로 이주했다. 그는 1984년에 사장 및 대표 이사가 되었고, 연이어 1988년에는 최고 경영 책임자가 되었으며, 여러 협력 업체에서도 일했다. 그는 현재 미-중 사업 평의회의 위원장과 미국 미-중 관계 위원회 및 미-중 협회의 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상해 시 시장의 국제 비지니스 지도자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으며, 현재 해외 관계 협의회의 일원이며 자원 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전국적인 조직인 포인츠 어브 라이트 재단의 이사장이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았을 당시, 그는 뉴욕 요크타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두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단에서 대제사와 보좌로서 봉사했었다.

스타헬리 장로는 "제 유산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르침 덕분에 간증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직분에서 봉사하게 되어 가슴이 벅찹니다." □

리차드 이 털리 일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리차드 이 털리 장로는 "복음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내세의 삶에 대해 어떠한 기대라도 갖고자 한다면, 복음이 바로 그 길입니다."

털리 장로는 1930년 12월 29일에 텍사스 엘 파소에서 태어나, 텍사스 에앤엠(A&M) 대학에 다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를 관할하는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 후, 그는 유타대에서 기계 공학을 공부했다. 그와 그의 아내 베티 진 니클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1954년 4월 1일에 결혼했다.

1955년에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는 텍사스의 항공 우주 및 천연 가스 회사에서 일했다. 1957년에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다시 유타대에 복학했다. 1966년에 그는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아이오와 주에 체류하는 동안 지방부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했다. 그 후, 그는 베텔 메모리얼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취직하여 위싱턴 주로 갔다. 그는 그 곳에서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2보좌가 되었다. 1972년에 그는 유타 대학교에 부교수로 취임하여 되돌아왔으며 유타 주 과학 및 기술 자문 위원이 되었다.

털리 장로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멕시코 헤르모실로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였다. 1989년에 명예 교수가 되면서 한 기술 재무 회사의 전무 이사로 임명되었다가, 1992년에 은퇴했다. 그는 솔트레이크 이글 게이트 스테이크에서 두 차례 감독을 역임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 그는 스테이크 가족 기록 초출 책임자로서의 직분을 가진 고등 평의원으로서, 또한 솔트레이크 성전의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슬하에 7명의 자녀와 36명의 손자녀들이 있다. 아들인 리차드 이 틀리 이세는 교회의 역사 및 가족 역사과에서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털리 장로는 그가 가장 앞세우는 가족 외에도, 가족 역사 사업, 골프, 여행 및 컴퓨터를 즐긴다. 그는 가족 역사, 공학 및 통계에 관한 교재를 집필하고 과학 공학 잡지에도 기사를 기고하였다.

"저의 유일한 염원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 참되고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메리 엘런 우드 스무트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새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일곱 자녀의 어머니이며 44명의 손자녀들을 거느린 할머니인 매리 엘런 우드 스무트 자매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같이 기여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가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 서로를 세우고 지지하며 계발한다.'입니다. 우리 가족은 굳게 그것을 믿습니다."

1986년부터 교회 영접 분야에서 봉사한 스무트 자매에게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사랑과 지지를 넓히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스무트 자매와 그녀의 남편인 스탠리 엠 스무트는 템플 스퀘어에서 1년 그리고 교회 영접 분야에서 7년간 봉사한 후, 귀빈 전담 교회 영접 분야의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주요 책임은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하는 저명한 인사들을 접대하는 일입니다."

메리 엘런은 1933년 8월 19일에 유타 주 옥든에서 멜빈과 마보라 스미스 우드 사이에 난 여섯 딸 중 다섯째로 태어나 유타 주 클리어필드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1952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어머니의 첫번째 책임은 자녀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 믿는 스무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결혼하고 8년 동안 전업 주부로서 일곱 자녀 중 여섯을 직접 키우며 가정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스무트 자매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한편, 교회 저술 위원회에서 일했고 데비스 군의 지역 신문에 청소년을 위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1983년에 그녀의 남편은 오하이오 콜럼버스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새로 조직된 오하이오 애크론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선교부는 커틀랜드와 하이람 등지를 관할하고 있는데, 스무트 부부는 커틀랜드의 뉴엘 케이 휘트니 상점을 비롯하여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여러 뜻깊은 행사에 참여했었다. 기자단과 타지 방문객들을 자주 만났던 스무트 자매는 "바로 그 곳에서 공보 활동에 몰입했었다"며 "그 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공보 활동에 참여해 왔다"고 말한다.

스무트 자매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조직의 회장으로서, 그녀가 지금껏 행하기를 즐겨온 일, 곧 사랑과 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버지니아 우리 젠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저는 여성 예찬론자입니다. 여성들은 각각 그 외양과 능력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지만 저는 모든 여성을 사랑합니다."라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제1보좌로 새로 부름 받은 버지니아 우리 젠슨 자매는 말한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토박이인 젠슨 자매는 유타 대학교를 다녔고 1963년에 쇼핑 센터 개발 회사의 사장인 제이 리스 젠슨과 결혼했다. "제 남편은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인내심이 강하고 친절하고 자비롭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는 반드시 집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가정에서 1남 3녀의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에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 참여를 해왔다.

일단 그녀의 자녀들이 집을 떠나기 시작하자, 젠슨 자매는 자원 봉사 일을 시작했다. 17년 전에 그녀는 처음으로 교회 영접 임무를 받아들였다. 10년 후에 그녀는 그녀가 3년 동안 했던 임무인 영접 부책임자로 봉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1년 반 전에, 젠슨 자매는 모든 시간을 교회에 봉사하면서 500명 이상의 자원 봉사 요원들을 관리하는 요셉 스미스 기념관, 교회 본부 건물 및 상호부조회 건물의 교회 영접 책임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교회 영접 임무를 떠난다.

젠슨 자매는 자신은 신성한 여성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여성들이 홀로 인생의 문제점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호부조회는 유일 무이한 독특한 입장에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있다. 여성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문제가 특이하다고 느끼므로 그들이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믿는다. 여성은 그들이 지닌 사랑과 양육에 대한 타고난 성향을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고 젠슨 자매는 말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이 그들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여성이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고 그들의 신성한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도록 도울 우정의 유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57세인 젠슨 자매는 대부분의 시간을 상호부조회 부름을 수행하며, 초등협회, 청녀 및 상호부조회 조직에서 봉사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의 프로그램이고 저는 주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

셰리 엘 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셰리 엘 듀 자매는 캔자스의 드넓게 펼쳐진 농장에서 성장하면서 땀 흘려서 수고하는 일과 추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저는 발이 겨우 페달에 닿을 정도가 될 때부터 트랙터를 운전했습니다. 저는 관개 호수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추수하는 일도 도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추수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농장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일찍부터 배우게 됩니다."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듀 자매는 열심히 일하여 많은 축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오랫 동안 연습하여 고등학교에서 농구 주역 선수가 되었다. 그녀는 피아노도 열심히 연습했다. 뛰어난 음악가로서 그녀는 알래스카, 유럽, 지중해 지역으로 세 차례의 유에스오(USO) 순회 공연 여행을 했고 대학 시절에는 반주자로서 동양을 순회 했다.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한 셰리는 북 크래프트사에서 부편집국장으로 4년 동안 지낸 다음, 디스 피플지의 부발행인이 되었다. 9년 동안 데져렛 출판사에서 일하던 중 마지막 4년 간은 출판 부사장으로 일했다. 그녀는 또한 벤슨 대관장과 힝클리 대관장의 전기를 저술하는 기회를 가졌다.

1953년 11월 21일에 캔자스 주 율리시즈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시골 아이들과 도시 아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매우 부끄럼을 탔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무척 노력했습니다.

"모든 신분의 사람들을 접견하여야만 하는 저의 직업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의 사이에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스테이크와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이었고 본부 상호부조회 역원이었던 듀 자매는 그녀의 부름을 수행하는 일에 주께서 도와주셨음을 느낀다. 주님은 또한 가족 중심의 교회에서 그녀가 독신 자매로서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다. "결혼한 적이 없는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신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환영 받고 사랑 받고 존중 받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체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독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주님의 교회의 일원인 셰리로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

캐롤 비 토마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새로이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을 받은 캐롤 비 토마스 자매는 "제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젊은 여성으로서, 저는 언제나 교회에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캐롤은 1942년 5월 6일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에서 칼과 글래디 제이콥 버뎃 사이에 다섯 자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어느 해 여름, 그녀는 그랜드 캐년에서 일하던 중에 역시 그 곳에서 일하던 의과대생 레이 토마스를 만났다. 그 해 가을에 그들은 유타 대학교에 등록했고 2년 후인 1962년 3월 23일에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을 솔트레이크에서 보낸 토마스 자매는 그녀의 남편이 의과대학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때까지 6년 간을 캘리포니아, 워싱톤, 캔사스 등지에서 살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해 했다. 1969년에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되돌아 왔다.

현재 슬하에 일곱 자녀와 19명의 손자녀를 둔 토마스 자매는 교회에서 봉사할 많은 기회를 가져 왔다. 그녀는 거의 25년 간 솔트레이크 홀러데이 사우스 스테이크에서 여러 차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해 왔다. 1987년에 청녀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졌다. – 처음 여섯 달 동안은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다가, 스테이크 청녀 회장이 되었다.

"상호부조회와 연이어 청녀 회장단에서 다년 간 봉사한 경험은 청녀회에서 상호부조회로 순조로운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1990년에 그녀는 본부 상호부조회에 부름을 받아 상호부조회 150주년 기념 행사가 범세계적인 행사가 되도록 주관하는 주요한 책임을 받았다. 그녀는 상호부조회에 머무는 동안에도 여전히 청녀들의 생각에 끊임없는 교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아직 청녀반에 속한 딸들도 있었고, 시카고, 뉴저지, 콜로라도 등지에서 청녀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는 딸들과 며느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은 또한 독신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했었다.

본부 상호부조회에서 본부 청녀 회장단으로 옮기면서, 타고난 열정을 지닌 토마스 자매는 언제나 그녀가 즐겨 하는 일, 곧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

그림: 벨로이 이튼, *솔트레이크 계곡에서의 기도와 헌납*

1847년 7월 23일, 금요일 아침, 브리감 영 대관장(당시 병중이어서 하루 늦게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왔음)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일단의 개척자들이 주님의 땅을 헌납하기 위해 시티 크리크의 남쪽 지류 가까이에 모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프랫 장로가 시온의 진영이 보존되게 해주시고, 여행 동안 그들이 변성하였으매,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했다.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그리스도라."
(니파이삼서 11: 8~10)